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과
이시돌협회의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Jeju Locality and the Experience
of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허 찬 란

2023년 2월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과 이시돌협회의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성

지도교수 권상철

허 찬 란

이 논문을 지리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허찬란의 지리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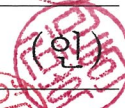
심사위원장

손 명 철



위 원

김 민 호



위 원

양 영 철



위 원

이 상 학



위 원

권 상 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국 문 초 록

세계는 경제활동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비단 시장 자본주의만을 말하지 않는다. 대안 경제로서 사회적경제라 불리는 시민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공동체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비영리재단 활동, 기부문화, 인증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경제 또한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깁슨-그레엄(Gibson-Graham) 두 교수는 경제를 정해진 이론이 아닌 경제 동향으로 바라보며 세계 곳곳의 공동체경제 사례를 찾아다녔다. 공동체경제의 특성은 소규모 지역에 기초하여 적정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익의 적당한 부분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특별히 공동체성이 남아 있는 제주의 경제활동은 공동체경제로서 자본주의 외의 다양한 세계가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제주의 공동체경제는 마을과 지역에 기초하여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자본 이외의 신뢰, 관계재, 사회적 자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노력하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그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현대 사례 20곳을 바탕으로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고, 전통적인 이시돌협회(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경험과 연계시켜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공동체경제는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심오하고 유기적인 과정이다. 또한,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성, 공유재, 공동체성이 실행되는 경제 동향이다. 그런데도 실증적으로 지역사회나 마을에 대한 논의나 소개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고를 통해 문헌연구와 인터뷰, 참여 관찰로 수집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료를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럽연합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EMES) 지표와 분석작업을 검토하며 핵심 요인을 정리해 보았다. 이 작업은 여러 형태의 자료분석에 도움이 되어 제주의 다양한 대안경제 형태로 진행되어 온 사회적경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연구 분야는 그 동안 인증절차, 지원, 창업, 고용, 네트워크, 자생력, 성과 등에 대해 다루어 왔지만, 연구자는 지역기반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그 안의 구성원들 간 결속을 살펴보며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공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역의 니즈와 그 해결 요인으로 탐색해 보았다. 20개 사례가 현재까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복합체인 이시돌협회의 경험과 비교하며 지속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조건은 현대와 전통 모두에서 공동체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사업의 구상부터 사업의 실행, 사회적 회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구성원이 담아낸 공동체 경제를 이룰 때 가장 제주다움을 보여준다. 지역에 기반한 관계재와 마을자원의 결속은 전통의 이시돌 사례부터 현대 사회적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특성의 지속성으로 발전하였다. 불행히도,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모든 영역을 침범하여 현대 세계는 지역개발에 있어 국가와 국가, 국내 지역 간의 불균형, 이제는 지역 주민간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수급자와 실업자,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였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비자본주의 주체의 비율이 제주 경제의 0.75%에 불과해도 그들이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며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쌓고, 유한한 마을자원을 보존하는 데 큰 의미를 둔다.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임팩트로 포착된 수놓음, 일자리, 수익, 복지, 로컬푸드, 협업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 사회공헌, 주민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성공 요인이었다. 이를 가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영역으로 보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공공성, 공유재, 공동체로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면, 현대 사례 20개와 이시돌협회의 지속가능 요인을 합쳐보면 제주공동체경제의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 최초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이시돌협회는 오랫동안 유기적 생명력으로 지속해 왔다. 이시돌협회의 경험과 교훈은 현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었다. 이처럼 현대와 전통이 결합한 공동체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첫째, 주민참여 및 일자리창출과 교육 및 돌봄 사업을 통한 공공성의 실현, 둘째, 토양 연구 및 초지개발과 사회공헌 및 환경보전을 통한 마을자원의 활용, 셋째,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과 수놓음은 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체경제의 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

키워드 : 대안경제, 사회적경제, 공동체경제, 이시돌협회, 마을자원,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가능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절차	3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6
1) 연구방법	6
2) 연구대상 및 연구의 틀	10
II. 이론적 배경: 대안 경제 논의	13
1. 시민경제와 모두를 위한 경제	13
2. 다양한 경제와 공동체경제	19
3. 사회적경제와 조직	28
1) 사회적경제의 정의	28
2) 사회적경제조직의 분류	36
4. 사회적경제 선행연구	44
III.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47
1. 한국 사회적경제 개관	47
2. 제주의 사회적경제 개관: 제주지역 경제 현황과 사회적경제 조직	48
3. 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56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사례	56
2) 대표 사례의 사회적경제 특징	56
3)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의 임팩트	70
4. 제주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의 특징	74
1) 공동체 결속	75
2) 사회공헌	78
3) 주민참여	80

IV. 제주 사회적경제의 지역성과 지속가능성	83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특징	83
1) 제주의 지리적 환경	83
2) 사회적경제와 제주	86
2. 전통의 이시돌목장 발전 경험	90
1) 맥크린치 초기 이시돌목장 사업	91
2) 이시돌목장, 협회의 경험	105
3) 이시돌의 경험과 실패로부터의 교훈	114
3.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전통과 현대	116
1) 전통의 이시돌의 사회적경제 특징	116
2)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127
3) 제주 사회적경제의 뿌리내림	143
V. 요약 및 결론	157
참고문헌	160
Abstract	181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제주	184
부록 2. 설문지 1. 2. 3.	185
부록 3. 공동체경제 앵커맨	188
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190
부록 5. 무릉외갓집 주변 마을 공덕비	192
부록 6. 맥크린치의 라이온스 활동	193

표 목 차

<표 I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별 분류	11
<표 II -1> 모두를 위한 경제 지리적 분포	16
<표 II -2> 공동체경제 프로젝트의 3요소	23
<표 II -3> 경제 영역 표	24
<표 II -4> 장소로서 공동체 개념의 정의	25
<표 II -5> 공동체경제 주요개념	27
<표 II -6> 공공성 주요개념	27
<표 II -7> 비자본주의 경제의 실행과 평가	28
<표 II -8> 국가별 사회적경제의 정의	29
<표 II -9>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 II -10> 미국-유럽-한국의 사회적경제 맥락 비교	33
<표 II -11>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단계	35
<표 II -12>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35
<표 II -13> 사회적기업의 특성	36
<표 II -14>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특성	37
<표 II -15> 협동조합 7대 원칙	38
<표 II -16>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39
<표 II -17>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교	39
<표 II -18> 사회적경제 조직 간 차이점	41
<표 II -19>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현황(2016~2020)	42
<표 II -20> 사회적경제 정책방향(2021)	42
<표 III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유형과 세부조직	47
<표 III -2> 2015년-2019년 사이 제주도 일반사업체 현황	50
<표 III -3> 제주도 사업체 일반 현황-조직 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50
<표 III -4> 지역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51
<표 III -5>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 규모	52

<표 III-6>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체수	53
<표 III-7>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구분	56
<표 III-8>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특징 검토 지표	57
<표 III-9> 20개 사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영향	71
<표 III-10> 20개 사례의 성공 요인	72
<표 IV-1> 제주 사회적경제 실천전략	89
<표 IV-2> 이시돌 목장의 사업, 활동	93
<표 IV-3> 지역에서 시작하는 테스트 베드의 효시	109
<표 IV-4> 금악 개척농가 지역 세대주(가명) 및 가족사항	112
<표 IV-5> 한림지역 마을 간 관계	119
<표 IV-6> 1979년 금악리 인구	123
<표 IV-7> 금악리 본동 토지 및 가축·농기구 현황, 1979년	123
<표 IV-8> 이시돌 토지 및 농작물·가축현황, 1979년	124
<표 IV-9> 안덕면 광평리 농·축산 현황, 1979년	124

그림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전개	6
[그림 I-2] 제주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제 분포	7
[그림 I-3] 개인의 행복 요인 비교	7
[그림 I-4] 본 연구의 틀	12
[그림 II-1] 개인 선호도 이론	18
[그림 II-2] 경제 빙산 모델 - 김순-그레엄(L) & 마리아 미즈 모델(R)	19
[그림 II-3]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32
[그림 II-4] 다양한 대안 경제의 사회적경제 조직	44
[그림 III-1] 지역별 사업체수, 종업원수의 전국 대비 비율	51
[그림 III-2]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	53
[그림 III-3] 이 연구의 대표사례 20개 분포	55
[그림 III-4] 사회적경제 조직 20개 사례의 영향	71
[그림 III-5] 사회적경제 조직 20개 사례의 성공요인	72
[그림 III-6] 제주 사회적경제의 3가지 특징	74
[그림 IV-1] 어음리의 구올레와 신올레	87
[그림 IV-2] 이시돌목장 일대 (1960년대, 맥크린치 소장)	94
[그림 IV-3] 맥크린치 신부 사진(1950년, 맥크린치 소장)	94
[그림 IV-4] 금악리의 마을 주민 구성	96
[그림 IV-5] 1977년, 2013년 이시돌협회 조직도	98
[그림 IV-6] 이시돌협회 발전과정의 거주지역 분포	116
[그림 IV-7] 건강한약국 영향의 지리적 분포	128
[그림 IV-8] 제주희망협동조합 영향의 지리적 분포	130
[그림 IV-9] 평화여행자 지리적 범위	133
[그림 IV-10] 신노형점 지리적 범위	135
[그림 IV-11] 서귀포시 성산읍 ~ 서귀포시 대정읍 노지문화 클러스터	137
[그림 IV-12] 하먼 프로젝트 클러스터 (빨간 5개의 스포크)	137

[그림 IV-13] 하멘 프로젝트 참가업체	138
[그림 IV-14] 희망나래 지리적 범위	139
[그림 IV-15] 일배움터 지리적 범위	140
[그림 IV-16] 황새앗카리타스 내 일배움터	141
[그림 IV-17] 한살림 제도개선 방향	142
[그림 IV-18] 공동체경제 영역에 비춘 이시돌경험	146
[그림 IV-19]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자활센터	149
[그림 IV-20] 교도부를 통한 전통의 이시돌 협회 경제생태계	150
[그림 IV-21] 현대의 이시돌협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151
[그림 IV-22] 제주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의 담보	152
[그림 IV-23] 현대와 전통의 결합과 지속가능성	154
[그림 IV-24] 시대별 삶의 질 변화와 사회적 가치	1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를 지탱해왔던 다양한 경제 논리들, 이를테면 영리기업, 자유무역, 재산권, 이윤과 기술 발전, 정부의 개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불평등한 사회 곧 빈부 격차와 양극화, 자원고갈, 정부 정책의 불연속성, 세계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이론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비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Bruni, 2012; Gibson-Graham et al, 2014). 다양한 대안경제 논의 중 깁슨-그레엄은 자본주의가 보여 온 특징, 곧 총체성과 통일성과 단수성 한 가지로 정의된 개념에 대항하며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Gibson-Graham, 2013).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Maria Mies)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Veronika Bennholdt-Thomsen) 역시 자본주의 경영조직과 소유 방식의 중앙집권화를 견제한다(Mies and Bennholdt-Thomsen, 2013). 신제도주의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김기홍은 비자본주의 영역의 확대를 지향하며 로컬에서 공유자원 관리의 성공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글로벌로 보편화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김기홍, 2014; Ostrom, 2010). 자마니(Stefano Zamagni)와 부루니(Luigino Bruni)는 주민 간 관계제 실현 특히 경제관련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간의 일치를 주장한다(Zamagni and Bruni, 2016). 학자들이 내놓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는 경제이론이 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비자본주의 성과는 분배 정의, 공유지 관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서로의 상호성, 불평등과 빈부 격차 해소, 지속적인 번영을 들 수 있다. 또한, 비자본주의의 거시적인 대안과 담론으로 공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완 편, 2017). 사회적경제 관련, 법이 제정되고, 소규모 신생기업이 출현했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과 보조금 유인정책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을 이룩했다. 소위 사회적경

제 인큐베이팅과 벤치마킹으로 성공한 모델의 절차를 따르면 인과론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기대도 함께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적경제의 실행 측면은 매우 복잡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두고 정부 지원금을 이용한 보조금사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경제의 실체와 실행 차원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일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제주 사례들의 주된 현상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적경제가 태동하는 지역사회는 사회적경제 임팩트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지리에 대한 논의이며 자본으로 소실된 지역주민의 경제공간을 재탈환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지역주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 활용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에드윈 르페브르(Edwin Lefebvre)는 공간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의 특성으로 보았다(2010). 스티븐 다니엘스(Steven Daniels)는 공간은 실체와 상상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며,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는 공간에서 주체와 객체는 이중적 모호한 관계를 만든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도린 메시(Doreen Massey)는 공간의 분업을 불평등으로 보았으며,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와 구조주의 학자들은 공간의 사회적 구성방식과 수행담론과 연계시켰다(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인본주의 지리학자들 투안과 램프는 공간을 정체성과 의미로 이해하였다(Creswell, 2004). 학자마다 보는 방식이 다른 것은 경제를 비자본주의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이재현, 2009; 이해은 외, 2005). 공동체경제는 자본주의가 촉발한 장소를 다시 재영토화 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비자본주의 담론을 탐구한다(이영민, 2013: 한국문화지리학회, 209-210 재인용). 인간이 본래 경제활동을 하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협동하는 인간의 생활방식을 분리시켰다. 인간관계의 정체성이 상실된 경제 생활의 위기에서 칼 폴라니는 돈보다 생활체계의 변화를 주장하였다(Polanyi, 2009; Gold, 2012).

실제로 제주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동향은 일반사업체 대비 0.75%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시적인 비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경제, 비자본주의, 자본주의 외의 다양한 경제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도출하여 사례를 제시하

고 정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가시적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경제에서 발생한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이를 제도화해 나가는 관련 조례 발의 등을 토대로 자본주의 담론을 붕괴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를 찾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4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지역의 경제사회 현상을 고용과 자립의 경제적 차원으로 들여다보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안 경제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임팩트 검토와 지속가능성 제언을 위한 연구의 틀을 구성한다. 둘째,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들을 조사, 비교하며 공통점과 새로운 점을 찾아 공동체, 공유재, 공공성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셋째, 현대 사례의 경제적 가치에 수반되는 마을 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속가능성의 실현 담론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사회적경제 동향을 살펴면서 그 효과와 특징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사회적경제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인 이시돌의 경험과 현대 사례를 합쳐 사회적 가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효과는 현재와 미래의 희망으로서 확대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2. 연구 내용과 절차

이 연구는 제주의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들을 찾아 그 지속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와 노동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유미현, 2017),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강경민, 2012), 비시장적 상호의존(Coe and Kelly, 2019)이라는 공동체에 기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경제의 특성을 찾아내서 지속가능하고 확대가능한 측면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I 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구성원들이 서로 결속하여 목적사업을 실행하는 목적을 살핀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마을 살리기, 공정무역, 유한한 자원보전 등 공간적 의미로 설명된다. 연구자는 그 사례들의 선정과 참여 관찰, 사업실행과 EMES 성과 지표를 소개할 것이다.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출발한 시민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온 모두를 위한 경제, 공동체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전지구적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와 다양한 경제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¹⁾. 그 중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자기조정적 시도가 불러올 파국적 상황에 맞서,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일컫는다(정문수, 2016). 사회적경제가 대륙과 국가별로 등장한 배경, 각각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과 한국의 사회적경제 맥락, 사회적경제 인증절차, 등장과 배경, 조직분류, 운영과 정책, 지속가능성의 조건(현대와 전통이 결합한 공동체경제)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공공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인증 제도 절차와 지원 기간인 5년 내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 커뮤니티 비즈니스 확대를 전제로 한다(Barringer and Ireland, 2014). 그래서 자립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및 국가와 정부, 시민사회간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제주의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의 일반적인 개요로 앞에서 살펴 본 주요 사업, 인증 유형, 특징에 대해서 볼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 인증 사회적경제 470개 소에서 네트워크 기관의 인정을 받은 12개 기관과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 8개 사업체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EMES 방식과 참여 관찰을 통해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찾고, 이를 이시돌²⁾ 경험과 결합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체의 수익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영공시를 토대로 재무제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더불어서, 사례를 통해 제주도가 자본주의가 아닌 비자본주의 영역의 결속을 중시

1) 반세계주의를 지탱하는 지역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여러 대안으로서 시민 민주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반자본주의, 혼합경제가 있다(Cho, 2014). 연구자가 제시하는 공동체경제는 이 가운데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리 영역에 가깝다.

2) 이시돌은 한림읍 금악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원래 이시돌은 가톨릭 성인이다. 맥크린치는 농촌산업개발협회(이하, 이시돌협회)를 창립하며 이 협회를 지켜주는 성인으로 이시돌을 택하여 이시돌협회라 하였다. 본 논고에 혼재되어 등장하는 이시돌협회와 이시돌목장과 이시돌 명칭을 정리하면, 먼저 이시돌협회는 기관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다음으로 이시돌목장은 초지 경관이나 축산업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이시돌은 기관이나 목장보다 더 광의의 공간을 가리킬 때, 이시돌의 전통과 경험, 역사와 문화 등의 선례에, 그리고 장소 등 단순 표기 시에 사용한다.

하며 관계재를 통해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제주다움의 생산품을 가지고 성공해 온 해당기업 참여 관찰 인터뷰를 소개할 것이다(MacLeod, 2012).

제VI장에서는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을 고찰한 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경험을 가진 이시돌협회 사례를 탐색할 것이다. 1절에서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경제 경제 제주 일반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2절에서는 이시돌협회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기여해 온 일자리창출, 수놓음 재현, 후계자발굴, 경로의존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시돌목장의 시작과 성공, 쇠퇴와 재건, 다시 실패와 사업전환 등 이시돌협회가 걸어 온 성공사례,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볼 것이다. 전통의 이시돌협회는 축산, 양모, 의료, 교육, 돌봄, 신협 등의 사업에서 정방향의 사업인 우유, 사료, 축산업으로 지역에 배태되고 돌봄 분야로 확장을 이어오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었다. 수많은 실패에도 사회적 가치실현에 소홀하지 않았다. 현대 20개 사례도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성공하고 있었다. 그중 사업단의 와해와 퇴사, 실패와 재창업을 한 사례, 사회복지를 위해 인증제도 영역을 확대한 사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사회복지 수익 분배 사례를 본다. 3절에서는 전통의 이시돌 경험과 공동체경제의 특징을 보았다. 1980년 전후의 이시돌과 금약 본동 주민 간 협력과 한계, 토지 이용에 맞춘 본동의 농기구와 농업 현황, 이시돌 주민의 농작물, 양돈 등 가축현황, 광평리 작물 재배와 가축현황을 본다. 공공의 영역으로 교육분야는 초창기 농업교육학교부터 근래의 빌라수산나와 숨비소리까지 다양하지만, 특히 소수의 어려운 학생들에 관한 관심, 더불어 성이시돌 의원 활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서는 현대 사회적경제의 사례로는 주는 문화로 결속을 이루는 모두를 위한 경제, 수익 창출에 근로자들이 협력하는 자활기업, 사회적 생태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본다. 공유재는 생태마을 확장을 통한 지역애, 지역애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 서귀포 하멘 특화사업의 사례를 보았다. 공공분야는 발달장애가 있는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의 예와, 사회적경제의 성공 이면에 생기는 갈등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보았다. 특히, 이시돌의 전통을 살펴보면서 현대 사회적경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배태된 사회적경제가 지속 가능하면서 확대되고, 로컬의 영역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도전, 혁신, 창의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논문의 요약 부분과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요약 부분은 앞에서 정리한 대로이고, 결론은 제주 사회적경제가 갖는 보편적인 특성과 제주만이 갖는 독특성을 본다. 이를 통해 제주의 오랜 사회적경제를 이어온 이시돌과 그 이전의 제주 주민들이 협력하며 살아온 정신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안과, 본 논고의 한계 및 이바지한 바를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1장	연구문제 - 제주도 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핵심 요인 - 제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제2장	이론적 배경 - 시민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공동체경제, 사회적경제 연구 방법 - 인터뷰와 참여 관찰
제3장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 - 한국 사회적경제 개관 - 제주 사회적경제 개관과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의 임팩트
제4장	제주 사회적경제의 지역성과 지속가능성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특징 - 전통의 이시돌목장의 발전과 경험 - 현대와 전통의 결합과 제주 사회적경제의 뿌리내림
제5장	결론 및 제언 - 사회적경제 가치 구현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림 I-1] 본 연구의 전개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행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성공 요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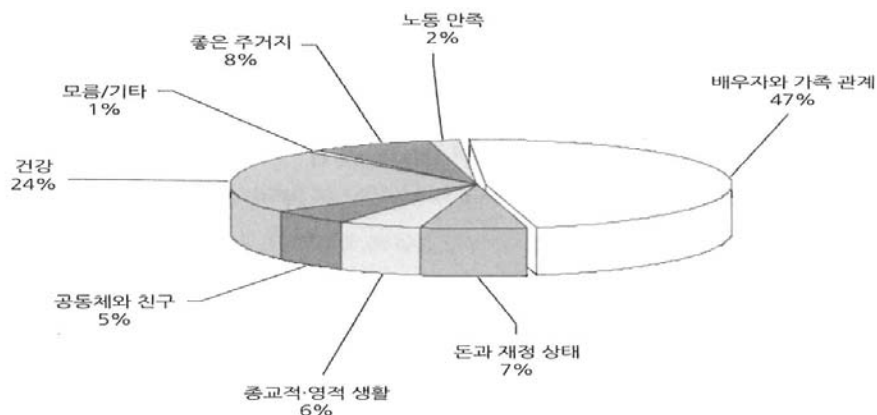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사례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자본과 행복 요인을 비교한다. 이 조사는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출처: 제주연구원(2020)

[그림 I-2] 제주도 사회적경제 관련 주제 분포

주제별 분포도 분석 그림은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2025) 가운데 주제별 분포도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조직(14.7%), 일자리 창출(7.4%), 자생력(6.6%), 고용안전망과 네트워크, 마케팅, 판로개척(각 2.9%) 순이었다. 사회적경제 분포도에는 안 나오고 별도 기타에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가치(3.0%)가 최소화로 나타났다. 분포도상 사회적경제 인지도는 제주도민이나 공무원에게 기업이나 일자리, 판로 같은 눈에 보이는 영역, 일반 기업 유형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Jackson(2016)

[그림 I-3] 개인의 행복 요인 비교

개인의 행복 요인 비교 그림은 2006년에 BBC가 Growth from Knowledge에 의뢰한 National Analysis Pulls이다.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행복지수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0% 가까이가 노동시간 단축과 간소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뽑았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사람들은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공동체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행복을 바라는 데서는 가족이란 공동체를 선택하는 풍요로운 불행의 역설을 보였다.

그러므로 연구방법은 참여 관찰과 인터뷰이다. 연구자는 먼저 대표 사례 20곳에 1차 설문(부록 2-1)을 보내고, 진행 과정에서 다시 2차 설문(1차 설문의 모범답변을 토대로 안내)을 보냈다. 특히 모두를 위한 경제 회사에는 별도의 설문(부록 2-2)을 보냈으며, 이시돌협회 관계자들에게도 별도의 설문(부록 2-3)을 보냈다. 설문은 인터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터뷰는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확인, 사회적기업가 정신, 내부 작업 환경,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만나기, 경영상의 어려움과 위기관리, 사업체 외부 경관(마을, 학교, 마을회관, 부존 자산 등) 살피기³⁾ 및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직원들 거주지에서의 봉사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재무제표 확인 등 공통 질문을 가지고 5회 이상씩 방문하였다. 1~2회 인터뷰 과정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듣는 방식, 세 번째 인터뷰를 기점으로 통일된 질문 양식 (부록 2. 설문지 양식) 발송과 수신을 통해 그룹화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매주 2회씩 실시하고, 현장 인터뷰 동의서 작성(참고. 연구 참여 동의서)을 받고 녹취를 하고, 곧바로 녹취록 정리와 그룹화 작업을 하였다. 현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표사례 20곳과 같은 방식으로 이시돌협회 관계자와 금악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부록 2-1, 부록 2-3)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선정된 사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곧 사회적경제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근로장애인,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 사회적경제를 하게 된 동기, 수행과정에서 어려웠던 일, 갈등 관리와 해결 노력을 경청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외에도 사회적경제 정책 전문가, 제주연구원 노동·고용·사회적경제 책임연구원, 제주도청 사회경제팀, 경제

3) 모든 사례업체의 방문 순서가 세 번째가 되면 주변 경관을 살피는 작업 등으로 참여 관찰을 넓혔다. 대표적인 작업이 어음리, 무릉리, 위미리, 금악리에서 신올레와 구올레의 비교이다.

정책과, 제주도의회의원, 경제컨설팅 전문가, 국회 일치를 위한 모임, 제주도 교육청 특수교육 장학관을 인터뷰하였으며 참여 관찰 방법은 점진적 심층 인터뷰와 나레이티브로 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회사소식지도 참고하였다.

인터뷰와 참여 관찰 평가는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그룹모임(EMES)에서 수행한 학문적 작업을 바탕으로 하였다. EMES 성과는 ELEXIES⁴⁾ 프로젝트와 PERSE⁵⁾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한 성과에 기초한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먼저 르페브르와 니센이 중심이 된⁶⁾ EMES는 유럽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연구, 네트워크 간 비교, 사회 기업과 사회 기업가 정신,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을 다루는 네트워크다. 이를 받쳐주는 ELEXIES는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유럽의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을 가로막는 자본주의 기업에 맞서 사회운동을 실행한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를 가리킨다. 그리고 PERSE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11개국⁷⁾ 160개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며 포착한 연구의 틀을 말하며 이는 생산성, 지속가능성, 민주성을 가리킨다. EMES 네트워크와 성과는 사회적경제 범주를 확대하여 금융, 행정, 노동 분야,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경제, 비영리 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며, 해당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도출한다(Defourny and Nyssens, 2006).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20개 사례와 4장에서 이시돌협회에 대한 기술을 전개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요활동과 사회적경제 임팩트,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성과 분석은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외부환경에 대한 검토는 제주연구원의 2020년 향후 5년 사회적경제 계획 보고서, 정치적인 측면은 제주도의회의 조례, 정책 이슈들, 최근 보고 동향을 보았다. 경제적인 것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 초래, 사회적경제에 기반이 되는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

4) ELEXIES는 프랑스어로는 L'entreprise sociale : lutte contre l'exclusion par l'insertion économique et sociale (<http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elexies-project/> 참조).

5) PERSE는 프랑스어로는 Performance socio-économique des entreprises sociales d'insertion par le travail, (<http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perse/>).

6) 프랑스어 L'EMergence de l'Entreprise Sociale en Europe”의 약어인 EMES의 영어번역은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이고 우리 말로는 유럽의 사회적기업의 출현으로 번역된다(Borzaga and Defourny, 2004).

7)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K(Defourny and Nyssens, 2006)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측면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경영공시 재무제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2019년과 2020년).⁸⁾ 사회적 측면은 상호호혜적인 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경제 지도자 양성을 고려했다. 기술적인 것은 4차 산업의 산업혁명 클라우드 펀딩, 지식재산 분야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성, 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인터넷 방송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인 사회적경제 입법, 협동조합 기본법의 공포, 마을기업 육성지원과 재정에 관한 추진과 발의, 지방자치 도의원들의 조례설정과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의 틀

연구대상은 제주도 470개 사회적경제 조직(2019년 12월 31일 기준) 가운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인정하는 곳 중 1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제주에서 사회적경제 성격을 띠고 운영되어 온 기타 8개 회사를 선별하였다. 여기에는 기타 8개 중에는 서귀포 노지문화 클러스터 1개(4장 3절 참조)가 포함되었다. 이상의 현대 사례 20개와 제주의 오래된 사회적경제 이시돌협회(* 표시)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들 20개의 해당 회사가 보여주는 공통점을 함께 종합해서 제주의 사회적경제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속되어온 비영리법인 이시돌협회를 살펴보고 한다. 이를 위해 전통의 이시돌협회와 이시돌목장의 경험에 대한 문헌 연구 외에 여덟 부류의 사람들(마을주민, 이시돌목장 노동자, 개척농가 주민, 이시돌의원 근무경험자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운영해 온 지 오래된 기업, 협의체, 생활소비자협동조합, 농민시장으로 정했다.

공동체경제 연구는 정해진 대상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끊임없는 동향이다. 폴 리콥르(Paul Ricoeur)는 기관이나 사람의 정체성은 변화와 연속선 상에 있으므로 그 정체성을 논하려면 나레이티브(narrative)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Wood, 1991). 따라서 자녀의 출산, 제자의 양성, 사회적경제 후계자 육성 등의

8) 부록 4. 참조. 인증 사회적경제 조직 12곳 공시 재무제표 분석과 사업개요 설명.

재생산(re-generare)은 문화담론(discorso della cultura)으로 설명한다(Sonnet, 2010). 덕분에 연구자는 공동체경제 동향의 공통요인과 새로운 점을 끊임없이 포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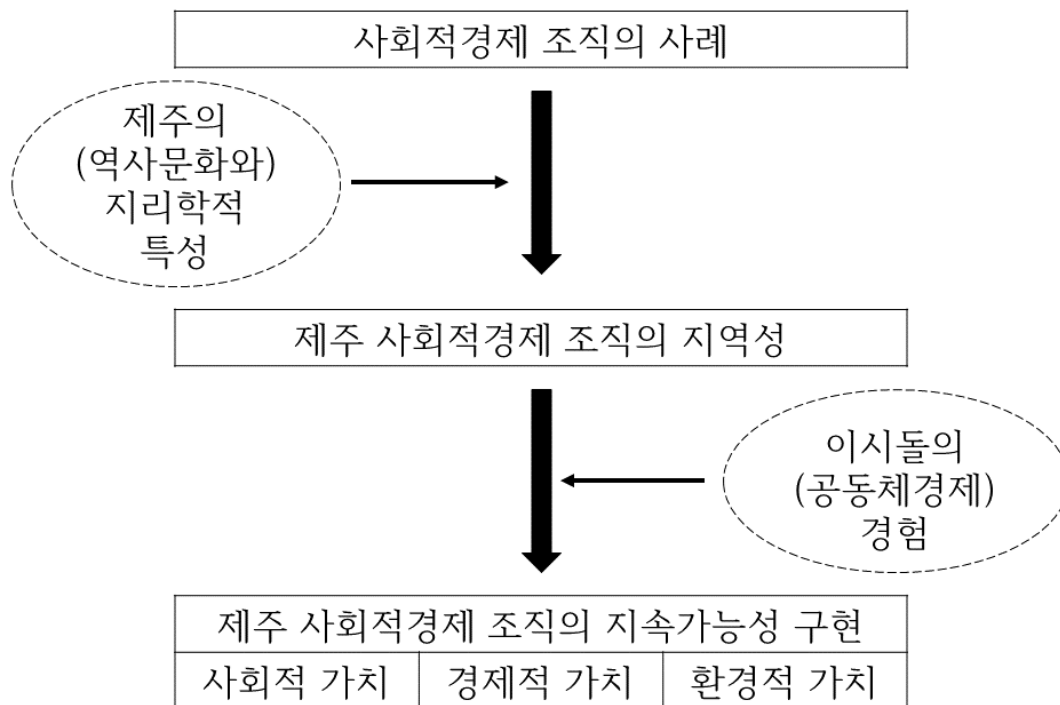
<표 I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별 분류

유형별 분류	이름	인증연도
사회적기업	일배움터	2005년
	제주희망	2013년
	섬이다	2014년
	무니농장	2018년
	평화여행자	2018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2015년
	인화로	2017년
	컬쳐마루	2019년
마을기업	무릉외갓집	2009년
자활기업	수놓음자활	2000년
	일하는사람들자활	2006년
	이어도자활	2008년
기타	우리농장	1987년
	신노형점	2004년
	한살림노형	2008년
	건강한약국	2013년
	한라산아래첫마을	2015년
	쿵스토어동홍점	2017년
	환이정	2020년
	민들레소반	2020년
	이시돌협회*	1962년

연구의 틀은 제주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화해서 공동체의 관점으로 새롭게 고찰하며 사회적경제를 새롭게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사회적경제를 지역공동체와 연계시켜 재정의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중요한 특징인 공동체 측면은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부족한 한계를 보이기에 이 특징을 제주지역을 사례로 부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

윤, 비용 절감,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 동등한 기회⁹⁾, 공동체 그리고 환경적으로 향토지역자원을 강조하는 보편적 논의와 연계시켜 보고자 한다(고동현 외, 2018). 기존의 논의에 이 제안이 합쳐질 때 연구자가 발견한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현실적인 사회적경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공 요인과 지속가능성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으로 어떻게 구체화 되어 왔는지 분석하고자 제주의 특성과 이시돌의 경험을 보고자 한다. 제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구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1-4] 본 연구의 틀

9) 최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펜더믹의 여파로 생산단가를 낮추거나, 직원 채용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가 원래의 이상적인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합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고용과 생산단가를 줄이는 방안도 차선으로 선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수놓음으로 협동하여 살아온 가치에 어두운 면이 깊게 드리워지는 현실을 보게 된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시각 차이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 힘들게 하면서 제주형 협동의 가치인 수놓음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파괴적인 위력을 보이며 제주의 공간적 실천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대안 경제 논의

1. 시민경제와 모두를 위한 경제

이탈리아 시민경제 학자 스테파노 자마니는 축복받은 경제(Bruni and Smerilli, 2008) 서문에서 시민경제의 역사를 수도원 경제에서 찾는다.¹⁰⁾ 경제를 축복에 비유한 이 책의 부제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토(Benedict of Nursia, 480~547)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Saint Francis of Assisi, 1181~1226)인데, 수도원 경제의 시초인 베네딕토회는 기도하며 일하라(ora et labora) 라는 자신들의 모토대로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 공동체였다. 이들의 노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기 보다 공동체가 살아가는 생활방식의 한 부분이었다. 베네딕토 수도회 이후 기원후 600년~900년 사이 수도원 경제와 함께 유럽의 복지정책도 함께 성장을 이루었으며 기원후 1000년대가 지나면서는 공공정책인 대학교, 보건, 복지 분야로 수도원 경제의 이상이 퍼져나갔다. 수도원 경제는 수도원 재산의 소유권보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노동한 것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공동 재산으로 여겼고 그에 대한 권한을 수도회의 원장에게 위임하였다. 수도회는 세상과 떨어져 살기보다 그 지역에 머물면서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수도원장의 임명은 투표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수도자들은 참여권, 노동권,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권을 행사하면서 노동의 결과물을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며 살았다.

이후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되 곡물과 식료품을 빌려주는 몬티 디 피에타(Monti di Pietà) 은행 제도를 만들어 수확량에 따라 환불받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¹¹⁾ 그중에서 이

10) 베네딕토회와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고리대금을 하는 악을 근절함과 동시에 경제의 실재를 깨우치기 시작하였다(Bruni, 2008).

11) 수도원이 이어 온 수도원 경제 역사를 이야기의 핵심에는 몬테 디 피에타가 있다. 자마니와 부루니는 자선대출의 의미(Zamagni and Bruni)로, 부루니와 스메릴리(Smerilli)는 자선대출기관으로 사용하였다(Bruni and Smerilli, 2008). 수도자들이 앞장서서 가난한 이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게 도왔다. 현대에 와서는 로버트 퍼트남이 Monti di Pietà와 같은 선상에서 비공식 저축기구로 계(契, rotating credit association)를 설명하고 있다(Putnam, 2006 및 각주 58참조).

탈리아 빠루자(Perugia)의 몬티 디 피에타는 1462년에 문을 연 뒤 1972년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는 악덕업자들의 죄악을 근절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수확한 만큼만 대출분의 환불을 받았다(Freyer, 2018).

수도원 경제의 흐름 속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경제가 탄생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들은 지암비스타 비코(1668~1744, Giambattista Vico)와 그의 제자이며 가톨릭 신부인 안토니오 제노베시(1713~Antonio Genovesi)와 지안친토 드라고네티(1738~1818, Giacinto Dragonetti)이다. 현대 시민경제학자 스테파노 자마니는 공리주의가 덧셈이라면 시민주의는 곱셈에 비길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한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학자 루이지노 부루니는 시민경제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대안 혹은 사회적경제라고 부른다(Bruni and Zamagni, 2016). 하지만 경제의 다양성을 말하는 핵심은 하나의 경제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안토니오 제노베시는 공적 신뢰를 핵심으로 시장의 경제적 관계를 상호 도와주는 인간관계로 보았다. 제노베시는 시장의 문명화 기능, 봉건제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에 동의한다. 다만, 시장은 상호성에 바탕을 둔 관계성(communitas)과 면역성(immunitas)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와 거리를 둔 시민경제를 강조하였다(Bruni, 2020a).

중세 인본주의와 르네상스는 중세 봉건주의 시대에서 시민 사회를 분리했다. 제노베시의 스승 지암비스타 비코는¹²⁾ 당대에 이르기까지 정석이 되어 온 데카르트-뉴턴((Rene Descartes, 1596~1650 and Isaac Newton, 1643~1727)의 기계론을 비판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만이 진정한 앎임을 제시했다. 이는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어 역사·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수행 담론만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기술했다(Vico, 2020). 비코와 제노베시 그리고 드라고네티를 통해 공공행복과 시민 사회의 실천적 담론이 비자본주의의 한 지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시민이 주체가 된 경제활동은 계약보다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민경제 창

12) 지암비스타 비코는 토마스 홉스의 인류학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고전에서 현대로의 전통을 변형한 사람이다. 데카르트의 인과론은 자연 세계만을 주목한 데 반대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의 세계, 새로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야만적인 가부장 제도, 귀족 제도, 군주 제도를 비판하면서, 제노베시의 스승으로서 시장을 호혜성, 신의성, 형제애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였다(Vico, 2020).

시자들은 인류문명의 연속성 안에서 민속지표를 보았다.

17세기 시민경제와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주의는 스코틀랜드의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하였다. 그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의 영향을 받았다. 리바이던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개인의 합의와 양도로 권력은 군주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상주의와 신항로 개척 등에 기반한 절대왕정을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된다(Bruni, 2012; Bruni, 2020b).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최근까지도 애덤 스미스에서 시작된 시장 경제는 주류 경제로 이어져 왔으며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확장하면서 자본주의 영역은 전 지구로 퍼져나갔다. 반면에 시민경제는 자유주의와 대비를 이루는 협동조합 운동과 모두를 위한 경제,¹³⁾ 공동체경제와 사회적경제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 자유주의가 국가의 통제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노동, 건축, 금융, 그리고 자연의 영역을 잠식해 왔다¹⁴⁾고 볼 때 시민경제는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어 자본 이외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데 집중하며 자본의 영역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제노베시는 시민경제와 신뢰를 함께 보았는데 여기에는 공적 신뢰, 경제적 신의, 정치적 신의 3가지 차원이 담겨있다 (Zamagni, 2014). 반면에 애덤 스미스는 시장 거래와 가족이나 친구 관계 혹은 시민 봉사의 신뢰를 구분하였고, 인간본능에서 나오는 이타주의에 매우 회의적이었다(Zamagni, 2013; 유동운 2002; Robert, 2020; Dicken, 2014).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출현하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화를 추구하는 두 가지 차원의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반도로 확산하였다. 1900년대 연대주의와 다양한 비자본주의 경제가 금융, 돌봄, 노동조합의 형태로 이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참상을 겪던 이탈리아 토렌토에서 1943년 여름 끼아라 루빅(Chiara Lubic, 1920~2008)과 그녀의 친구들이 증오와 분열에 맞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실천하고자 조그마한 공

13) 하버드대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는 포콜라레의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에 대한 해석을 점진적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공간영역으로 펼쳐나갔다(이종수, 2015).

14) 국가와 시장은 주민들이 체계에 동의하도록 순응하게 만들고, 시장은 사회화로 포장된 사회적 경제를 방패삼아 더 잠식해 나간다(서영표, 2017).

동체 포콜라레를¹⁵⁾ 설립하였다. 1949년까지 포콜라레 운동에 동참한 이들의 수는 3천 명을 넘겼다. 루빅의 메시지는 공유경제를 탄생시켰고, 루빅과 포콜라레 회원들은 나눔과 공유운동을 이어가면서도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구성원이 자기소유를 내다 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곧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이다(이종수, 2015). 루빅은 1996년 경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일치하는 정치모임(Movimento Politico per l'Unità, MPPU)을 설립하였다.¹⁶⁾ 2000년이 되면서 포콜라레 회원 수는 400만 명을 넘겼고, 그중 1/4은 남미에, 1/4은 유럽에 거주하며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한국에도 회원 수가 많다(Gold, 2012).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탈리아 토렌토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포콜라레 운동은 나눔과 돌봄,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현실의 삶에 구현하며 이를 기업의 사회적 가치로 실천하는 사업체가 세계적으로 761개다.

<표 II-1> 모두를 위한 경제 지리적 분포

이탈리아	246
서유럽 (이탈리아 제외)	172
브라질	82
동유럽	60
중앙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제외)	49
아르헨티나	45
북미	45
아시아	36
오스트레일리아	15
아프리카	9
중동	2
종합	761

출처: Gold, 2012

시민경제와 포콜라레를 통한 공유경제가 확대되는 동안 자본주의의 지류인 포디

15) 포콜라레(Focolare)란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를 의미한다. 그것은 난로 이상의 가정, 온기, 사랑을 뜻한다.

16) <http://www.mppu.org/en/about-us/> 2020년 12월 30일 검색.

즘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회적·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전쟁 후의 장기호황이 막을 내렸다. 포디즘의 위기 이후 생겨난 포스트포디즘 이론은 좌파의 사회분석 조절이론의 등장과 관련하여 산업 패러다임 혹은 산업모델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보다는 유연전문화나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 주(州) 같은 산업지구¹⁷⁾들의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박삼옥, 1999;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桂子, 2017). 포콜라레 공동체는 이후로 공유경제 대신 모두를 위한 경제¹⁸⁾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소규모의 작은 지역에 대한 고려, 기업 단지에 대한 소망, 사업체들의 네트워크 촉진을 이상으로 소도시를 만들어나갔다(Gold, 2012). 루빅은 새로운 사회 비전을 모색하려면 깃슨-그레엄이 했듯이 반드시 공동체적 생활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Olson, 1995). 루빅은 공동체를 통한 공유경제의 의미가 P2P, 플랫폼 경제와 동일시되기 시작하자 이 명칭을 모두를 위한 경제(Communitas Economy, 줄여서 EoC)로 바꾸었다. 모두를 위한 경제는 여성스러움과 돌봄의 윤리를 연결하여 여성화된 경제 지리의 본질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모두를 위한 경제는 전쟁기간 동안 돌봄의 윤리를 그들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채택한 여성들이 최초로 주도한 운동에서 탄생하였고 지금도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경제에서 경제의 여성화는 시장의 공간적 구조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애, 형제애, 다운시프팅(downshifting)¹⁹⁾을 포함한다. 모두를 위한 경제는 보편성과 고유성 간의 관계와 관련된 논쟁을 일으키며 인문 지리학에서 상대주의 경향에 도전한다(Gold, 2012). 포콜라레 회원이자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부루니는 행정학이나 경제학이 아니라 지리학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가 논의된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이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대가능한 점을 강조하였다(Bruni, 2010).

부루니는 계약의 집단행동을 긍정하고, 면책 및 무관심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조로 의원들 상호간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부루니가 강조하는 정서적인 상호성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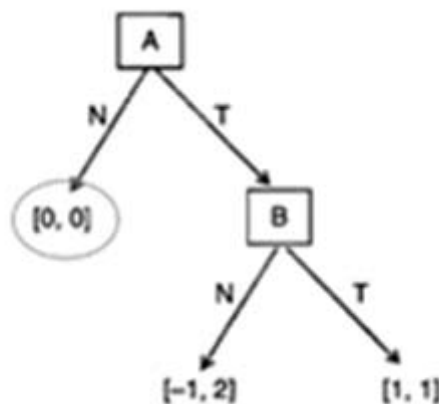
17)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chall, 1842~1924)이 1890년 처음 사용한 산업지구란 동일 산업의 전문화된 작은 규모 기업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협업하는 것을 뜻한다(박삼옥, 1999; 권오혁, 2000; 정태인, 2013).

18) 모두를 위한 경제는 원래 주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와 같은 개념이었으나, 최근에 포콜라레 공동체 안에서 공유경제라는 말 대신 모두를 위한 경제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 책이 번역될 당시에는 공유경제로 사용되었다. 본 논고는 이후로 모두를 위한 경제로 통일함.

19) 노동시간 축소와 간소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의 질을 말함.

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그 활동의 중심에 집단행동으로서 이를 경제생활에 접목시키면 형제애가 발휘된다. 상호호혜적인 형제애에 기초한 집합체²⁰⁾로서의 동기는 대가성에 기초해 거래하는 자본주의 시장과 영리기업을 대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Bruni, 2002). 2010년대 이후 스테파노 자마니와 루이지노 부루니, 삐에로 코다(Piero Coda), 프란치스코 보투리(Francesco Botturi)를 비롯한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이 모두를 위한 경제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였고, 2017년과 2020년에 이르러서는 교종 프란치스코가 미래를 위한 경제 모델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선언하였다(Tetreau, 2016). 따라서 연구자는 협동조합과 공동체경제, 한국의 인증 사회적경제 등 여러 경제 동향의 뿌리인 시민경제를 염두에 두면서 비자본주의의 영역으로서 다양한 경제와 공동체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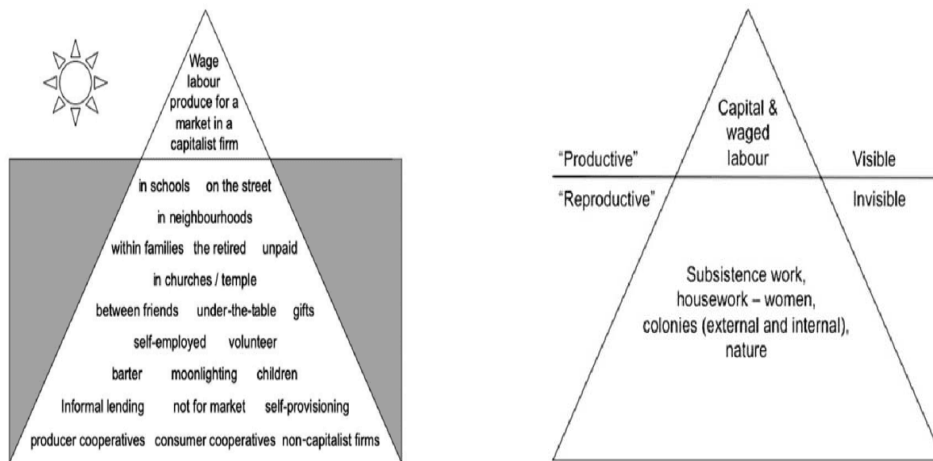
20) 개인의 선호도 이론이라 함은 형제애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e)로 한 시장은 상호성이 실제로 일어난다 주장이다. 시민경제라고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시민경제 전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왔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행복의 총합이 아니라 그것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다. 제노베시와 드레고네티로부터 현대의 부루니와 자마니까지 이어진 시민경제는 어떠한 사회문제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상호성을 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수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성 내지 호혜성을 지켜나간 예로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있다. 농민과 노동자가 직거래를 통해 작은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민경제는 협동조합을 뛰어넘는 방식 곧 무상성에 기초한 상호관계를 기대한다.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누군가를 완전히 돌볼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스템, 다자간의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동이 시민경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A와 B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로 인식되도록 내재적 동기가 실행되도록 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부루니는 피아를 키우는 노력보다 공동의 집합적 활동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게 복지사업이다. A와B를 구분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는 내재적 동기를 갖고 복지사업을 하면 A와B가 서로 다른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공통의 결과를 낸다. 부루니가 주장한 이 이론은 제노베시의 시민경제의 결론으로서 공동체를 팀으로 보는 선호성 이론이다(Bruni, 2008; Bruni, 2012).



[그림 II-1] 개인 선호도 이론

2. 다양한 경제와 공동체경제

1절에서 시민경제의 맥을 잇는 루이지노 부루니와 이탈리아 경제학자들, 포콜라레 창립자 끼아라 루빅의 모두를 위한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부루니가 저술한 콤무니타스 이코노미(2016)의 콤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는 공동의 땅, 공통의 기반 위에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생활공동체이다. 다시 말해 콤무니타스 이코노미는 공동체로 생활하는 종교적 색채를 이야기하지만, 그 색채가 지역, 기관, 조합 등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 2절에서는 공동체경제를 다루는데 경제 지리학자 킷슨-그레엄²¹⁾이 대표 주자이다. 이들은 대안 경제 이론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르친 바를 실천의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세계 곳곳을 누볐다. 이들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자본의 영역과 비자본 영역으로 나눠서 서로 잠식하고 탈환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킷슨-그레엄은 관계와 돌봄이라는 공동체성, 사회적 관계성에 기반한 공동체경제가 자본 외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실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 여태껏 자본주의 영역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가 없을 만큼 주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게 실패로 끝났다고 킷슨-그레엄은 단언한다(Gibson-Graham, 2013).



[그림 II-2] 경제 빙산 모델 - 킷슨-그레엄(L) & 마리아 미즈 모델(R)

21) 캐서린 킷슨(Katherine Gibson, 1951~)과 줄리 그레엄(Julie Graham, 1945~2010)은 각자 호주와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공동체경제(Community Economies)의 이론과 실천(action and research) 작업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왔으며 이들은 필명 대신 킷슨-그레엄(JK Gibson-Graham)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깁슨-그레엄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경제 영역이 가시화되는 사례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빙산의 가시권인 자본주의 영역으로 임금노동, 자본주의 기업,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품의 문제 같은 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수면 아래의 비 자본 영역은 교육 기관, 노점상, 이웃/공동체, 가족 경제, 무급노동, 종교기관, 친구사이, 선물/기부, 자영업, 자원봉사, 물물교환, 야간부업, 어린이노동, 자급경제, 생산조합, 소비조합, 비자본주의 기업들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Gibson-Graham et al, 2014). 이들은 기술경제네트워크와 사회기술적 접근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통해 물질적 재화, 기술 분야, 지역발전을 필수로 사회기술적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 교환, 대응한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경제활동의 공간, 상호의존과 네트워크, 이를 통해 자본주의 담론에 대응해 나간다(Roelvink and JK Gibson-Graham, 2015).²²⁾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와 베로니카 벤홀트-툼젠 역시 상호부조와 공동체를 경제의 주체로 주창하였다. 마리아와 베로니카는 깁슨-그레엄 빙산모델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지불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부분노동과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에서 자급의 삶을 살도록 초대한다(Mies and Bennholdt-Thomsen, 2013; Wolf, 1996). 그림 II-2 (R)처럼 가시경제, GNP(국민총생산), 노동계약으로 보이는 자본, 임금노동은 빙산의 가시권이다. 반면에 비가시권은 비가시경제, GNP 밖에 존재, 비노동계약, 가내 노동자/비공식 영역, 미성년 노동, 자급 농부의 일, 가사노동-여성, 외부 및 내부 식민지, 개발도상국(Global South), 자연이다(Mies and Bennholdt-Thomsen, 2013).

깁슨-그레엄과 마리아 미즈의 빙산모델은 자본주의로만 표시되는 가시권 경제영역과 비가시권 영역의 장소적 함의를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효용 가치를 절대화하

22) 깁슨-그레엄의 공동체경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이현재, 2009, “여성의 가사노동과 성계급과정의 정치경제적 함의 -깁슨-그레엄의 비-자본주의적 계급과정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3), 377-402; 이현재, 2011, 지구화 시대 도시 정의를 위한 시론, 시대와 철학 22(2), 349-377; 최영진, 2010, 희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차이” 드러내기: 자본주의 공간성에 대한 Harvey와 Gibson-Graham 비교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1), 111-125; Brouder, P., 2019, The end of tourism? A Gibson-Graham inspired reflection on the tourism economy, Tourism Geographies 20(5), 916-918; J.K. Gibson-Graham, 2003, Enabling Ethical Economies: Cooperativism and Class, Critical Sociology 29(2), 124-161; J.K. Gibson-Graham, 2006, Postcapitalist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oelvink, G. and, Gibson-Graham, J.K. ed, 2015, Making Other Worlds Possibl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ibson-Graham, J.K., 엄은희·이현재 역, 2013, 그 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 알트; Gibson-Graham, J.K., 황성원 역, 2014,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동녘.

며 성장 지향적이어서 비자본주의 영역을 끊임없이 탈환하려고 시도하고, 비자본주의 영역은 자신들의 영역이 탈환 당하지 않게 맞서고 있다. 이를 위한 행동이 자율적인 시민 참여이며, 공동체의 결속이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Anderson, 2013). 이런 협동의 문화는 공동체경제의 동력이다.²³⁾ 자본주의 영역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시민의 영역은 끈질기게 저항한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마저 자본주의 시스템의 강력함을 포착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을 위한 자본가들의 이기심과 노동착취로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노동자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케인즈는 뉴딜정책을 통한 국가중심의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서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생산의 사회주의를 예측한 마르크스나 인간의 풍요를 앞당길 국가중심이론을 펼친 케인즈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다(Polanyi, 2009). 그만큼 인류가 자본 영역에 잠식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란 쉬운 게 결코 아니다. 빙산 아래 비가시권에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 주체들이 헤쳐나갈 어려움에 비해 기대되는 성과가 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연구자가 계속해서 제주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이다. 초국적 자본과 이윤의 극대화로 대변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더불어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 이후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은 지속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경제이론들이 진행되고 있다(남승균, 2016).

깁슨-그레엄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자본중심적 경제담론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타자들을 불러낸다. 시장거래가 아닌 윤리적 공간 거래나 협동조합 방식의 교환, 개인적 산물이나 국가적 배분과 같은 비-시장적 유통은 비자본주의적 경제이다.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 사업 그리고 자영업 역시 생산된 잉여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원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자본주의적 기업이다(2013). 깁

23) 이현재 교수 유튜브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8remiRBh_H0 캐서린 깁슨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공동체경제의 성격을 띤 제주 해녀 문화를 포착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김련호·권상철, 2016, 제주 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를 참고.

슨-그레엄이 말하는 윤리적 행동을 통한 경제 탈환은 다함께 평등하고 훌륭하게 생존함, 사회와 환경의 건강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잉여를 분배함,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위한 방식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맺음, 지속 가능하게 소비함, 우리의 자연적, 문화적 공유재를 돌봄(유지, 보충, 육성함),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를 미래세대에 투자함 등이다. 우리는 이런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공동체경제라고 부른다(Gibson-Graham, 2014). 타자의 자산 가치를 저하시키고 타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신식민지화 결과는 자본주의 아래서 지리적 불균등발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치저하를 만들어 버린다(Harvey, 2005; Smith, 1996). 한국공간 환경학회도 신식민지화와 더불어 현대도시 간 지역불균등을 언급하며 이를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판하고 있다(한국 공간 환경학회, 2000). 이는 생태공동체²⁴⁾를 지향하는 여러 도시와 주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사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딜레마를 일으키게 한다(홍성태, 2019). 이러한 이유로 깁슨-그레엄은 담론 구성의 자본주의 언어사용보다 더 큰 논리로 다양한 경제 담론이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경제는 담론이다. 그러기에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담론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버마스 또한, 생활체계(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 영역이 지배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연대를 중시하는 마을 공동체에 복원을 공론장이라는 말로 주장한다.²⁵⁾ 팀잭슨은 성장의 투 트랙 곧, 성장하면 지속가능하지 않고, 탈성장하면 불안하여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Jackson, 2016; 전경수, 1995). 여기서 빠져나오는 디커플링(decoupling)의 신화가 필요하다(Jackson, 2009).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사회적 삶의 위기, 즉 재생산의 위기로 경험되고 있다(김성윤, 2017). 이러한 사실은 축적과 지배를 위시로 하는 체계의 위기와 더불어 궁핍화와 통합의 균열로 인한 일상의 위기(김성

24)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태학적 입장에서 경쟁과 지배와 침입이 일어나는 곳, 다음으로 근린지구 공동체는 근접성과 소속감, 공통된 정체성과 상호부조, 역사성을 가진 곳, 마지막으로 상실된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이 없는 의식의 산물, 상상물, 믿음에 의한 결집으로 억압 대 안전의 장소로 나뉘거나 혹은 공동체성 없이 물리적 거리만 남는 것을 말한다(Gill, 2014).

25) 경제학에 의해 분석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힘의 관계, 경제학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azqj6PSSNQ> 검색일: 2021.5. 참고.

윤, 2017), 지리적 차이(최영진, 2010)로 가게 만든다. 이를 디커플링하는 다양한 경제적 주체의 가장 실천적 방법이 공동체경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3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표 II-2> 공동체경제 프로젝트의 3요소

언어의 정치	경제와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참신하고 풍부한 그 지방민의 언어들 만들어내기
주체의 정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집단행동의 정치	대안적인 경제 조직과 공간들이 집단 속에 싹틀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

출처: 최영진(2010) 일부 수정

자본주의 외 다양한 경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경제 동향에 맞는 참신한 언어,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존재를 육성, 대안 경제가 공간에 싹트도록 공동협력하는 과정이 자본주의와 대항한다. 공동체경제는 지리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윤리적 정치적 결정에 따라 생성되는 공간이다. 탈산업화가 이루어지는 현대에 문화적 결속의 약화와 제정 기반의 위기, 환경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생전략으로 창조도시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권상철, 2013; 고태경, 1989; Lash and Urry, 1996; Coe and Kelly, 2019; Hayter 외, 2020).²⁶⁾ 공동체경제를 성장시키는 담론과 생산적인 공간이 지역 단위에서 생동해야 한다(Lefebvre, 1994). 깃슨-그레엄에게 있어 공동체는 공동체경제의 기반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다(2013). 공동체는 지금까지 사적으로 전유된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배분되지 않은 독점 자본에 대항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전유해 온 부는 두 가지 중요한 형태의 잉여로

26) 권상철, 2013, 창조도시의 지역적 반응: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7-29; 홍성태, 2021, 공동자원/공동체/지역혁신; Scott, Lash, John Urry, 1996,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1996, SAGE Publications 탈산업화, 사회적불평등, 사회적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며 자본주의의 쇠퇴를 분석; Andrew, Sayer and Richard, Walker,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r, Wiley-Blackwell 노동 생활의 변화와 분업; Lloyd G. Reynolds, Stanley H. Masters, Collette H. Moser, 1991,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2차 세계 대전 이전과 이후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James A Caporaso, 1987, Chang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Lynne Rienner Publishers 노동의 국제분업으로 자본주의에 저항.

구성된다.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 만들어진 잉여, 다른 하나는 지구의 보물 창고에서 약탈한 것이다. 공동체경제는 생존과 잉여의 관계에 맞는 적절한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의 존엄성과 잉여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민중의 장부, 주민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결정의 도화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회적 회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경제는 총체적이고 단일하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이다(Gibson-Graham, 2014, 아래 도표 참조).

<표 II-3> 경제 영역 표

자본주의 기업	대안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기업	사회적기업
	모두를 위한 기업	협동조합
	공동체경제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따라서 공동체경제는 시민민주주의 뿌리내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리학의 뒝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간에 공동체경제 문화가 결합 될 때 장소가 재건되며(Anderson, 2013 참조), 추상적 공간이 경험을 통해 장소가 된다(Tuan, 2020). 애정과 감정이 담긴 장소는 텅 빈 추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며(Kaltemborn, 1997), 문화는 공간을 조각(caving)한다(Low, 1992). 장소는 우리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규정시키는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장소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지리적인 차이를 만든다(Anderson, 2013). 따라서 공동체경제는 장소와 지리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과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공유하며, 여기에 경제적 영향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체경제로 실행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공유지를, 공유지는 공동체를 근거로 하는 지리적 연관성을 가진다(Mies and Bennholdt-Thomsen, 2013; Gibson-Graham, 2006).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의 윤리적·정치적 결정은 공동체경제의 실체(Gibson-Graham, 2013), 상호의존적 공존이 존재하는 실체이다(Nancy, 1991). 장소는 전지구적 스케일로 자본/비자본주의의 확산 영역에 적용되어 왔다(이혜은 외, 2005).

<표 II-4> 장소로서 공동체 개념의 정의

학자	개념
투안	장소감·장소에
존 앤더슨	텅 빈 추상 공간에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삶
르페브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실체
칼텐본과 로우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을 조각하는 문화적 행위
킵슨-그레엄	윤리적·정치적 결정에 따라 생성되는 공간
낭시	상호의존적 공존이 존재하는 실체
도린 메시	장소 기반 범지구성

정리하면, 공동체경제는 3가지의 비자본주의 성격으로 자본주의에 대항한다.

첫째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관계재이다. 공간을 새로 형성하고, 마을로 재건하며,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세상 어디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Callon and Çalışkan, 2005)은 창조적 주체들의 공동체 육성(Butler, 2006),²⁷⁾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 자본형성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공간의 위상에 따라 대상의 특수성이 주목되고 거기서 지리학이 수행된다(임재해, 2000).²⁸⁾ 따라서 마을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경제적으로는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는 자족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자립적이며, 생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된다(김기홍, 2014; Giddens, 1992). 이곳에서 집단행동이 수행(performativity) 되며, 지역주민의 행동으로 발전하면 참여(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를 가리킨다(Gibson-Graham, 2015).²⁹⁾ 결국, 공동체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치를 재정립한 주민 주체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사회적 현장을 실험한다.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처럼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가 실행된다(최영진, 2010).³⁰⁾ 공동체경제는 그 구성원 간의 심오한 참여와 협력을 거칠 때 성공할 소지가 있으며, 지리적 차원의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발전된다. 관계재(relational goods)라는 범주를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들 비

27)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영향을 받은 주디스 버틀러는 윤리와 권력의 영향을 받은 구조 내의 주체들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나가며 환경을 수행한다고 봄(Butler, 2006).

28) 지역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민속적이며 민족적인 자연과의 친화적 특성은 해당 지역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로 드러난다.

29) 집단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본능이 기억하는 것은 집단행동으로 구현된다.

30) 집단으로서 보편성을 지향하며 희망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수행된다.

코, 제노베시, 드라고네띠와 현대 학자들인 피에르파올로 도나띠(Pierpaolo Donati),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베네데토 구이(Benedetto Gui), 케럴 올라너(Carole Uhalaner)는 공동체 결속에 꼭 필요한 인간관계(interrelational relationships)는 관계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장소상실 혹은 비장소로 전락한다고 한다(Bruni, 2008).

두 번째로 마을자원인 공유재이다³¹⁾. 공유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환경 악화에 대한 외부의 영향과 간섭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후기 발전주의 논의가 시작되는 배경이 된다(Gibson-Graham, 2006; 권상철, 2016; 최현·장훈교 외, 2019). 글로벌 지역주의 차원에서 사만타와 쿤탈라는 지역개발에 따른 자원활용 방식을 연구했으며(Kuntala and Samanta, 2006), 할러와 그녀의 동료들은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토착주민이 대면하는 자원과 서식지의 파괴에 직면하는 대응(Haller et al, 2007), 클링거는 민속지학적인 문화와 특정 지역에서의 마을자원 특히, 히토류 금속류 보존(Klinger, 2018), 오스트롬은 개럿 하딘(Garrett Hardin)에 반대하여 사유공동재산의 집단행동이론(Ostrom, 2010)을 주장하였다. 로컬 지역주의, 특히 제주의 자원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과 영리기업 사이의 대립관계와 공존자원 연구(敬禧, 2019),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시민 참여와 장소 활용(俊雄, 2010), 마을자원 관리와 관계재(弘文, 2019), 마을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주민들의 공동자원(Commons) 관리에 대한 제주 지역 사례 연구로 가시리(최현, 김선희, 2016), 금악리(김자경, 2017), 제주 해녀(김권호·권상철, 2016), 행월리(김자경, 2019b), 선흘리(정영신, 2017b), 하례1리(김자경·최현, 2020),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목장(권상철, 2015) 등이 있다. 부존자원의 공동관리는 학제 간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어 왔다(Ostrom, 2010; 권상철, 2016, 35 재인용).

31) 한국민법전은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로 공유와 합유와 함께 총유를 규정한다. 공유는 2인 이상이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관계를 말한다(민법 262조 1항). 이를테면 지분을 한도로 한 단독소유자들이 잠정적으로 결합된 소유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질상 단독소유자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고 또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263조), (박태현·이병천, 2017).

<표 II -5> 공동체경제 주요개념

학자	개념
칼롱과 칼리스칸	사회적 프로젝트와 사회적 혁신이 실험되는 현장
주디스 버틀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행위 주체집단
깁슨-그레엄	집단 참여행동의 수행 및 관계재
데이비드 하버	보편성에 기반한 연대
마사 누스바움 외	관계재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이다(진희선, 2019). 깁슨-그레엄은 집단참여 행동이 수행되는 과정을 윤리적 좌표와 담론으로 정의한다. 공공성에 대한 지표가 공동체경제의 성공 요인이자 결과물이다(Gibson-Graham, 2013). 공공성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 규범적 정당성, 정치적 유효성의 두 트랙을 가져야 하는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적 공공성을 통해 주민 참여의사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김선필·정영신, 2016). 하용삼과 문채원은 공공성의 설명에서 로컬을 강조한다. 즉, ‘로컬’을 시공간-인간-사회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이 혼재해 있는 곳으로, 일상의 교류와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이자 생활상의 이익의 문제들이 구체적·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으로 본다(하용삼·문채원, 2011). 따라서 공동체경제는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실행되며 미래로 나아간다. 에그뉴와 던컨(Agnew and Duncan)은 장소의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위치, 현장(로케일), 장소감으로 설명하는데, 장소에 대한 소속감은 다양한 흔적-사슬로 규정된다. 이는 흔적을 남겨놓는 과정이 장소를 문화적으로 질서화하고, 문화의 질서가 존재할 때 지리적으로 경계짓기가 형성된다(Anderson, 2013).

<표 II -6> 공공성 주요개념

학자	개념
깁슨-그레엄	공공성의 지표로서 집단참여
하버마스	주민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적 결정
하용삼과 문채원	로컬 문제들의 구체적인 영역
에그뉴와 던컨	문화적 질서가 존재하는 지리적 경계

이렇게 공동체, 공유재, 공공성이 종합된 공동체경제는 필요, 잉여, 소비, 그리고

공유제³²⁾로서 실행되어 나간다. 모든 것을 총체성 안으로 포획시키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 가릴 것 없이 파고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는 주류 자본주의가 성장 위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시장 경제 안에서 타자와 자원이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온 셈이다. 탈중심화와 비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³³⁾에 의하면, 자본주의에 의존하다가는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의 삶도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경제적 논의를 넘어서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결국, 자본주의 영역을 탈환하고 비자본주의 경제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동양의 공유재 관리를 지켜 온 공동체정신을 유지하고, 서양의 뼈아픈 실수를 재정립하는 데 일조한다. 이를 위해 실행과 평가가 필요하다(Gibson-Graham, 2014).

<표 II-7> 비자본주의 경제의 실행과 평가

필요	공동체경제의 필요가 무엇인지?
잉여	잉여에 대한 분배는 목적대로 하였는지?
소비	착한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공유재	우리에게 공유재는 무엇인지?

출처: 김순(2014) 일부 수정

3. 사회적경제와 조직

1)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 논의는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할 만큼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해진, 2015; 김의영·임기홍, 2015; 김정원, 2017; 주성수, 2019; 장종익, 2019).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별 정의를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한다. 유럽연합은 참여적 경영

32) Gold, 2012, 6장 참고.

33) 생산을 협동적으로 조직하고, 권력을 급진적으로 탈중심화함으로써 자주 관리되는 아나키 공동체에서는 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은밀하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과학적 탐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다(구승희 외, 1996).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한다. 캐나다 퀘벡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하에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다. 한국은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을 말한다.

<표 II -8> 국가별 사회적경제의 정의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
캐나다 퀘벡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하에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한국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유럽연합(EU)은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공익적 결합체로 보았다(김의영·임기홍, 2015).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연대를 깊게 하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보았다. 드푸루니와 드벨트레는 기업과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진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보았다(이홍택, 2018). 노대명은 시민 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다. 도표로 보면,

<표 II-9>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	개념 정의와 특징
EU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자본 투자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적 결합체로서 다음 7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1. 공공 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조직임. 2. 법적 근거 등을 가진 형식적 조직임. 3. 설립과 해산, 조직 구조나 활동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해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짐. 4.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됨. 5. 수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할 경우, 각 조직 구성원의 출자금이나 회비의 차이가 아니라 활동 참여나 이용고를 기준으로 함. 6.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임. 7. 일부 자산 단체를 제외하여, 주로 기층 수준의 조직 구성원예의 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됨.
ILO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의 특징: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연대를 깊게 하면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조직이며, 주로 협동 조합, 공제회, 결사체, 재단, 사회적기업으로 대표 됨.
Defourny & Develtere (1999)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 기업,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회가 추진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서 다음 4가지 윤리적 원칙을 가진다. 1. 회원이나 공동체에게 이윤보다 서비스를 우선, 2. 자율적인 운영, 3.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4. 수익의 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
노대명 외 (2010)	사회적경제의 특징: 사회적경제는 시민 사회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주성, 자본과 권력 자원에 기초한 시장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자원 분배의 주체로 등장하게 한다. 사회적경제의 3원리: 사회적 목적, 사회적 자본, 사회적 소유.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조직적 측면이나 그 영향력에서 로컬(local)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 지리학적 사고를 통한 연구와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에서 지리학적 렌즈(geographical lens)와 공간적 사고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4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Muñoz, 2010).

첫째, 사회적행위자 분포는 클러스터링과 매핑을 통한 공간 이해와 거기서 진행된 공동체경제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우쳐준다.

둘째, 장소에 기반해 생성된 사회적경제 공간(spaces of social economy)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성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셋째, 지리학자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공간적 영향(socio-spatial impact)

을 새롭게 연구하며 공간성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넷째, 그렇게 도출된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장소에 대한 공공성, 환경적 자원 인식, 공동체의 결합을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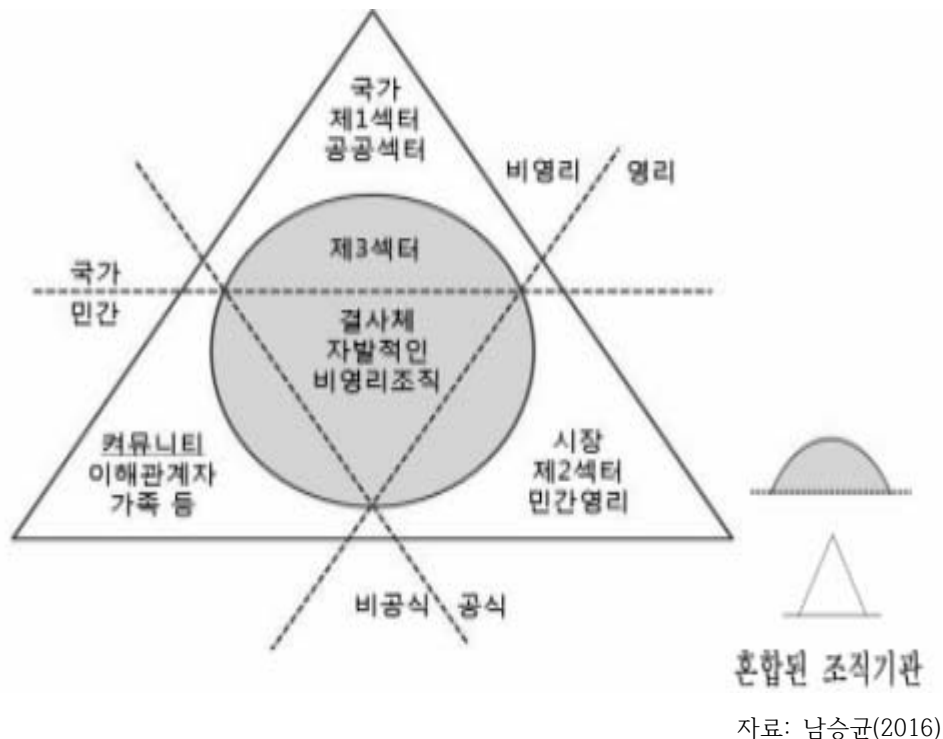
사라엔 무뇨스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리학적 재정의에 동의하는 김슨-그레엄은 자본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서, 현대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인식'이 주류가 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안 경제도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들(diverse economies)의 복합체라고 주장한다.³⁴⁾

이번에는 제도와 법률에 따라 실행되는 인증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보고자 한다. 유럽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배제의 문제,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며, 지역의 오랜 사회적경제 전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반해 복지가 덜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기관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 드푸루니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Gold, 201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많은 개념들이 같은 단어로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남승균, 2016). 즉,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영역도 아니고 시장의 영역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고 있다(김성윤, 2017 참고).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신뢰에 바탕을 둔 오랜 전통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면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형성과 성장에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사회적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1차 산업과 신용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지역 재생 및 공동체 구축 요소들을 다양하게 결합시킨 활동으로 드러난다(김정원, 2016).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적

34) 예를 들어, 이시돌협회가 걸어온 길은 비영리재단,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농법인 등의 다양한 경제 복합체로 운영되어 왔다.

경제 조직 관련 정책 인식 및 정책 기조를 배경으로 하여, 지금 유럽연합 국가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NPO의 집합체(Assembly)로서의 민간 비영리 부문을 구축해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양준호 2011). 개념 규정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규모 차이는 한국의 법적으로 규정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만 포함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공제조합, 사회행동결사, 즉,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유럽 19개국 제3섹터 사회적경제 종사자 수를 보면 67%가 이런 결사 및 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결사나 재단 중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이 없는 재단 등은 사회적경제 섹터에서 제외되어 있다(지용승, 2021; 홍현우, 2019)



[그림 II-3]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진영은 완전 시장자유주의를 통해 자본의 영역을 넓혀왔지만, 개발성장 위주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한계에 도달했다. 이 틈새를 이용해 사회적경제가 조금씩 자본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왔다. 여러 사례 가운데 미국과 영국과 한국을 보면, 미국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성 창출과, 비영리조직을 통한

자선사업과 기부문화(donation)를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적경제는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적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다(Clark, 1996; Hall, 1992; 임현지, 2019; 이나연, 2020). 사회적기업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한계 및 부작용 역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이며, 기존의 역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변혁의 주체이다(양준호, 2011). 이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가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주장에서 볼 때 역사변혁의 주체로 사회적경제는 경제·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등장배경과 제도적 전략, 조직 형태 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목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표 II-10>³⁵⁾과 같다.

<표 II-10> 미국-유럽-한국의 사회적경제 맥락 비교

구분		유럽	미국	한국	
역사적 맥락	등장 배경	1980년대 복지국가 위기 - 실업, 사회서비스 필요에 대응 - 사회적경제 운동	1980년대 정부의 복지지원축소 - 비영리조직의 상업적 수익 창출 전략에서 발전	1990년대 후반 - 취약계층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 필요 - 생산공동체 운동	
	제도 관계	사회적협동조합법 (영국 CIC/지역 공동체 이익회사 2005)	미흡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조직	형태	협회 또는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 (일부 상법상회사 포함)
		규모	적음 (영국은 예외)	아주 많음	적음
용어적 맥락	목적	사회적 편익 창출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재생 등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적 비즈니스	사회적 편익 창출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의미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	

출처: 김성기, 2009

35) 김성기(2009)가 작성한 세 대륙의 순서를 연구자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순서를 유럽, 미국, 한국 순으로 하였음.

1997년 IMF외환위기로 예기치 못한 대량실업 사태와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자활사업이 포용하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정책목표의 설정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경로가 설정되었다(이나연, 2020).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인증제로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인증되는데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한 단체가 아닌 독립된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여야 하며, 6개월간 수입 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만일에 (예비)사회적기업 개념이 존재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략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수익구조 등 일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여 3년을 준비하여야 한다. 인증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형태로 존재하는데 분류 기준은 각 조직의 준거법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도로써 도입되고, 인증제도로 정착한 인증 사회적경제는 시민운동 진영의 노력과 IMF 이후 각종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조례로 발전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단계

순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주관 기관
1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인증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역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

출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인증제도로 안착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12>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순서	연도	내용
1	1990년대 초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운동
2	1990년대 후	장애인 재활 및 자활사업
3	1996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시작
4	1997년	외환위기, 공공근로 시작, 실업대책사업
5	1999년	소비자협동조합법 시행
6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원지원사업의 제도화
7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8	2008년	제1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9	2010년~2011년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10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마을기업으로 시범도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설립(12.31)
11	2012년	제2차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2	2013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13	2017년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대통령실 내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4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자활기업 활성화대책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15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설립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2019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류

사회적경제 조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에서 1970년대 처음 등장하여 1990년 이후 기존의 복지제도나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발전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일반 기업과 구분된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기회와 직업 창출, 전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 역량 강화, 노동 활동에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식 고취 등의 시민 활동을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자본으로 호혜, 연대와 협력, 민주적 의사결정을 운영원리로 하는 반면 일반기업은 경쟁을 통한 화폐 자원을 운영원리로 한다.

<표 II-13> 사회적기업의 특성

구분	사회적기업	일반 기업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추구	이윤추구 극대화
운영원리	호혜, 연대·협력, 민주적 의사결정	경쟁

출처 : 충남연구원(2016)의 내용 일부 수정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나뉘는데 경제적 차원은 직접적 재화 생산, 높은 수준의 자율성, 높은 경제적 부담과 최소한의 유급근로를 띤다.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적 사업을 특징으로 하며, 시민단체 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띤다. 이 안에는 다중이해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목적 사업,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와 경제 차원의 특성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4>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특성

구분	특성	내용
경제적 차원	직접적 재화 생산	지속적인 재화 생산과 서비스의 판매 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공공기관에 의존하나, 구성원들이 만들고 관리
	높은 경제적 부담	기업 초기와 설립에 있어 일정한 내재적인 경제적 부담발생
	최소한의 유급근로	사회적기업의 능동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유급근로자 필요
사회적 차원	목적성	특정 집단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책임 요구
	시민단체 주도	공동체와 지역사회 목적을 위해 소규모 집단 필요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에 따른 의사결정권한 대신 1인 1표를 원칙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업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이익 재분배	제한된 이익의 재분배 필요

출처 : 이흥택(2018)의 내용 수정

둘째, 협동조합은 공공행위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제는 공동행위라는 복수 행위자의 의도적인 기여가 개입된 행동으로 자각, 책임, 목적에 기반한다. 공동성의 주체에 따라 공동행동이 달라지는 데 공동성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협동조합 기업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관계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며 상호부조를 달성한다(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조합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경제적 기업인 동시에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사회문제 해결,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협동조합 중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 직장, 단체 등 공동 유대관계를 지닌 조합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금융거래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박교순, 2020). 특히, 러시아 사회운동가 표트르 크로포트킨(Pyotr Alekseyevich Kropotkin)은 자본주의처럼 경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은 상호부조에 있다고 하였다(Kropotkin, 2014). 인류는 상호협조하면서 공유지 관리에 노력해 왔다. 공유지 관리는 자연과 자원이 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공간에서 시민, 생산자, 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해 다양한 시민적 방법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적 경제 구축, 곧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민간 비영리조직 활동이다(양준호, 2011; 박주희, 2016).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와 조합원을 우선한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세 번의 원칙 개선과

정을 겪으면서 7대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표 II-15> 협동조합 7대 원칙

- | |
|-----------------------------|
|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 원칙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의사결정) |
| 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 원칙 4, 자율과 독립 |
| 원칙 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 원칙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
| 원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출처 : Zamagni and Zamagni, 2012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분야이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약자들과 소외자들의 단결로 형성된다. 협동조합은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의 로치데일 공적 개혁자 조합에 뿌리를 두며 200년간 이어져 온 7대 원칙 (1894년 맨체스터총회: 개방, 민주적 통제,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과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에 준하여 5가지 유형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 독일의 신용협동조합,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연합농민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김기홍, 2014; Zamagni and Zamagni, 2012). 또한 상업의 성격과 동기,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조합원의 필요충족에 맞춰 생활소비자협동조합 유형과, 사업과 경영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와 경영의 상호제공의 성격을 지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목적사업을 실현하는 동기에 따라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박혜린, 2019)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이윤을 넘어서 관계재와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주민의 가치와 존재하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성격을 띤다(김기홍, 2014).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원 형태에 차이가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부여되지만, 행정업무가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원이 없는 대신 조합의 특성이 강조된 다수의 협동조합에 차이가 있다.

<표 II-16>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내용없음(상법 등 준용)	필요 시 기획재정부장관 인가요건 위반 시 취소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셋째,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기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과 삶의 모습에 가장 정통한 지역주민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에게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이익은 지역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선순환이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마을기업은 개발우선주의와 성장제일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활동가, 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킹을 통해 (사)인간도시컨센서스를 출범하였다. 이 법인은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에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4가지 공동원칙의 역할을 강조한다: ①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다름) ②이익은 공동체로 환원 ③ 사업성과는 공동체에 끼친 모든 영향을 다면적·입체적으로 평가해 도출(성공한 마을기업 중에는 적자 발생 소지도 있음) ④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의 선행(마을기업의 가치와 비즈니스 학습)(인간도시컨센서스, 2012).

<표 II-17>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업주체	대부분 대표자 1인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공동출자자 (최소 5인 이상, 주민 70% 이상)
사업대상	취약계층	일반시민 및 이익집단	지역주민
사업목적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공동수익 배분 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지역경제 발전, 커뮤니티 활성화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넷째, 자활기업은 빈민운동을 기점으로 노동운동과 사회복지 운동,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출발하면서 첫 번째로 시도된 사업이다. 그 뿌리는 IMF 위기로 인한 실직, 신용불량, 실업과 연관된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에 근거한다. 자활사업은 각 지역의 자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자활사업단으로 구분해서 운영되며, 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을 발전시켜서 5년 내 자활기업으로 독립시킨다. 이 기간에 자활기업의 과제는 네트워크 수혜자의 커뮤니티 구축이다.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설립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확대 시행된 시민운동의 맥을 이어왔으며 시민과 시민단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구축한다.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뿐만아니라 자활기업은 대상자를 뽑아 지역 문화 개발에 대한 집단 영향력 강화, 주민의 안주습관과 한계역량 개선, 자립자활 인프라를 극복하여 지역사회 주체로 키운다. 참여주민을 위한 사례관리와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전개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한편, 자활기업과 함께 시민 사회에 참여했던 세대들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으로 진출한다. 이상 4가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인증 사회적경제 영역은 앞서 보았던 시장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 왔다. 이들은 간병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비가시적인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거나 취업하여 목적 사업에 집중하면서 운영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보람을 느낀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의 공유, 혁신과 창의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운영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 기술의 양성은 자본 조달 및 경영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교육·육성하고 사업아이템 개발에 초점을 두는데 주안점을 가지는 것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 전국 자활센터는 250개가 있고 제주에는 4개(제주시 2개, 서귀포시 2개)가 있다.

<표 II-18> 사회적경제 조직 간 차이점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협동조합 활동 촉진 및 사회통합, 국민경제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유도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협동조합기본법 (2012)	마을기업 육성시행 지침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대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인 기업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해외연수,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직접지원 없음	사업비 지원, 전문교육, 컨설팅 지원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초기창업자금 및 인건비 지원
추진체계 및 역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중심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발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총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및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 점검 등 총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심,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자료 : 송위진(2014)의 내용 수정

이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정책을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년 10월)”에 기초해서 4개 조직의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확대 정책이 단기간에 실적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은 24,983개이며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현황(2016~2020)

(단위: 천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2,777
협동조합	10,640	12,540	14,550	16,869	19,492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56	1,652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1,062
합계	14,916	16,951 (13.6% ↑)	19,397 (14.4% ↑)	22,036 (13.6% ↑)	24,983 (13.4%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또한, 2017년 일자리 위원회가 4가지 성장인프라와 17개 진출 분야 확대 정책을 도입하자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20> 사회적경제 정책방향(2021)

정책방향	추진과제
1.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과제1. 범부처「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시행
	과제2.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과제3.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과제4.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과제5.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과제6.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과제1.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과제2. 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과제3.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확산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	과제1.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2.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과제3.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과제4. 탄소중립·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과제5.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확대
4.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 확충	과제1.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과제2. 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과제3. 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이상으로 2장에서는 역사와 대륙별 사회적경제 등장배경과 한국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정책을 통한 성장과 미래 전략을 살펴보았다. 3장에 앞서 연구자는 사회적 영역의 다양한 경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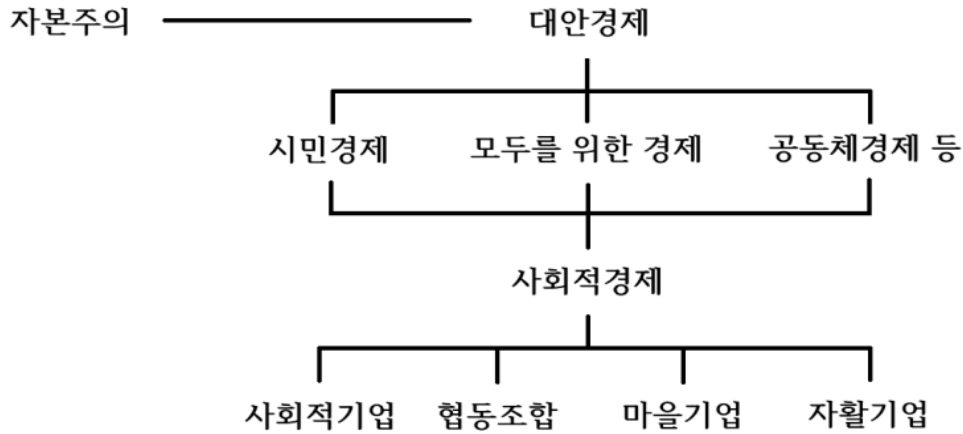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법률적인 개념과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분 지어서 이해한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재정되면 개념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이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붙여서 사용한다. 여기에는 4개의 인증제도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해당한다. 4개 외에는 포괄적으로 대안 경제라고 한다. 시민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공동체경제, 사회적경제 등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따라서 맥락이나 이유를 이야기할 때와 법률적으로 사용될 때 구분해서 사회적경제를 사용해야 한다. 법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회적경제 안에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사회적기업을 표현할 때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쓰면 고유명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법적 인정 조직을 의미하고, 이외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법적인 용어를 가리킨다. 즉, 사회적경제 안의 조직들을 가리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협동조합과 기업의 차이이다. 이 두 조직도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법인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데서 사회적협동조합과도 구별된다.³⁷⁾ 반면에, 기업은 협동조합(1인 1표제)과 상법상의 법인이 있다. 상법상의 법인의 종류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는 1계좌에 1표를 행사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법인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사회적기업은 상법상의 법인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반면에 포괄적으로 협동조합, 비영리재단, 일반적인 기업, 유한회사 같은 기업과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을 모두 한꺼번에 대안 경제/다양한 경제라고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법률적 개념인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광의의 개념인 대안 경제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를 표로 정리하면

37) 김창근 산업현장교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있는 다수의 협동조합과 소수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 방식을 좀 더 개방하여 협동조합을 키워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과 같다.



출처: 연구자 의견

[그림 II-4] 다양한 대안 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4. 사회적경제 선행연구

사회적경제의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규범적 차원, 논의의 형식, 주제의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규범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통한 고용 활동(김길녀, 2020), 의사결정 구조를 전략화한 공익적 이윤추구(이종혁, 2020), 담론적 실천의 차원을 더한 거버넌스 공공성(진희선·이한준, 2015)과 윤리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보상과 결속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약속 제시(김성윤, 2017). 사회적기업의 사업 환경 요인(김기현, 2013),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제도나 실천 자체의 진화(히로키, 2013; 김의영·임기홍 2015),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위기관리 전략(김성윤, 2017; 박주형, 2013; 서영표, 2017), 인증제도 안에서 사회적기업의 유형(박정민, 2021), 정책 이슈(김창희, 2017; 송미, 2016; 오승희, 2019; 이준희, 2016; 남승균, 2016), 사회적기업의 육성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이나연, 2020; 박주희, 2016; 김형돈, 2019; 임완신, 2019; 남승균, 2016; 이홍택, 2018)과 사회적 자본(유미현, 2017; 서영숙,

2015; 임완신, 2019; 임현지, 2019; 최조순, 2012).

다음은 논의의 형식 차원이다. 이익과 고용을 창출해 내는 사회적기업 지도자(허봉선, 2015; 홍현우, 2019; 박교순, 2020; 박정민, 2021; 이종혁, 2014; 신혜원, 2017), 참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성(유미현, 2017; 정태인·이수연, 2013), 지역사회 공헌의 실현(정문수, 2016; Jackson, 2009),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장애인의 역할(고수희, 2017; 김형돈, 2019; 김기현, 2013)

주제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다. 갑슨-그레엄의 공동체경제 이해(이현재, 2009; 최영진, 2010). 시민과 사회적경제(홍현우, 2019; 강영선, 2022),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이슈(최영진, 2010; Harvey, 2005), 공동체지원 농업(김원동, 2016; 강대기, 2004), 모두를 위한 경제(강영선, 2022; 박영봉, 2009) 및 기후문제(김권호·권상철, 2016; 이나연, 2020; 박주희, 2016; 강경민, 2011), 지역과 공간의 친환경적 이해(Jackson, 2009; 김기홍, 2014)까지 폭넓게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목적사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좀 더 일반화하면 공공재³⁸⁾, 공유재, 공동체 분야로 넓힐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소관 부처의 상이성, 연구 방향의 다양성, 자치단체의 역할 등 연구방향이 다양함에도 이윤과 목적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라는 큰 주제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연구자가 도출하려는 사회적경제의 지리학적 이해이다. 장소와 공동체경제의 상호 관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과 경관 연구이다. 연구자는 사회적경제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 장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밝혀내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사회적경제의 앵커 역할을 해 온 스페인 바스크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안티고니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나를 논의하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로의존 같은 이슈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사회로서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공부분 서비스,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조합정신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있으나 마을자원의 활용, 토양분석을 통한 목장조성과 축산업, 개척농가를

38) '공공재'(public goods)란 미국의 경제학자 Paul Samuelson이 자신의 저서 '경제학'(1948)에서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이다(Samuelson, 1948; Samuelson, 1983).

통한 소도시 같은 공동체 논의가 선행되면 인증 제도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적공헌, 주민참여 논의도 함께 시너지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기존의 선행연구와 사회적경제 딜레마에도 사회적경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공동체 경제, 지역의 언어로 창출되는 협동형 마을 연구는 충분히 활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런 특징들이 상존하는 제주의 사례에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전통의 이시돌 경험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1.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관

한국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작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고, 발전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통과와 연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경제의 문제 해결, 모델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2017.10)이 모색되었고 지난 15년 사회적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다. 인증제도를 통한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조직의 목적 사업에 따라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민간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분된다.

<표 Ⅲ-1> 한국 사회적경제의 유형과 세부조직

유형분류	성격 I	성격 II	세부조직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국가	정부의존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	▲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	▲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	▼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	자립지향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민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대안금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공급
	○	▲	노동자협동조합
	▲	○	소비생활협동조합
	▲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시장	영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 : 목적 방향 ○ : 정위치

출처: 노대명(2007) 내용 수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함께 사회서비스 유형도 세분화 되었다. 2020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인증 및 등록기준 2,559개소의 사회적기업 인증 비율은 일자리 제

공형 66.8%, 창의혁신형 12.7%, 혼합형 7.7%, 지역사회공헌형 6.7%, 사회서비스 제공형 6.1% 순으로 일자리 제공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온다(지용승 2021).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1년 9월말 기준 전체 17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가 주도의 일체형 사업 성격을 가리킨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민간위탁형태로 수행하고 있다(송미, 2016).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체적 사업도 시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동향은 각 지역발전 산업과 직결되는 이슈를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개발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로컬푸드, 스마트물류유통, 제주형관광콘텐츠, 혁신성장 과 생태계조성에 맞추어진 사업 전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제주의 사회적경제 개관: 제주지역 경제 현황과 사회적경제 조직

제주도는 2021년~2025년 동안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공존하는 제주라는 미션에 맞춰 핵심 분야 3가지를 실천전략으로 하고 있다. 첫째, 주민참여와 열린 의사결정 체계화, 둘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결속과 비즈니스 질적성장 추구, 셋째, 환경과 지역기반 생태계 조성이다(제주연구원, 2020a). 제주 사회적경제는 행정적인 면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행정지도자, 시민사회 지도자,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통해 그 뿌리에 대해 깊이 공감대를 이루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전 국회 일치를 위한 모임 회장·현 서귀포에 있는 해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을 만나 그 과정을 공유하였다(인터뷰 2021년 4월 26일, 서귀포). 한국 MPPU는 2007년 김성곤 국회의원, 안명옥 국회의원, 원희룡 국회의원 등 국회 일치를 위한 모임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모두를 위한 경제의 대표주자인 베라 아라우요(Vera Araujo) 교수의 강연회(2007년 6월 8일)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 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던 의원 중에 포콜라레 회원 안명옥 국회의원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본부 공동대표로, 남편 길정우씨와 함께 일치를 위한 모임에 최선을 다

했다. 그러던 중 원희룡 국회의원이 제주 도지사가 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길 정우씨가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런 연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연스럽게 제주에서도 일치 모임을 추진할 목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명옥씨와 하윤희씨가 번역한 “공유경제”³⁹⁾를 필독서로 배부하였다. 실제로 원희룡 도정 초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사회적경제 성장에 큰 노력과 결실이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경제조직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거버넌스로 발전했다. 이후 포콜라레 회원 루이지노 부르니가 내한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2016년 5월 22일). 부르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치와 형제애에 대해 강연을 하면서 포콜라레를 하는 국회의원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들 간의 일치운동을 활성화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모임은 17대 국회 때 시작되었으며 18대에는 정식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되었다. 21대에는 28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1996년 루빅에 의해 시작된 이 모임은 재정과 각종 법령을 의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관계, 호혜, 형제애가 중요하다는 데서 그 의의를 가진다. 정치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와 입장을 가졌어도, 인류에 대한 보편적 형제애와 공동선에 기반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정치 문화를 건설하자는 취지이다. 한국 정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와 일치를 위한 정치모임이 시작될 무렵,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가 포콜라레 한국대표를 책임지고 있어 이 운동들이 제주와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직간 네트워크 및 경제조직과 시민 사회와 지방정부간 거버넌스를 통해 발전했지만 한국 사회의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초창기부터 제도화함으로써 여전히 법률적 기관에 예속된 제도 차원으로 머물러 왔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제정을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 15일 충청남도가 첫 번째이며, 제주도는 2014년 12월 31일 제주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⁴⁰⁾ 이 때에 제주 사회적경제 지도자와 도정이 함께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공유하며 추진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과 제주연구원이 발표해 온 제주도

39) 도서 ‘공유경제’(Gold. L., 2012, 안명옥·하윤희 역, 공유경제, 조윤키뮤니케이션)의 원어는 Economy of Communion다. 이 책이 번역되던 2012년에는 공유경제였다가, 이후 모두를 위한 경제 혹은 줄여서 EoC로 번역되서 사용되고 있다.

40) 2021년도 9월 30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현황 참고.

경제개관에 근거하여 제주도 사업체 일반현황 (21.2.26)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개, 명, %)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펴보았다.

<표 Ⅲ-2> 2015년~2019년 사이 제주도 일반사업체

구 분	사업체수	전년대비 증감률	종사자수	전년대비 증감률
2015	55,155	2.3	250,000	6.1
2016	57,791	4.8	258,188	3.3
2017	60,063	3.9	262,747	1.8
2018	62,871	4.7	276,942	5.4
2019	66,098	5.1	286,304	3.4
제주시	48,635(73.6)	4.7	214,650(75.0)	4.0
서귀포시	17,463(26.4)	6.3	71,654(25.0)	1.6

출처: 통계청(2020)

원도정 마지막 무렵인 2018년~2019년 일반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62,871개의 사업체가 존재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 (자영업)이 82%로 압도적이였다. 2018, 2019년의 사업체, 종사자 증감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표 Ⅲ-3> 제주도 사업체 일반 현황-조직 형태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8년	2019년	구성비	증감률	2018년	2019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2,871	66,098	100.0	5.1	276,942	286,304	100.0	3.4
개 인 사 업 체	51,545	54,204	82.0	5.2	124,220	131,036	45.8	5.5
회 사 법 인	6,653	7,020	10.6	5.5	87,357	85,705	29.9	-1.9
회사이외법인	2,975	3,116	4.7	4.7	58,802	62,270	21.7	5.9
비 법 인 단 체	1,698	1,758	2.7	3.5	6,563	7,293	2.5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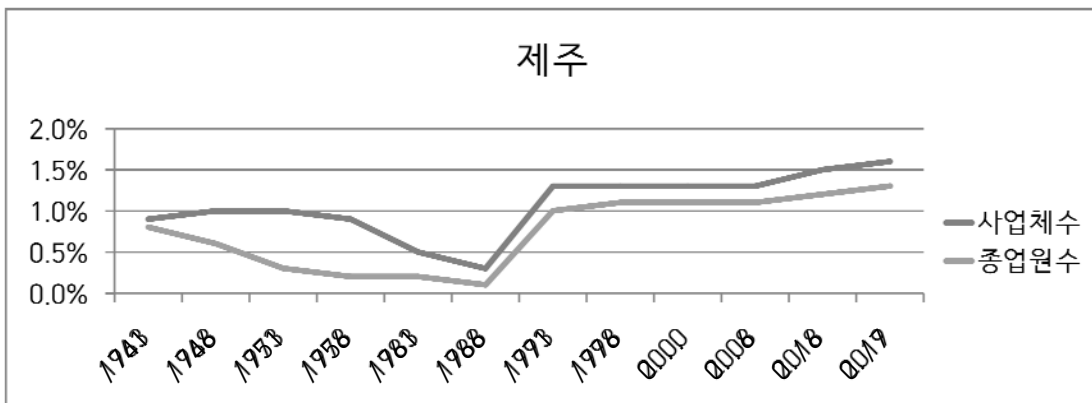
출처: 제주연구원

제주도의 경제 성장 관련 경제기획, 통계청에서 자료를 모아 다음의 표(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더니, 1963년 전국 총사업체수의 0.9%, 전국 총종사수의 0.8%에서 2019년 전국 총사업체수의 1.6%, 전국 총종사자수의 1.3%에 해당한다.

<표 Ⅲ-4> 지역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단위:개,명,천원.(%)

년도	지역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1963	전국	18,310 (100)	401,981 (100)	61,533,567 (100)
	제주	165 (0.9)	3,216 (0.8)	369,201 (0.6)
1968	전국	24,109 (100)	748,223 (100)	301,432,686 (100)
	제주	241 (1.0)	4,489 (0.6)	904,298 (0.3)
1973	전국	23,293 (100)	1,157,829 (100)	348,913,611 (100)
	제주	233 (1.0)	3,473 (0.3)	697,827 (0.2)
1978	전국	29,864 (100)	2,111,925 (100)	8,192,442 (100)
	제주	269 (0.9)	4,224 (0.2)	8,192 (0.1)
1983	전국	39,263 (100)	2,215,233 (100)	20,911,446 (100)
	제주	196 (0.5)	4,430 (0.2)	20,911 (0.1)
1988	전국	59,928 (100)	3,120,486 (100)	48,341,599 (100)
	제주	180 (0.3)	3,120 (0.1)	48,342 (0.1)
1993	전국	2,304,250 (100)	12,245,073 (100)	
	제주	29,285 (1.3)	126,802 (1.0)	
1998	전국	2,785,659 (100)	12,416,558 (100)	
	제주	34,994 (1.3)	141,428 (1.1)	
2000	전국	3,013,417 (100)	13,604,274 (100)	
	제주	38,847 (1.3)	154,005 (1.1)	
2008	전국	3,264,782 (100)	16,288,280 (100)	
	제주	44,307 (1.3)	180,882 (1.1)	
2018	전국	4,103,172 (100)	12,245,073 (100)	
	제주	62,871 (1.5)	276,942 (1.2)	
2019	전국	4,175,286 (100)	22,716,910 (100)	
	제주	66,057 (1.6)	286,047 (1.3)	



출처: 경제기획원, 공공업센서스(1963~1978), 경제기획원, 산업센서스(1983~1988)

[그림 Ⅲ-1] 지역별 사업체수, 종업원수의 전국 대비 비율

최근까지도 제주도의 사업체를 조직 형태로 보면 개인사업체가 두드러지고 영세한 규모가 많다. 2022년 9월 기준, 5인 이하 사업비 중이 81.9%로 대부분 영세업자이며 년 영업이익은 2200만 원, 월평균 184만 원이다. 도내 하위 20% 평균자산은 1215만 원, 상위 25% 평균자산은 14억 원이다. 상위 자산이 도민 평균 가계자산의 74%를 차지하며 16개 도시 중 가장 높다.⁴¹⁾ 이상으로 검토한 제주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제주지역 일반사업 지표를 통해 2019년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 규모

구분	전국 산업	제주 전 산업	제주 사회적경제	제주 내 사회적경제 비중(%)
사업체 수(개)	4,103,172	62,871	470	0.75
종사자 수(명)	22,234,776	276,942	2,820	1.02
매출액(백만원)	6,033,069,539	46,640,453	101,520	0.22

* 본 보고서 실태조사에서 사업체당 총매출액 평균은 216백 만원(상위 10% 제외)으로 조사됨.
출처: 제주연구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2019)⁴²⁾

정리하면, 제주도 내 전 사업 중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의 규모는 0.22~1.02% 수준이다. 제주도 전 산업 사업체 수 62,281개 가운데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470개 (0.75%)이다. 제주도 내 전 산업 종사자 수는 276,942명이며 이중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는 2,820명으로 비중이 1.02%이다. 제주도에 전 산업 사업체의 매출액은 약 46조 64억 원인데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체의 총 매출액은 0.22%인 약 1,015,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시민단체는 제주 사회적경제 매출을 제주 전 산업 사업체 매출의 1%를 목표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제주의 사회적경제 세부조직으로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회적기업은 132개로 인증기업은 55개, 예비기업은 77개이며, 제주시 60개, 서귀포시 17개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283개로 일반협동조합이 25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25개, 생

41) 제주도의회 409회 1차 정례회 5차 본 회의(2022.9.22.) 한동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도정질문 내용 참조.

42) 통계청, 2018,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 규모.

활소비자협동조합이 8개이다. 마을기업은 36개로 제주시 20개, 서귀포시가 16개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은 19개이며 제주시 11개, 서귀포시 8개 순이었다. 이를 표와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체수

구분	총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일반	사협	소비		
도	470	132	55	77	283	250	25	8	36	19
제주시	366	106	46	60	229	200	21	8	20	11
서귀포시	104	26	9	17	54	50	4	-	16	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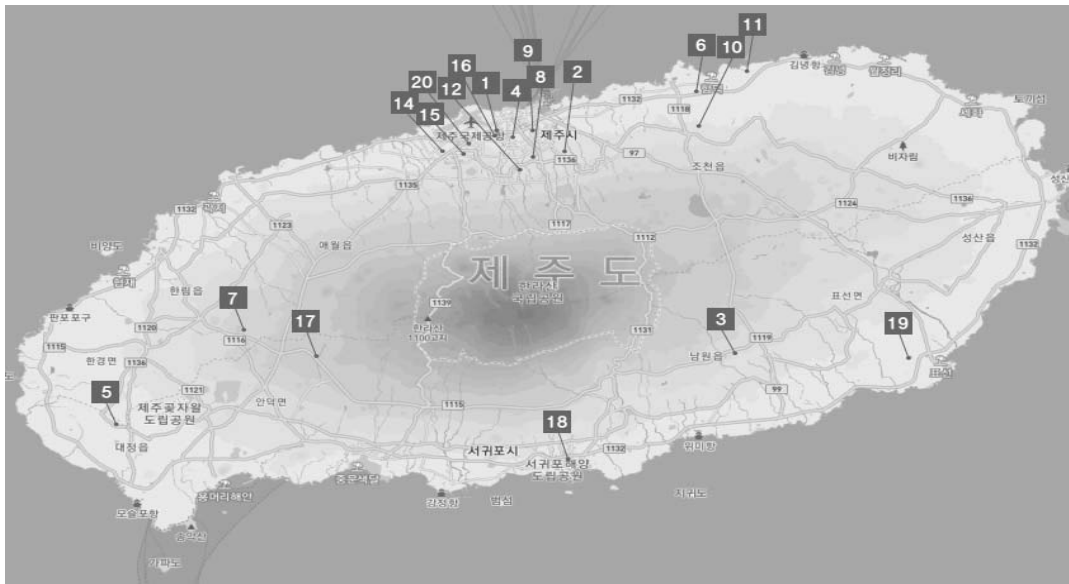


[그림 Ⅲ-2]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 (출처: 제주도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분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기관, 인증 후에 소멸하는 기관, 사회적경제 유형을 바꾸는 기관도 다양하다.⁴³⁾ 그림에도

제주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데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먼저, 제주의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이 성공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먹거리운동과 로컬푸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어릴 때부터 누누이 들어 온 것이어서 먹거리 생활에 익숙하다. 그만큼 사회적경제 지원을 책임진 도지사와 교육감의 영향이 크게 작동해 왔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선정과 지방자치정부의 지원으로 서귀포시가 지역내 105개 노지 문화를 스포크하여 미래지향 사업체로 클러스터화 하고 있다. 이어서, 제주시 구도심과 제주시 동부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이유는 시민활동가들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활동해 온 경험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을 기점으로 탐동 매립과 구도심 붕괴, 제주 도의원 제도의 시작이 맞물리면서 시민활동가들이 제주시 구도심과 동부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구도심과 함께 제주 서부지역 일부(한림읍, 대정읍)에서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것은 196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양돈 단지, 양잠단지와 같은 주축 단지를 구성할 때 7개의 지역이 선정되어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규모 면에서도 덩어리 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체가 입점할 수 있었다. 이곳 가운데 하나가 비영리재단 이시돌농장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제주 사회적경제 분포와 연구자가 선정한 사례를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3)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의 인터뷰(2021.6.7.)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인증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주도청 김동규 주무관과의 인터뷰(2021.5.27.)로, 말소되는 기업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사회적기업 수에 포함됨으로 수치상 중복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 중에는 제주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가들이 부러워하는 기업들도 사업체 내외부, 지도자의 역량 등의 사유로 폐쇄되는 예도 있다.



인증조직(12개)

1.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 사회복지법인 황새앗카리타스 일배움터
3.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4. 사회적협동조합이어도지역자활센터
5. 마을기업무릉외갓집
6. 제주희망협동조합
7. 유한회사 섬이다
8.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9. 사회적협동조합 인화로
10. 농업회사법인 무니농장
11. (주)평화여행자
12. 사회적협동조합 걸쳐마루

다양한 경제 비인증 조직(8개)

13. 기부문화 우리농장
14. 모두를 위한 경제 파리바게뜨 신노형점
15. 한살림노형매장
16. 모두를 위한 경제 건강한약국
17. 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18. 쿵스토어제주동흥점
19. 환이정인문예술공간
20. (주)민들레소반

[그림 Ⅲ-3] 이 연구의 대표사례 20개 분포

3.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사례

연구자는 앞서 II장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다양한 경제, 공동체경제, 사회적경제를 참고하여 인터뷰한 곳을 정리해 보았다. 본 논고에서는 20곳만 제시했지만 30곳을 조사하며 20곳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제주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와 차별화되어 자본주의 틈새를 파고들어 그 공간을 사회적경제의 특징들로 환경보전, 지역복지,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키워나가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었다.

<표 III-7> 제주 사회적경제 사례 구분

시민기업	모두를 위한 경제	다양한 가능성	인증 사회적 경제
한살림노형점	신노형점	우리농장	수놓음자활
아이쿱동홍점	건강한약국	한라산아래첫마을	일배움터
환이정	쌍마시멘트*	승혜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
(주)민들레소반	웰빙치과*	비영리재단이시돌협회*	이어도자활
		Lee 기공 기부 문화*	무릉외갓집
		주치의 제도 탐동365*	제주희망
		밝은 주유소*	섬이다
			희망나래
			인화로
			무니농장
			평화여행자
			컬쳐마루
			제주착한여행*

주: *는 앞의 20개 사례는 아니지만, 조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데 유사한 특성을 보인 조직으로 참고를 위해 제시하였음.

2) 대표 사례의 사회적경제 특징

연구자는 제주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반적인 성공 요인과 사회적 임팩트를 중심으로 기업의 목표, 재정출처와 연 예산,

주요활동, 임팩트, 성공 요인과 주요과제, 그리고 기타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사례는 EMES 방식, 경영공시, 문헌연구,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따랐다.

<표 III-8>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특징 검토 지표

분야	제조업, 공정관광, 판매, 운송 등
사회적경제 영역	인증기업, 생활소비자조합, 모두를위한경제, 영농조합법인
시행	설립시기, (예비)인증 년도
정책 영역	사회복지, 로컬푸드, 농민시장, 사회서비스
정책 접근	행정영역, 정책영역, 운영영역
비전과 미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를 공간에 담아내는 작업
재정출처, 예산	매출 사업 분야, 공시재무제표 분석
주요활동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구축, 마케팅홍보, 네트워크 강화
영향 (임팩트)	로컬의 니즈를 찾아 해결하는 작업 ⁴⁴⁾
성공 요인	공공성, 공유재, 공동체 가치 창출
기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타 요소들

주: EMES 사회적 경제 지표를 연구자가 일부 검토하여 사용

◆ 인증 사회적경제(1~12) 다양한 비인증 사회적경제(13~20)

(1)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이하: 수눔음자활)

수눔음자활은 2000년에 자활사업단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규모는 수급자 110명이다. 수눔음자활은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자활사업단의 운영, 자활기업의 독립,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관사업은 자체가 보조금(30억 원)이며, 보조금을 통해 나온 매출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된다.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수눔음일자리지원, 복지간병과 수눔음 돌봄, 리사이클링 등의 사업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자활센터 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와 협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공공화장실, 해안도로, 공중화장실, 학교 청소 등) 및 생활지원, 교육과 취·창업 등의 복지정책에 맞는 책임의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모기관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100개 이상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시켰

44) 공유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생태적 공공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김자경, 2016).

다. 수놓음자활은 이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시키며 기관간 연대를 통해 서로 성공하는 윈윈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방문과 기관지를 통해 만난 수놓음자활 사례는 탐동과 구도심 살리기, 공설운동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공간 확보 등 아이디어가 충분한데도 행정기관의 무관심, 취약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무의식, 환경적 가치에 대한 안이한 판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인 황새앗카리타스 일배움터사회적기업(이하: 일배움터)

일배움터는 2005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직원은 58명(근로장애인 46명 포함)이다. 일배움터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리스타교육과 꽃 재배, 노동과 환경운동을 접목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다. 주요사업은 카페플로베 운영, 제주형사회적농업, 월예사업과 도자기사업을 통한 길거리 꽃 식재이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근로장애인들의 수익구조와 복지, 코로나 사태에도 카페와 화훼하우스 일로 순환근무를 통해 직원 고용, 노동의 디커플링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면은 일자리 창출과 비장애인·장애인 결속,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간의 결속, 대기업사회공헌사업 활동에 동참, 지역사회 공헌 등이다.

20회 이상의 기관 방문과 5차례 이상의 카페 방문을 한 일배움터 사례는 정기적인 회의와 근로장애인의 근무교대로 생산한 아이템 판매의 재무건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영순 대표가 보여주는 청명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지역 시민활동가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장애인도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주민 인식을 개선하였고, 제주형 사회적농업 분야를 활성화시킨 업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2019년 경영공시에서 영업손실 15억 원, 보조금과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16억 원으로 보전되어 당기순이익은 3천 8백만 원이고, 근로장애인의 상품매출, 카페매출이 고유의 목적 사업 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하였다(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참조). 오영순 대표는 제주시 길거리 꽃 문화를 정착시킨 인물로 제주의 경관보전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이다.

(3)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이하 일하는사람들)

일하는사람들은 2006년에 자활사업단으로 시작하여 현재 30명(취약계층 18명)의

직원들이 생산공동체 사회 경제 조직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환경미화사업, 천연염색제조, 식품영양제, 몸클린지다. 판매방식은 아이쿱생협과 협약을 통해 샵인샵으로 하고 있다. 목표에 걸맞게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률도 높은 곳으로 보아 고용 창출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참조).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5·16 도로를 오가며 마주한 김경환 대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간 결속력 대책 마련, 사회적경제 연기금의 출연 제안, 협동조합 고유의 원칙 준수 등을 종합해 단위농협 간 협력을 기술하였다. 민간위탁조례 연구를 통해 지역자활의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임팩트를 만들었다⁴⁵⁾. 이처럼 김경환 대표는 청년과 제주 미래자원을 위해 법전을 펼치며 공부하는 지도자로 실천과 이론 모두에서 뛰어난 지도자이다.

(4) 사회적협동조합 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하: 이어도자활)

이어도자활은 2008년도에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직원은 취약계층 2명 포함 67명이다. 이어도자활의 목표는 차상위계층, 여성일자리 영역에서 삶의 질 개선,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이다. 주요활동영역은 사회서비스, 시장진입, 인턴도우미, 자산형성지원, 로컬푸드, 돌봄영역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맞추어져 있다. 임팩트는 전국 자활센터 250개 중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목적사업 분야를 확대한 22개소에 포함되는 창의성, 조합원의 자율적 참여, 로컬푸드 운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 마켓프레쉬 등이다. 2020년 경영공시는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 61억 원, 상품·제품 등의 일반 매출이 39억 원이다.

연구자가 서사라 센터, 도남 센터 및 화북 등지 사업체 일대에서 참여 관찰한 이어도자활 사례는 전통적으로 실행해 온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또한 제주형 사회적농업 실현으로 환경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효철 대표는 현재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로 지역 사회적경제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45) 제주에 할당된 클린하우스 청소파트가 4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입찰방식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로 넘어간 적이 있음 (김경환 대표 인터뷰, 2021년 4월 14일 한남리 소재 자활센터).

(5)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이하: 무릉외갓집)

무릉외갓집은 2009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무릉리 농민을 제외한 직원은 5명이다. 목표는 생산품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고, 정품으로 고객에게 발송하며, 정직하게 판매하는 3정 운동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은 꾸러미와 단품 배송사업이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2018년 무릉리 마을과 무릉외갓집 마을기업이 투 트랙으로 정방향을 찾은 점, 꾸러미 소비자층에 벤타코리아, 삼성 홍라희 씨 등이 포함된 점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사유재산을 마을의 공유재산으로 기부·기증하는 마을 분위기가 있다. 주민과 마을기업 직장인 간의 소통, 인터넷 방송을 통한 온라인 판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사업, 공동체 살림과 재정투명성은 협업과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재에서 출현한다.

연구자가 20회 이상 방문한 이 사례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향토자산에 대한 주민의 주인의식이 강해 오래전부터 마을주민 간 애향심이 있었다. 이는 무릉외갓집 꾸러미 농산품 판매 수익에도 이어져 직원들의 인센티브, 마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으로 수놓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희철 대표는 제주로 이주하여 무릉외갓집에 취직한 전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과 직원을 잇는 리더십으로 사회적경제 지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⁴⁶⁾.

(6) 제주희망협동조합(이하: 제주희망협동조합)

제주희망조합은 2013년에 자활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증을 받았다. 현재 직원은 18명이다. 제주희망협동조합의 목표는 사회적공공재인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협동조합 운영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주요활동은 정부 양곡 배송, 관공서와 생활협동조합 물류 배송, 영아플러스 사업, 신구간 이삿짐 배송이다. 사회적 임팩트는 주민참여형으로 결속한 직원들이 회사와 더불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연합청년회, 부녀회, 라이온스 활동 등), 신구간 때 이삿짐 가격을 걱정하며 차를 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가정

46) 근로자의 헌신은 내재적인 동기의 진정성이라 믿을 때 최적의 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낮은 봉급을 주면서 열악한 기술자, 일의 능률이 없는 사람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서비스가 질이 낮아진다(Bruni, 2015; Kahn, 1990).

에 낮은 가격으로 배송 돕기, 자활사업의 특성과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통해 차상위 계층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사회적 책임(도배, 청소 등)이다.

연구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페이스북)으로 20회 이상 찾은 이 사례는 전 직원이 자신들의 거주지 내 연합청년회, 부녀회, 라이온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모여 공부하며, 물류배송을 위한 전기차와 태양광 설치를 통한 충전 등 에너지자원활용을 연구해왔다. 자활기업의 지원이 끊기기 전에 직원들의 출자금으로 회사를 안정시켰으며, 2020년부터 영업 손실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다(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이자 해당회사 이사장 고진석씨의 발로 뛰는 리더십은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사회적경제 분야를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을뿐만아니라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촉망받고 있다.

(7) 유한회사 섬이다 사회적기업(이하: 섬이다)

섬이다는 2014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14명(우유부단 8명)이다. 목적은 둘로서 첫째, 제주 로컬푸드 문화에 기반하여 지역순환형 고부가가치 경제시스템을 창출하는 데 있다. 둘째, 제주 원도심 살리기 문화 활동, 사회적경제 간 연계 협력, 청년 진로와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양한 유제품, 로컬푸드 판매, 체험목장 등이다.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와 로컬푸드 확산을 통해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임팩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업무순환제를 통해 매장운영을 하고 있다.

연구자가 100회 이상 평화로를 다니며 방문한 우유부단(운영기관: 섬이다)은 16평 소규모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벽면 전체를 투명 유리로 만들어 150만 평의 초지경관, 마소와 양, 신혼부부 테쉬폰 촬영, 왕따나무 촬영 등 주변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광경이 쉽게 관찰된다. 이시돌협회와 계약을 통해 55%의 순이익을 지역의 호스피스로 환원하고, 법인 이익의 10~15%는 우유부단 직원들의 배당에 쓰고 있다. 김종현 대표는 사회적경제를 꿈꾸는 청년들의 보금자리 제주 더큰내일센터 대표로 촉망받고 있으며 국내외 사회적경제 지도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다.

(8)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이하: 희망나래)

희망나래는 2015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72(근로 장애인 33)명이다. 희망나래의 목표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희망나래복합공간을 통한 장기 프로젝트 구성이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인쇄 및 판촉물 제작이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근로장애인 디커플링을 통한 일자리와 전문기술 향상, 인터넷 방송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주민참여형 복지타운, 협동조합 7대 원칙 준수이다.

연구자가 20회 이상 희망나래복합공간과 작업장을 방문한 사례로 희망나래는 협동조합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의 공감을 끌어내 출자증거금 112억 원을 마련하고 결속력을 강화했다. 어려운 경제형국에 손익 또한 7억 원을 발생시켰다(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참조). 기술혁신전달(SIR⁴⁷⁾과 시민자산화를 멘토링하여 제주형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며 소액대출 그라민은행 같은 제주 사회적경제 연기금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은 이시돌협회 내 한림수직에서 스웨터를 짜며 생계에 도움을 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사회적경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정기준과 꼼꼼한 시찰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좋은기업최우수상을 2020년, 2022년에 수상하였다.

(9) 사회적협동조합인화로(이하: 인화로)

인화로는 2017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취약계층 9명 포함 직원은 18명이다. 인화로는 일도2동 주민들이 주체가 533명의 조합원을 이루어 커뮤니티 공간 마을카페사람꽃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교육 강화 등 사회공헌을 기획하였다. 기부문화와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아름다운 가게⁴⁸⁾ 운동을 통해 일도2동 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약자, 홀로사는 노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 일자리 등을 마을공동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정감있는 제주어를 사용 모다들영 공모사업, 수놓음 컨설팅, 하간디 마을현황조사, 훈디모영 교육, 소도리 홍보로 공

47) Social Innovation Relay의 약자이다.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기업 멘토와 멘티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48) 공정무역 한국 사례로는 아름다운 가게를 포함, 두레생협연합회, YWCA전국연합, (주)페어트레이드 코리아, iCOOP한국생협연합회, 공정무역을가게올림, 기아대책 행복한나눔이 있다(박창순·육정희, 2017).

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자가 20회 이상 방문하여 인터뷰, 온라인과 대면 만남, 그리고 사회적경제 학습을 통해 제주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참여, 도심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였다. 경영공시에서는 2020년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실현 수준이 높은 제주 최초의 도심형 커뮤니티이다. 제주시 동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참조).

(10) 농업회사법인 무니농장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이하: 무니농장)

무니농장은 2018년에 (예비)사회적기업, 2022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원주민 2명, 이주민 3명으로 직원이 구성된 동업 조직이다. 수익은 성장촉진제를 쓰지 않은 키위 생산이다(Safina, 2017 참조). 자본의 유혹과 상인의 접근이 생길 때마다 동업자간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동업자 간 협동은 좋은 생산 아이템과 고정된 가격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수익금에 대해서 원주민은 장소애와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주민은 지역에 적응하며 인근 은빛마을, 아가의집, 지역아동센터에 상품키위를 선물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시즌에는 이주민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협력하러 온다. 모두를 위한 경제 회원이자 이탈리아에서 루빅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배은숙 대표는 제주민, 이주민, 타운하우스 거주 작업팀, 외국인 근로자로 소도시를 만들었다.

연구자와 함께 모두를 위한 경제모임 소속의 일원으로 만나는 배은숙 대표, 공무원과 함덕 부녀회장을 지낸 한대인 부부는 키위 농장을 운영하는 동업자로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인터뷰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소유지에 대한 토양분석과 뉴질랜드 방문으로 시작하여 예비지 확보, 성장촉진제 미사용을 통해 수익보다 토양과 재배작물에 대한 공동체지원농업에 공감하고 있었다. 연구 기간에 예비조직에서 인증조직으로 넘어가며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이 인증조직이 되기 위해 지켜야하는 행정절차의 복잡함, 책임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11) (주) 평화여행자 (예비)사회적기업 (이하: 평화여행자)

평화여행자는 2018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4명

이다. 목표는 제주의 역사와 환경과 평화를 존중하는 여행, 미래지향적 지구지킴이 여행이다. 목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주요활동은 다크히스토리 등의 교육여행, 한라산과 오름, 용암동굴과 습지, 꽃자왈 생태체험, 마을여행이다. (예비)사회적기업 기간 중에 손실이 생긴 데는 코로나로 여행업이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여행의 임팩트는 헤드쿼터인 이을락 공동체의 아나키즘적 마을문화와 공동체 전개(구승희 외, 2022; 최협, 2001) 그리고 생태관광운동이다. 이를 통해 이을락은 활동가들 간의 결속, 마을주민들과의 협업을 중요시해 왔다.

선홍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센터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고제량 대표와 연구자는 7년 동안 제주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였다. 고대표는 생태관광협의체 마을인 선홍1리, 저지리, 평대리, 하례리, 호근동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남리, 수망리, 조천리, 가시리, 귀덕1리, 함덕리, 영천동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생태관광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이 되고 마을의 니즈를 찾아 원탁회의를 열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마을운영 방식을 통해 제주대학교 공동자원 지속가능사회센터 및 전국 사회적경제 지도자들이 꼽은 최고의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마을주민이 공감한 니즈는 마을에 없는 요양원을 건립하여 마을 밖에서 요양하고 있는 22명의 어르신을 모셔오고, 대부분 주민도 자기 일로 받아들였다. 이 사례는 하례리 마을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도출되었기에 공동체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제시해 준다.

(12)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이하: 컬쳐마루)

컬쳐마루는 2019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7명이다. 컬쳐마루 헤드쿼터 거인의 정원은 전문심리상담사와 예술가들이 직장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들의 전시 및 공연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컬쳐마루는 심리상담과 예술활동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자는 컬쳐마루 흥동언 대표와 20회 이상 만나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어려움에 관해 공부하였다. 컬쳐마루는 제주도 내 직장인의 정서 관리를 하는 최초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을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목적 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가 같은 독특한 사례로서, 전문상담가와 예술인 부부가 운영하는 컬쳐마루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현대 도시사회에 꼭 필요하고 내실 있는 조직

이다.

(13) 기부문화의 선두주자 우리농장(이하: 우리농장)

우리농장은 1987년 한림읍 상대리에서 양돈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 18명 포함 28명이다. 우리농장의 대표 부부의 삶은 지극히 검소하며 남을 위해 최대한 베푸는 기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실천해 왔다. 이들 부부는 신혼부부 시절 농촌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조건 없이 도와준 것을 잊지않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기로 결심하여 32년째 기부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제주도 초대교육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회장인 아내도 기부를 많이 한다. 양씨 부부를 이끄는 것은 불교심성, 부처님의 자비이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근무환경 실사에서 전국 1%에 들었다. 자선의 범위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와 돌봄에서 제주시로, 다음은 제주 전역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로, 지금은 아프리카로 기부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사업 운영 면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한 바이오양돈으로 파리협약을 준수하는 한 사람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구자는 양용만 대표와 아내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형제애, 경영의 정직성, 기부문화의 확산, 심지어 기부금도 매입으로 잡아 투명성을 지켜왔지만 지나친 세무 감사로 힘든 경영을 해왔다. 환경운동가면서 납세의무를 지키는 양대표는 18명의 젊은 외국인 직원들의 소비성향,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체를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 개발 등을 주시하며 일 년에 3~4차례 직원들의 고향을 방문하여 경제적, 기술적 수준에 맞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귀국한다.

(14) 파리바게뜨 신노형점 모두를 위한 경제(이하: 신노형점)

신노형점은 2004년에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11(평일 근무 8, 주말 근무 3; 평균 근무 횟수는 10년 이상)명이다. 파리바게뜨 신노형점의 목적은 사회적 자본과 관계재를 통해 주민 간 형제애, 지역의 토양 환경보전 운동에 있다. 매출은 빵집 수입을 통해 창출된 수익과 인프라이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매일 푸드뱅크 활용, 매일 커피 200잔 지역주민에게 나누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해 휴식 시간에 찾아뵙기, 동종업계 간 협업⁴⁹⁾, 노형동이 커지고 있고 대형마트가 선점하고 있지만⁵⁰⁾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사랑방 구현이다.

연구자는 모두를 위한 경제 신노형점 인터뷰를 사랑방 차원에서, 주변 업종간 협업 차원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았다. 연구자는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가게 문을 열며 동네 등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 차 자정에도 찾아가 보았다. 우수암농장, 이호동과 도두동 텃밭, 노형동 가정 내 탈취제로 쓰이는 커피 찌꺼기 효소 만드는 과정을 확인 차 우수암 지역을 방문하였다. 사장이 혼자 이득을 내서 큰 아파트로 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을의 등불이 되고자 사장 부부는 신노형점 앞 18평형 이사를 하였다. 노형동 일대에서 누구를 만나도 노형동의 사랑방은 신노형점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배송물과 탁송물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고, 학교와 학원을 마친 아이들이 근무를 마친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 간식을 하는 사랑방, 유기농업으로 토양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자연헌법(Nature Jurisprudence)을 실천하는 공간이다(Nardi, 2009; Lewis and Lowenfels, 2010). 가족 간의 화합, 직원들과의 형제애, 노형동 주민들의 장소애, 그리고 지역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며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로 성장해 왔다.

(15) 생활협동조합 한살림노형점(이하: 한살림노형)

한살림노형은 2008년에 생활소비자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7명이다. 목표는 책임농업과 착한 소비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생명 운동과 ‘모심과 살림’이다. 재정출처는 농산물, 먹거리가공품, 친환경 생활제 등이다. 현재 조합원은 12,000명이다. 주요활동은 중산간 목장지대를 생태적 유기농 초지로 전환하는 사업, 지역 농민들의 농민 시장 참여와 삽인삽 운영, 에너지전환 환경운동⁵¹⁾, 갈등관리와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일터살림협의회와 제도개선위원회 마련 등이다. 사회

49) Bruni는 상호지원(mutual assistant)이 상호 무관심의 면역이 아닌, 내재적인 동기(intrinsic reward)로 발생하는 시장 서비스를 상호 나누는 행위로 본다(Bruni, 2012).

50) 이 점은 가맹점 간의 협업을 이끌고 대형마트와 차이나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용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들어올 때 대기업의 대형상점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매장 안에 진열된 제품은 대형할인점과 다를 바 없으며, 주변 상권을 사라지게 하는 일을 발생시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51) 에너지전환 사례로는 제주희망, 한살림노형, 우리농장, 이시돌협회 등이 있다.

적경제 임팩트는 지학순주교(1921~1993), 장일순선생(1928~1994)⁵²⁾이 토대를 놓은 한살림선언에 나온 생명 가치로의 전환, 자본주의에 맞선 생명 운동이다.

연구자는 한살림운동을 같이하고 있는 한살림 강순원 상무와 만나고, 한살림 이사인 김자경 박사와도 오래 대화하며 한살림이 걸어갈 길을 고민하였다. 강순원 상무는 제주도 사회적경제 단체 간 7대 정책의제를 선도하는 방향에도 관심이 많다. 제주희망협동조합이 자활기업으로 독립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마켓프레쉬를 맡겼다. 강순원 상무는 제주의 수놓음과 계에 대해 전문가로 수놓음의 재현을 위해 저변확대에 노력 중이며 제주의 걸어 다니는 동학이다.

(16) 건강한약국 모두를 위한 경제(이하: 건강한약국)

건강한약국은 2013년에 재오픈하여 운영을 재개했으며 직원은 8명이다. 건강한약국의 목표는 강요하지 않으며 무리하게 직원들을 끌고 가지 않는 대신 자연스럽게 약국지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⁵³⁾ 심장질환 전문병원에 입점한 약국의 약국장으로 환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여긴다. 주요 임팩트는 아시아퍼시픽 모두를 위한 경제(EoC),⁵⁴⁾ 한국 모두를 위한 경제(EoC) 회원이며 거기서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연주회, 아나바다, 직원들을 위한 연이자 3.5%(인터뷰 당시는 국내은행이 굉장히 저리였음), 연 휴가 모으기 프로그램 등 직장 내 관계재,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포콜라레 운동을 하는 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의 지원도 든든한 임팩트다. 협업을 하되 수익을 지역복지에 사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평일 근무제를 실행하며,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모두를 위한 경제 창립자 루빅으로부터 이탈리아에서 직접 시민경제를 배운 성길홍 약국장을 연구자는 20회 이상 만났다(개인적으로 7년간 함께 봉사). 이 기간

52) 장일순의 한살림 운동은 한국의 동학과 기독교 가르침을 포괄하며 인간은 독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모든 생명체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통합적 측면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Huh, 2019).

53) 관계성은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 자체가 또 다른 계약이 되고 속박이 되면 그 또한 억압화된 자유, 강제성의 일종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로 아는 관계, 오래 함께 직장생활을 한 경우, 포콜라레 혹은 모두를 위한 기업 간의 신뢰와 도덕성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래서 형제애라는 관계로 약국이라는 시장에서 공동의 이익, 계약 자체 이전의 동기를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형제애라는 관계성을 시장에 넣는 작업이 사회적경제를 제주라는 공간에 넣는 작업과 비교할 때 성약사가 운영하는 건강한약국은 좋은 사례이다(Bruni, 2008 참조).

54) EoC는 Economy of Communion의 줄임말임.

에 연구자는 탑동의 무료노숙자를 위한 매일 무료 투약, 일요일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봉사(2시~4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약국장을 지켜보았다. 가장 좋은 관계제는 강제하지 않는 형제애이다. 무뚝뚝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성약국장의 최고의 과제는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의 가족들, 직장의 직원들에 대한 신의이다(허봉선, 2014 참조).

(17)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이하: 한라산아래첫마을)

한라산아래첫마을은 2015년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 자체적으로 메밀면을 뽑아 상품화하였다. 메밀면전문 식당 한라산아래첫마을의 직원은 마을 조합원 15명이며, 이시돌목장과는 자매결연을 한 사이이다. 일본전국면류협의회가 인정한 메밀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한라산아래첫마을임에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는 없다. 그만큼 외진 데다, 사업이 잘되어 멀리서부터 찾아온 손님을 위해 스마트폰 번호표를 발행하고, 메밀체험장과 커피숍을 운영한다. 임팩트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모두가 참여하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강상민 대표는 광평리에서 나고 자랐으며 영농조합법인 15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평리 마을 주민 모두가 5년 동안 메밀관련 작업장을 찾아다니며 메밀 사업을 준비했고 메밀면 최고의 맛집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시돌목장 남쪽에 해당하는 솔도, 광평리, 이시돌이 닭은점은 우유부단과 한라산마을의 인테리어와 경관이다. 실제로 우유부단 카페와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초지 경관과 메밀 경관, 가게는 수제 우유 아이스크림과 메밀면, 경관을 투명 유리로 한 점, 야외 의자도 모두 각만 남기고 면이 없는 점 등이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은 수익도 마을로 배당되고, 소규모 지역 중심모델로 성공하여 성읍민속마을에 2호점을 냈다.

(18) 쿵스토어제주동홍점(이하: 쿵스토어동홍점)

쿵스토어동홍점은 2017년에 생활소비자협동조합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직원은 7명이다. 목표는 소비자의 건강라이프 구축, 유기농 친환경 생산자 살림 조합이다. 제주도 조합원 6500명이 친환경 물품으로 농산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며 매출을 올린다. 사회적경제 임팩트는 로컬푸드 선정 시 지역 농민 생산품으로 우선하며, 물과 같은 공유재를 공공의 영역으로 돌렸으며, 시민 먹거리 습관

바꾸기 시민교육 등이 있다.

연구자는 5·16 도로를 20번 넘으면서 쿠팡스토어동홍점을 찾았고, 때로는 상품 홍보를 위해 거리 마케팅에도 동참했다. 사회혁신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제주도 조합원 수 6,500명 중에서 2,000명이 서귀포시 시민이다. 개방적이고 의식 수준이 높은 서귀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습관 개선과 소비 생활의 전환을 위해 채소 과일 가격을 낮추고, 유기농 생산자들의 물품을 샅인샅이로 판매하며, 로컬푸드에 있어 지역 농민들의 상품을 우선한다. 풀무원친환경매장 올라, 초록마을(2022년 정육각이 인수)과 함께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협업을 하고 있다.

(19) 환이정인문예술공간(이하: 환이정)

환이정은 2020년에 인문예술 공간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 목표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역 농민들과 공유하며 인문예술 공간을 이해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다. 매출은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해외수출 마진(margin)에 있으나, 실제로는 연중 농부시장과 농부학교를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 아래에 농민과 수놓음을 실천하는 미션에 있다. 임팩트는 표선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3년 프로젝트와⁵⁵⁾ 서귀포시 5개의 사업체와 맺은 공동프로젝트이다.

연구자는 환이정의 단기 프로젝트는 2020년 로컬과 믹스앤 밉글, 2021년 하멘 프로젝트, 2022년 두 프로젝트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다. 연구자는 초창기부터 환이정에 며칠씩 머물며 농부장, 농부학교 운영에 참여하였다. 환이정은 표선을 브랜드화하고, 서귀포를 브랜드화하고, 한국을 브랜드화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인문예술을 하는 4개팀과 하나의 특화 클러스터를 구성, 서귀포를 잇다-하멘 프로젝트⁵⁶⁾를 진행중이다.

(20) (주) 민들레소반(이하: 민들레소반)

민들레소반은 2020년에 주식회사로 시작하였고, 신제주 YWCA 건물 일층 한편

55) 환이정의 단기 프로젝트는 3단계이다. 2020년, 로컬과 믹스앤 밉글; 2021년, 기존 네트워킹 활용; 2022년, 준비한 2년을 시기와 공간별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모델 구축.

56) 서귀포시 노지문화를 수행하는 기업체 가운데 5개의 사회적경제가 협력하여 만든조직.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장 3절에서 다룸.

에 작은 식당으로 오픈하였다. 3명의 직원과 7명의 주주, 그리고 프레쉬마켓에 동행하는 고미연 대표와 그녀의 남편이 전부이다. 임팩트는 식당 규모가 작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결속과 지원(highly qualified individuals), YWCA의 전통이다. 식당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

연구자가 자주 찾는 민들레소반은 YWCA를 모원으로 한다. YWCA는 정부와 지방자치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용역 받아 진행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YWCA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지역사회 시민운동과 복지사업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 특별히 취약한 여성 실업자, 차상위계층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신제주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박한 식단과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 식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민들레소반 고미연 대표와 남편은 이를 위해 새벽부터 싱싱하면서 값싼 재료를 찾아 시장을 누빈다. 서서히 거래비용과 전문성이 나아지면서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 투 트랙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례 중 이들의 재정출처와 예산편성 부분은 한국 사회적경제진흥원과 COOP협동조합에 게재된 의무경영공시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부록 4. 참조). 하지만 인증기간 중인 사례와 비공개 의사를 밝힌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은 할 수 없었다. 또한, 재무분석만으로 재정 현황과 예산출처를 다 알 수 없으므로 해당기업에 관한 문헌, 기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등 비물질적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사례 20개를 통해 제주 공동체경제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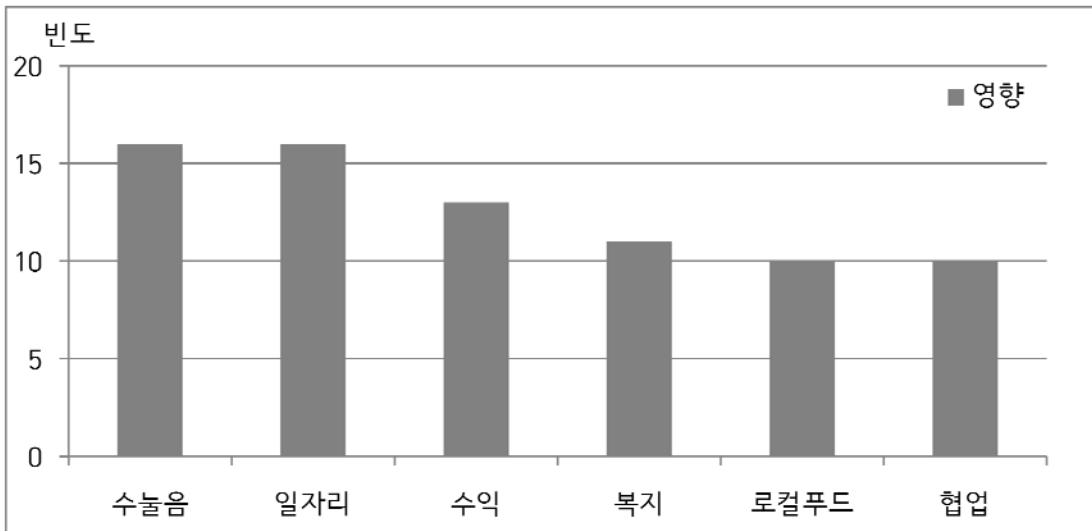
3)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의 임팩트

연구자가 포착한 작고 소박한 규모의 사례들은 지역사회에 강한 임팩트를 주며 로컬의 니즈를 해결하고 있었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요소는 수놓음과 일자리, 수익, 복지, 로컬푸드, 협업 등이었다. 어떤 형태의 기업은 하나의 임팩트를 냈고, 어떤 곳은 일자리와 수놓음 임팩트가 큰 것으로 나왔다.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와 수놓음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강한 임팩트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 특정 부분의 임팩트로 유지되는 곳 등 어떤 형태의 기업도 사례의 영향에서 도출된 요소들을 통해 경

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놓음과 일자리 요인은 대다수 조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사례들은 사회적경제 영역이 자본주의 틈새를 파고들어 그 공간을 키워가게끔 임팩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표 Ⅲ-9> 20개 사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영향

사례기업 (중복)		
수놓음	수놓음자활, 일하는사람들, 이어도자활, 무릉외갓집, 제주희망협동조합, 섬이다, 인화로, 무니농장, 평화여행자, 우리농장,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환이정, 민들레소반	16곳
일자리	수놓음자활, 일배움터, 일하는사람들, 이어도자활, 무릉외갓집, 제주희망협동조합, 섬이다, 희망나래, 인화로, 무니농장, 평화여행자, 우리농장,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건강한약국, 쿠팡스토어동홍점	16곳
수익	수놓음자활, 일배움터, 일하는사람들, 이어도자활, 제주희망협동조합, 섬이다, 무니농장, 평화여행자,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건강한약국,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13곳
복지	수놓음자활, 일배움터, 일하는사람들, 이어도자활, 섬이다, 희망나래, 무니농장, 걸쳐마루, 우리농장, 건강한약국, 민들레소반	11곳
로컬푸드	무릉외갓집, 섬이다, 인화로, 평화여행자,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환이정, 민들레소반	10곳
협업	일배움터, 무릉외갓집, 섬이다, 무니농장,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건강한약국,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환이정	10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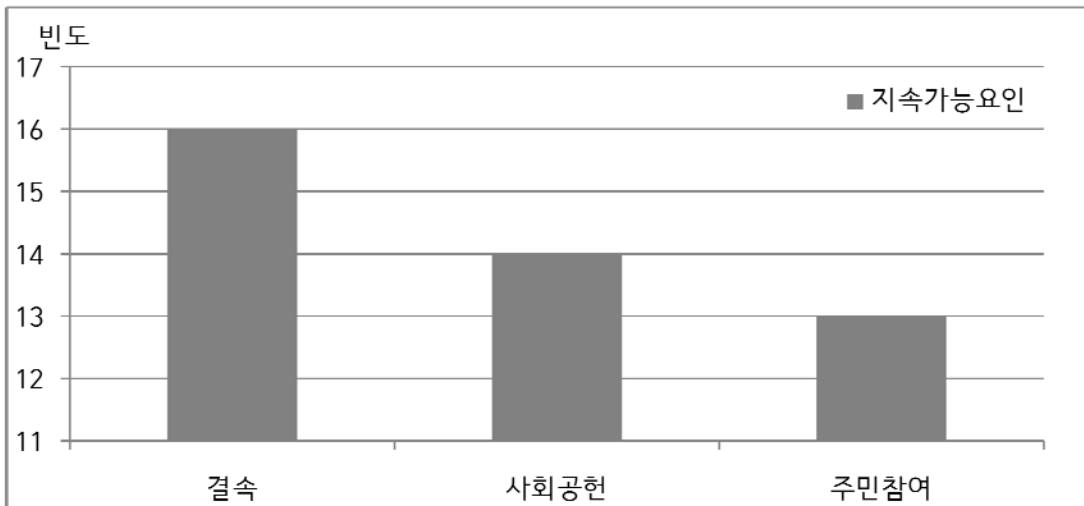


[그림 Ⅲ-4] 사회적경제 조직 20개 사례의 영향

<표 Ⅲ-10> 20개 사례의 성공요인

사례기업 (중복)		
결속	일배움터, 무릉외갓집, 제주희망협동조합, 섬이다, 희망나래, 인화로, 무니농장, 평화여행자, 켄치마루, 우리농장,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건강한약국,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민들레소반	16곳
사회공헌	일배움터, 파리바게뜨 신노형점, 평화여행자, 한라산첫마을, 무니 키워 농장, 섬이다, 환이정, 우리농장, 한살림노형, 자연드림동홍점, 제주희망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 제주이여도, 무릉외갓집	14곳
주민참여	수놓음자활, 일배움터, 제주희망협동조합, 섬이다, 희망나래, 인화로, 평화여행자, 신노형점, 한살림노형, 한라산아래첫마을, 쿠팡스토어동홍점, 환이정, 민들레소반	13곳

친환경 농업수익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관광,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공정무역과 책임 소비와 친환경농업, 생명 운동과 로컬푸드, 지역농산물의 생산(꾸러미)과 생산품(메밀면), 유기농 초지를 이용한 농축산업, 태양광과 전기차를 이용한 운송업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는 작업,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 환경운동이다. 이렇게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생긴 모든 수익과 거기서 파생된 것은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데 일정 부분을 책임진다.



[그림 Ⅲ-5] 사회적경제 조직 20개 사례의 성공요인

인터뷰와 참여 관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 경제동향을 포착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는 로컬의 니즈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강수영, 2013). 이들 사례는 여태 총체적 담론으로 여겨온 자본주의 경제 담론에 도전함으로써, 곧 담론을 구성하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다(Gibson-Graham, 2013). 이를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 자원 환경, 로컬의 니즈 논의, 사회적경제 종사자와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한계를 풀어보면, 참여 관찰에서 연구자가 포착한 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는 긴장이 없는 정체성, 치열함이 없는 소속감, 비혁신적인 시장 아이템과 수익성 구조, 경영 분석에 대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실패, 사회적 가치 성과를 나타내는 사회적 회계 미실천 같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것들로는 사회적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 지도자의 수익사업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지 못한다면 결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없기에 특별히 직원, 가족, 소비자, 이해관계자 간 결속이 최우선 필요하다(박주희, 2016).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간 각자도생 방식은 그동안 상호거래와 협력이 공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 대신 범위의 경제를 넓혀서 서로 협력하려 해도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려운데 논쟁을 피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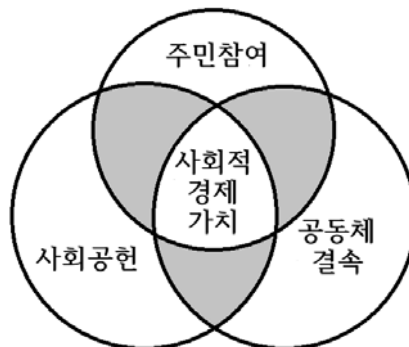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와 협동에 대한 논쟁 없이 그 성과에 해당하는 사회적 회계를 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합원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출자금에 대해 모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문제와 컨설턴트 교육의 부재, 자체적인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프로그램 혁신안, 컨설턴트를 못 받는 형편 등 상호거래와 상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체경제를 꼭 실행하려는 절박감(desperation)에서만 수행된다. 연구자는 현장을 뛰면 될수록 모든 사회적경제 기관이 원하는 방향은 지역발전임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과 보조금처럼 인과적인 과정이 아니며, 사회적경제를 지속시켜주는 보편적인 기술이나 기준도 따로 없다. 협업으로 공동체경제 동향에 참여하며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는 길뿐이다. (임재해, 1999).

종합하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 노동의 대가, 임금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투자 위험도 낮고 주민들 간 친밀감도 강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사회공헌,

구성원 간 결속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보인다. 이를 3개의 특징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공공성이다. 주민들이 민주주의식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회계를 통한 제도개선, 연대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데서 시너지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공유재 관리이다. 마을의 향토자산과 부존자원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수록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공동체이다. 주민의식의 개선, 지역 주민 간 결속을 통해 강한 결사체를 구성해 나간다.

4. 제주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의 특징

앞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복지,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 로컬푸드, 수놓음, 협력 등의 공동체경제 특징을 보이는 특성으로 도출해 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이들을 다시 사회적경제의 일반적 논의와 연계시켜 결속, 사회공헌, 주민참여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인 참여, 수익 분배, 결속을 실현하면서 운영되는데, 제주의 사회적경제는 공공성, 공유재, 공동체성 세 가지를 갖추어 진행된다. 물론 공공성과 공유재와 공동체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3가지 모두를 갖지 않고서도 사회적경제는 운영이 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주민참여, 사회공헌, 결속으로 사회적 가치가 작동한다. 때로는 결속이 강한 공동체로 사회적 경제가 운영되기도 하고, 주민참여와 사회공헌이 배제되기보다는 결속이 훨씬 중요해서 사회적경제의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림 Ⅲ-6] 제주 사회적경제의 3가지 특징

연구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3가지 요소를 사례별로 정리해 보았다.

1) 공동체 결속

공동체 결속의 영향은 9개 정도의 특징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 동업을 하는 사업 구성원들의 결속이 수익과 참여보다 더 강조된 사례

무늬농장은 30년 전에 한 친목회에서 만난 두 사람(서울 사람, 제주 사람)이 함덕리에 땅을 샀고 지금은 자녀와 손자녀들이 동업으로 키위 농사를 하고 있다. 지역공무원과 함덕리부녀회장을 지낸 제주 주민의 마케팅, 이민과 서울 생활로 경제관에 밝은 이주민이 환경을 생각하며 성장촉진제를 쓰지 않고, 상인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소통하며 키위에 기반한 강한 결속감으로 공동체지원 농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업자들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서로 대화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방식을 논의한다.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시설을 찾아 정품으로 선물하며 지역에 동화되고, 형제애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농민과 이주민의 결속 사례

무릉외갓집은 벵타코리아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2008년부터 마을기업 무릉외갓집을 운영해 왔다. 13년간 마을 창고건물에서 작업해 오다가 2022년 폐교로 방치되었던 무릉리 동초등학교(1994년 폐교)를 리모델링하며 장소를 옮겼다. 무릉2리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제주로 이주해 와서 무릉리 근처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마케팅기술로 지역 농민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서로 신뢰하고 결속하며 지낸다.⁵⁷⁾ 벵타코리아와 일사일촌, 삼성 흥라희 소비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저

57) 무릉2리는 무릉1리와 구별되어서 무릉동초등학교가 있었다(1965~1994). 대정읍의 변방인 무릉리에 두 개의 학교가 있다가 1994년에 무릉초등학교로 합병되었다. 인근의 신도리는 도원이란 마

명한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꾸러미를 배송받는 데는 농민들이 정성으로 농사를 짓고,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수익을 내는데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민과 이주민,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1인 운영체계 리더십이 아닌 주민참여형 공동운영과 책임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수익과 참여를 지향하면서도 궁극에는 결속이 중요시한 사례

첫 번째는 시골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인 한라산아래첫마을이다. 완전한 영농조합법인 결사체로서 광평리 주민 전체가 메밀밭 경관을 만들고, 메밀면 기술을 극대화시켜 마을주민 모두가 메밀면 식당으로 결속하며 지내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이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인화로이다. 일도2동 조합원 533명이 지역주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고, 마을의 다양한 목적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결속하며 지내고 있다.

이처럼 마을형 비즈니스 커뮤니티 모델인 한라산아래첫마을은 마을 조합원,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마을 회의를 하고, 영업 외에 따로 모이는 시간을 통해 더 진솔한 대화를 한다. 그중에는 광평리 귀향민들을 언제나 환영하는 공감대도 포함되어 있다.

도시형 비즈니스 커뮤니티 모델인 인화로는 마을카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거두어들인 손익은 인화로 마을인 일도2동의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수익과 주민참여와 결속이 모두 잘 운영되는 사례

이시돌협회는 개인농장, 양돈목장, 감귤농장 주인들과 이곳에 일하러 온 가톨릭을 종교로 가진 외국인 노동자, 타운하우스로 와서 조용히 지내는 일부 가톨릭 신자, 국제학교 가톨릭 가정, 교사와 학생이 미사에 참여하고 결속을 다진다. 이들은 별도의 후원금과 함께 이시돌목장 내 우유부단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수

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이어진 이곳에 무릉중학교가 현재까지 있다. 지금은 200가구가 있는 곳이지만 인근 국제학교와 친교를 맺고 꾸러미 사업을 펼치며 국제학교 행정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무릉외갓집의 이주민들이 대응을 잘 하며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무릉외갓집 교회철 대표 인터뷰).

익금 일부가 이시돌 호스피스 복지위원과 요양원으로 보내어지는 데 자부심을 품고 생활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후원금은 이시돌목장 사업이고, 가장 꾸준한 수익은 우유부단 배당이익이다.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그들 중에는 대개 가까운 금악 마을주민부터 이곳을 이용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수익과 주민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을 의료 비즈니스 커뮤니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이 강조된 사례

첫째, 농민시장 환이정은 서귀포 노지 문화로 선정된 105개 사업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들 중 뜻이 맞는 5개의 업체가 서로 협력하여 HAMEN 프로젝트를 만들어 상호 정보교환과 교류를 하고 있다.

둘째, 자활센터인 (사)일하는사람들의 생산아이템 화장품 ‘해보라’가 아이쿱 매장에 샵인샵으로 입점하여 상호부조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셋째, 노형 마을의 농민들은 한살림노형이 주차장 용지 일부를 농민들의 생산품을 담아둘 창고로 내주고 토요일에는 농민시장을 열면서 호응이 좋은 농산물은 샵인샵으로 들여놓고 있다.

□ 자활사업의 목적인 자활기업의 독립과 직원간 결속 사례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수놓음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자활기업이다. 수놓음센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독립과 자립에 성공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5년간 지원받았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인증기간 후를 대비하여 수익 안정화를 지향하며 조합원 출자금을 모으는 중에 결속이 더 강해졌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사례

제주희망협동조합이 수놓음 자활센터에서 독립하여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무렵 한살림노형은 3년 동안 한살림노형 물류 배송을 제주희망협동조합에 위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연결고리가 조성되었고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지역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의료사업 간의 협력

첫째,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와 희망나래는 영지학교가 인근에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졸업한 학교와 취직한 직장이 가까운 덕분에 버스 노선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기술을 습득하며, 근로장애인으로 양성되고 있다(특수교육장학관 K씨 인터뷰, 2021년 12월 15일).

둘째, 탐동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탐동365가 야간진료를 시작하였고, 건강한약국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동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투약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 고병수 원장과 성길홍 약국장의 협력은 탐동을 반-젠트리 공간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부족했다면 범죄, 차별, 노숙으로 이웃 생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Smith, 1996; Gottdiener, 1991; Valentine, 2014).

□ 결사체로 움직이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결속

사례 중에는 8개의 협동조합 형태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사회적협동조합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희망협동조합, 걸쳐마루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쿵스토어동홍점, 생활소비자복합형협동조합 한살림노형.

이들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은 희망나래, 인화로, 제주희망, 걸쳐마루이다. 다음으로, 이어도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자활센터가 복합되어서 운영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시민운동 분야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쿵스토어동홍점과 한살림노형이 해당된다.

2) 사회공헌

사회공헌 방향은 5개 정도, 곧 사회서비스, 주민교육, 마을지원, 마을복지, 환경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첫째, 무니 키위 농장 동업자들은 이웃들에게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한편, 동업자가 합심하여 조천읍 관내 복지시설을 돌며 정품의 최고급 키위를 선물하며 지낸다.

둘째,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친구간 동안 이삿짐차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이삿짐을 저렴한 가격에 운반해주는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 주민교육

첫째, 평화여행자는 오랜 기간 생태마을에 머물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사회공헌을 해왔다.

둘째, 우리농장은 1990년부터 귀덕리, 상대리 마을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고, 주변 마을이 구제역으로 힘들 때 3억 원을 기부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사업기반을 마련하도록 재산관리 교육을 해 왔다.

□ 마을자원의 활용

첫째, 한라산첫마을 광평리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집 앞, 부녀회관 앞, 마을회관 앞, 메밀밭 등의 경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개방하여 제주의 메밀밭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환이정은 표선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도록 농부학교를 열고, 이를 판매하는 농민 시장을 위해 10,000평의 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무릉외갓집은 역사적으로 새마을 기금, 사유재산을 마을에 쾌척한 공덕비⁵⁸⁾에서 보듯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유한 역사, 마을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호혜적인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 왔다.

58) 부록 5. 공덕비와 금석문 사진과 내용 참조.

□ 마을복지

첫째, 파리바게뜨 신노형점은 독거노인 방문, 커피 나눔과 푸드뱅크, 07~00시까지 마을의 사랑방으로 노형 지역의 사회적관계 영역을 확대하는 데 공헌해 왔다.

둘째, 섬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앵커로서 마을주민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법인 이익의 10-15%를 배당금으로 준수하며, 마을 복지기금에 후원해 왔다.

□ 기타: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통한 공동체경제들의 주요인자

첫째, 한살림노형, 쿠팡스토어동홍점, 환이정은 로컬푸드 운동을 하고 있다.

둘째, 수눔음 자활센터, 이어도 자활센터, 일하는사람들 자활센터는 사회서비스와 시장에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이들이 발전해서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도록 지원해 왔다.

셋째, 민들레소반과 자활센터는 YWCA, 노동운동의 뿌리를 이어가고자 본래의 사업에 시민사회운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경제 활동(협동조합, 식당운영)을 펼치고 있다.

넷째, 건강한약국, 신노형점, 무니농장, 쌍마시멘트는 모두를 위한 경제의 특징 중 하나인 주는 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농장은 불교 심성으로 기부문화를 선도해 왔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토리비아(섬이다와 이시돌협회의 연계)는 지역공동체의 강점을 살려 주민과 직원이 법인조합원으로 가입, 금전적 수익금을 마을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3)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영향은 6개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주민참여를 우선시하면서 수익과 결속이 강조된 사례

사업을 통해 수익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결속도 높지만, 시민참여가 더 중요한 경우는 협동조합, 농민시장, 마을기업, 공정관광이었다.

대표적으로 신노형점은 2가지 차원에서 결속이 강조되고 있다. 먼저, 신노형점은 노형동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장소애를 키워왔고, 가게에서 나온 커피 찌꺼기로 혼합비료를 만들어 쓰도록 주민들을 교육했다. 또한, 빠른 채비로 마을 내 독거노인, 푸드뱅크 트럭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다음은, 사장 혼자 독점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통해 평균 10년 이상 근무한 평일 직원과 평균 7년 이상 근무한 주말 직원, 시간제 직원들이 결속하여 빵집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결속과 주민참여가 강조된 사례

구성원들의 결속, 높은 주민 참여도만큼 수익 극대화가 기대되는 조직은 자활사업단이다. 수놓음, 이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 수익과 주민참여는 강조되지만, 결속이 결여된 사례

수익과 참여의 형식만 갖춘 채 결속 없이 실패한 사례로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북리 풍력발전 연계 사례와 저렴한 비용으로 제주와 다른 지방간 배송사업을 위해 설립된 하늘버스협동조합이 있다.

□ 수익과 결속과 참여를 다 갖춘 사례

위와는 반대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다. 여기에는 마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섬이다, 신노형점, 무릉외갓집, 한라산아래첫마을, 건강한약국이 있다.

□ 정치활동

제주는 사회적경제 지도자의 정치 활동도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주민의 의식개선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도자가 직접 지방자치 의정 활동에 참여한 경우이다.

첫째, 국민의 힘 도의원 활동: 양용만 사장 (한림읍)

둘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활동을 하는 남편: C 이사장

셋째, 시민사회가 지원한 제주가치 도지사 후보 지지: K 대표

넷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지지: S 이사장

다섯째, (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사: 환이정 차은실 대표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20개 사례를 들여다본 결과, 이들이 지역 사회에 미친 임팩트(영향)는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환경보전, 사회공헌, 결속, 수놓음 6개가 나왔다. 이를 압축하면 공공분야의 주민참여, 공유재로서 환경과 지역사회공헌, 공동체로서 결속이라는 3개의 공통요인으로 일반화 요약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요인을 통합해 보면 사회적경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치는 결국 제주 사회적기업의 성공 요인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성공 요인 뒤에는 앞에서 살펴 본 실패의 요인도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끊겨 인증 만료후 폐업하는 경우 등 사회적경제 운영의 한계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성공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요인이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제주에는 이시돌협회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경제 성격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연계시키면 지속가능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이시돌의 경험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이시돌협회와 맥크린치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양영철 교수의 내생적호혜론(양영철, 1990/2016; 권태준 외, 1999), 마이클 포터 교수의 공유가치창출이론(이효석, 2016), 박삼욱 교수의 산업지구 9형 이론(박삼욱, 1999), 협동형마을(김기홍, 2014) 등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기에 1950년대부터 한국의 제주도에 농축산 단지로 뿌리내리고 있는 이시돌목장의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보를 찾아보겠다.

IV. 제주 사회적경제의 지역성과 지속가능성:

1.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특징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가 사례를 통해서 결속, 사회공헌, 주민참여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역에 착근된 이시들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시들협회는 오랜 시간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또한, 돌봄 분야를 도외시하며 수익을 재창출하는 자본의 유혹에서 디커플링하며 사회적 가치가 생동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공과 실패, 쇠퇴와 재건의 반복이 있었지만, 이 모든 교훈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Singer, 2015). 1절에서는 먼저 제주지역의 상황으로 제주의 특징과 공동체경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1) 제주의 지리적 환경

제주는 수리적 위치로 말하면 위도가 가장 낮은 최남단이라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태풍의 길목으로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에 사면이 바다로 되어 대륙과 단절되어 교통이 불편하고 생태적 특징도 차이가 난다. 관계적 위치로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잇는 지점에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식생이 다르게 나타나고, 기온이 높고 습한 기후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김오진, 2018). 화산섬으로 화산지형이 분포하여 경관 및 암석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서무송, 2009). 또한, 해안지형 경관이 나타나며 현무암이 풍화된 검은 모래나 패사로 이루어진 해변 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난다.

사회적으로는 교통 노선의 발달이 어렵고 고립된 섬 지역의 특징으로 공업 발달이 어려워 대도시 형성이 힘들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수려한 지형 경관을 바탕으로 3차 산업인 관광업이 발달하였다. 문화적 장벽인 바다에 의해 의식주 문화가

다르고, 언어 및 생활풍습도 다르게 나타나는 곳이다. 여성들의 결속력이 강하여 가족이 살 수 있었으며, 제주의 음식이 단순하고 소박한 데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살 수 있었던 생활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줄이고 최대한 농업 노동, 해녀 노동에 참여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공동노동과 상호부조를 들 수 있다(김자경, 2017a). 개인과 마을 공동체 현안을 위해 계를 활용하였다. 목축계를 통해서 생산 수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반화하였다. 이미 조선 후기까지 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어져 온 계(정기환, 2003)가 있지만, 제주는 경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강한 수놓음이 있어왔다(김동전·강만익, 2015; 김자경, 2017a). 1700년대 이미 관혼상제와 관련하여 부조문화, 부조 은행⁵⁹⁾이 있었고, 그릇계와 쌀계, 장막계와 상여계가 있었다(김자경, 2017a). 다른 지방은 벼농사 중심의 동족촌이라면, 제주는 밭농사를 하며 혼성촌으로 살아온 특징이 있다. 이는 곧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평등성에 기초한다(Putnam, 2006; 김자경, 2019a). 주민들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인 계를 체득하며 자랐다. 특히 계가 강한 곳은 제주의 동부지역으로 덩어리로 형성된 꽃자왈 지대(조천~함덕 꽃자왈 지대, 구좌~성산 꽃자왈 지대), 척박한 토양을 이유로 농사짓기가 어려워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었다.⁶⁰⁾

문화적으로, 깃슨-그레엄의 공동체경제가 잘 발동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가 잘 마련된 곳이다. 이 두 학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비자본주의 틈새를 찾아 확대해 나가는 논리에 섬이나 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의 마을은 경제, 교육, 돌봄⁶¹⁾, 신앙, 생활공동체로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곧 초등학교 중심의 생활권에 기초한다. 마을 자산의 유지와 가치를 위해 마을의 지도자인 이장은 직접 선거로 치러지고, 마을총회에 참석한 5~6개의 자연마을의 청년회장,

59) 퍼트남은 계(契, rotating credit association)를 비공식적 저축기구로 보고 있다(Putnam, 2006). 퍼트남은 이탈리아 지역간 비교를 통해 1970년대 산업지구, 1980년대 경제 동향에서 3개의 특화 지역을 구별하였다(권오혁, 2000). 에밀리아 로마나 주의 특성은 노동력 활용에서의 유연성, 생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간에 이루어진 분업, 기업가적 정신과 기술, 경쟁과 협력의 혼합, 생산활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되는 사회 구조와 지역사회 문화임을 도출했다(박삼욱, 1999).

60) 연구자는 구좌읍 동북리~성산을 신천리에 이르는 지역의 천주교회에서 4년간 사목하였다.

61) 크로포트킨, 루빅, 깃슨-그레엄에게 돌봄은 호혜의 의미로 관계의 사회성을 가리킴.

부녀회장이 이장을 보필한다. 또한, 마을 명 뒤에 2리, 3리가 붙은 지역은 1970년대 이후에 생겨나 대체로 공동재산이 없다. 즉 마을 자산체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마을의 경계다 보니 분명한 마을의 경계가 마을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거기서 주민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마을의 정관은 1년 이상 거주하고 나서 마을회에 가입할 수 있고, 이때부터 의결권이 생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된다. 회원은 곧 마을 공동체 구성원을 말한다. 전입신고를 마친 행정주민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이 되는 것이다(홍성태, 2021). 제주연구원이 마을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도 이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권으로 나타났다(현해경·라해문, 2020). 제주는 지리적으로 부존자원인 바다, 산, 오름이 풍부한데도 명확한 마을 분류로 부존자원은 불공평한 공유재일 수밖에 없다(정영신, 2016).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또한 마을끼리 물려 있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는 쿵스토어동홍점 점장과 인터뷰를 통해 제주와 괴산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⁶²⁾ 또한, 제주에는 물리적으로 바다와 밭과 산이 엮여있어서 이장답과 마을산이 마을기금에 비축된다. 여기에 더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결속으로 학교계, 할망바당, 공동목장도 존재한다(김자경, 2016; 김자경·최현, 2020). 그러므로 마을 주민들은 중층결정⁶³⁾으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자치와 주민참여가 따르는데 사실

-
- 62) 충북 괴산과 비교해서 괴산 마을 사람들은 아이쿱 클러스터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행정적으로 차단하였다가 아이쿱이 구례, 고성에서 성공하는 사례를 확인 후에야 아이쿱을 수용하였다. 행정 문제로 인해 차선책으로 택한 구례와 고성의 클러스터 구축과 기쁜물 민영사업의 성공을 본 괴산 주민들이 아이쿱을 수용해 행정 지원을 받으며 도로를 내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는 클러스터 뿐만아니라 먹거리·체질 개선을 위한 힐링센터와 한 달 살이 호텔을 건축하였고, 전국의 기술자들이 클러스터에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는 괴산 마을주민들도 있다. 쿵스토어동홍점에서 볼 때 괴산 마을은 텃세가 심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버틴 기간이 15년이다. 한편, 쿵스토어동홍점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 군집한 서흥동 홈플러스, 상호의 제스코마트, 법환동 이마트, 이보다는 작아도 규모 면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 마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서귀포시에서 쿵스토어동홍점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서귀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았던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서귀포시 인구의 10%가 넘는 2,0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귀포시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다른 일반 시민을 소비자로 이끌어 주었고 자본침식에서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서귀포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신뢰,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개방, 도교육청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몸으로 체득한 로컬푸드 인식 등이 쿵스토어동홍점의 발전을 도왔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들 대개 시민활동가들이 먼저 의식교육을 받은 뒤, 교육을 받은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을 넓히는 반면, 서귀포시 주민들은 일찍부터 제주의 행정기관과 교육 기관이 제시하는 먹거리 운동에 솔선수범하며 아이들, 부모들, 가족들 그리고 주민들이 열린 의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괴산의 친환경 농부들이 생산자회를 탈퇴하며 관행농법으로 가는 반면, 서귀포시는 생산자회뿐만 아니라 삼인삼 정책을 통해 주변 농가와 생산업자가 협업하며 책임농업 및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다(쿵스토어동홍점 점장 인터뷰, 2021년 8월 4일).
- 63) 혁신성은 사회적기업이 가진 취약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서 오는 조직 내외부의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강수영, 2013). 하지

상 좋은 공동체로 가려면 차별폐지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Ostrom, 2010). 마을 공동자원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은 마을의 경제 동향을 생성하고, 유지하며, 소멸시키고 해체하는 과정을 겪는다. 한때 바다목장의 미역이 제주의 주산업이었다가, 1968년 부산 기장 미역의 등장으로 주산업이 감귤 산업으로 변화했다(박혜영, 2016). 지리적으로 부챗살 형태로 중산간에서 해안가로, 곳자왈과 오름과 올레가 이어지는 목장과 바다밭 주변으로 감귤나무가 성장하였다. 이를 보존하는 병풍 경관이 돌담의 가치, 동백나무와 삼나무의 가치를 동반하였다. 여러 문화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는 하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장소 상실을 겪은 제주인들에게 문화는 고정된 것일 수 없다(Huh, 2021). 그래서 제주의 특성은 부존자원, 감귤나무, 공동목장, 마을 공동어장이 경제적으로 재현되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는지 고찰해 본다.

2) 사회적경제와 제주

제주의 사회적경제 경험은 제주 가치를 지켜 온 시민활동가들의 빈민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에서 시작한다. 제주에 상존해온 마을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조직 활동, 자연마을의 활동 등이 있다. 현재도 사회적경제와 마을청년회가 함께 마을의 주택개량 사업으로 지붕개량, 모기소독, 도배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읍면 지역으로 가면 더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결합한 청년회 활동, 이보다 더 강한 의무감이 부여된 라이온스 활동 등 단체가 서로 협력하며 마을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3선 국회의원(16, 17, 18대)을 거쳐 2선 도지사(37, 38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씨의 공도 있다. 모두를 위한 경제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모임 회원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으로 도공무원들에게 공유경제(Gold, 2012)와 퀘백 모델(김창진, 2015)을 필독서로 소개했다.

제주는 원래 마을마다 본동 중심의 올레가 있는데 이 곳에는 주로 마을회관, 부녀회관, 노인회관, 청년회관, 마을 운동장, 초등학교, 뱅딧물, 정낭이 있다. 2010년 이후 부쩍 늘어난 이주민 열풍으로 말미암아 지역마다 신올레도 생겼다. 이곳은 징

만 중층결정은 김기섭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중층적 결합 곧 포접(抱接)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구축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를 공생의 사회로 성장시키는 게, 곧 공동체경제의 과제이다(김기섭, 2018:2020)

크판넬로 마감을 한 노출콘크리트 건물이나 옛날 쇠막을 개조한 실내 장식 건축, 이웃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고, 힐링과 사생활을 이루는 몇 세대씩 모여서 지낸다.



[그림 IV-1] 어음리의 구올레와 신올레⁶⁴⁾

그다음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공공 활동의 영역이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제도화 되고 배태되면서 지역발전으로 이어졌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사회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 제주도는 공유공간으로서 농번 기간 몰방애로 일당 대신 서로 노력 봉사(강순원 한살림사무, 2021년 5월 13일 인터뷰), 마을자원 보존 활동(김자경 연구원, 2021년 8월 19일 인터뷰), 수눌음과 월영 전통(제주도 전 기획조정실장 H씨, 2021년 11월 10일 인터뷰), 서로 작업을 도와주며 일당 없이 상호 협동(서귀포시 생활협동조합활동가 Y씨, 2021년 2월 10일 인터뷰)으로 수눌음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행정가와 생활소비자협동조합 시민활동가를 포함 일반 시민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활

64) 한림읍에 속한 리단위 마을들을 참여 관찰 하던 중에 전한림읍장, 현 제주시 환경국장 K씨로부터 부존자원과 향토자원이 풍부한 애월읍 봉성과 어음을 추천받아 이곳을 참여 관찰 하였다. 이 마을의 도로는 뒤에 보게 될 이시돌목장의 수로공사 경로에 포함된다.

성화되었다. 그런데도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이나 행정 능력 문제(손혁상·공석기, 2015; 공석기·임현진 2020), 유능한 제주의 인재들을 고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의 부족도 공존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다(박영규, 2020). 현재까지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유미현, 2017). 인큐베이팅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제주에 정착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상대적으로 제주가 경쟁 면에서 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관광이나 농수산 관련 분야와 연계한 6차산업 분야를 개척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일일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복지 분야나 신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재들이 매칭이 잘 될 때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일도 용이하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 투입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도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대부터 50대~60대 중장년 경력단절까지 공동체 창업을 도전하는 것도 창업 자체보다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로 인식되고 한 번 실직을 당하면 재취업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도 사회적경제 내 연령대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제주의 특수성이 지닌 강점과 개선에도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증되고 재정 지원을 받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큰 문제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아이템과 수익 창출,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 구성보다 구성원들의 결속(주거, 환경, 공유),⁶⁵⁾ 근로자들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는 적극성,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는(허봉선, 2015)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 경제 동향의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의 현안분석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제주도와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내놓은 안건들과 함께, 제주시

65) 예를 들어, 이시돌협회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서 식사와 숙박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주변 초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서로 맡은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시돌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중심으로 98개 법인 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경제 7대 정책의제 과제를 수행하는 지방 자치정부의 실천전략이 있다.

<표 IV-1> 제주 사회적경제 실천전략

제주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실현 계획수립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설치
공공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지속가능성이 보장
사회적경제 시장 기반 조성 및 육성
초·중·고, 청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사회적경제 체험 및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지역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위한 허브(Hub)공간 조성

출처: 제주연구원, 2020

경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국내외의 갖가지 요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경제에 기반이 되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배분, R&D(Research and Development), 시설지원, 마케팅과 판로, 자금 융자도 줄었다. 제주와 같은 협소한 지역은 국내외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시장성 있는 상품 연구개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처해 있는 현실은 기존 지배구조를 장악해 온 시장구조에 맞서기 힘들다. 오히려 자본시장 체제에 순응하며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서영표, 2017).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사회적경제는 저장시설이나 재정 상태의 취약성으로 원재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원가를 낮추거나 물가 변화에 의한 충격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 농업, 관광, 문화 산업에 기반한 제주 소상공인들의 노력은 대기업의 물량 정책, 심지어 하나로마트 같은 협동조합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각주 50 참조). 종합하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부조와 연금 마련,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과 마케팅 전략, 저항 공간 활성화 같은 상생 전략으로 팬데믹과 자본주의에 맞설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복지 예산 감소, 지원 정책의 축소는 인증 사회적경제 영역을 위축시켜 궁극에 가서는 복지와 돌봄 영역의 수혜자

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상실시킨다.

사회적 측면은 마을의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제주 수놓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 주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계층, 실업, 빈곤, 의료,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해결해 온 역사가 있다. 주민들이 결합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경제동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스스로 복지와 돌봄 분야에 동참하여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두레나, 품앗이 등의 상호부조와 협동의 생활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생동적인 경제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Huh·Kwon, 2021).

기술적으로 6차산업이나 융복합산업 등 미래의 먹거리 경쟁에서 제주 사회적경제가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면 차라리 대기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외면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 스마트 물류 유통과 클라우드 펀딩, 인터넷 방송을 통한 동참운동의 촉진, 특히 제주는 기부문화가 강하고(서영숙, 2015), 로컬푸드 같은 미래가치에 대한 의식이 확대·실행되고 있는 부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혁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력은 현재 제주의 가치를 가능케 한 제주의 전통에서 찾아 이를 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전통의 이시돌목장 발전 경험

예나 지금이나 제주경제의 중요 요소인 나눔 문화에 있어 사회적경제 이면에는 공동체경제 모델로 활동해 온 이시돌협회의 사례가 있다. 이시돌협회는 사회 문제를 대안적 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 위에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시돌협회는 1954년에 제주에 온 선교사 패트릭 제임스 맥크린치(1928~2018, Patrick James McGlinchy, 한국명: 임피제)⁶⁶⁾ 신부가 제주의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목축업 육성을 위해 설

66) 본 논문에서는 Patrick James McGlinchey 신부를 맥크린치로 통일.

립한 이시돌목장에서 시작한다. 맥크린치가 사회적경제의 방식으로 운영해 온 재단법인 성이시돌농촌개발협회는 제도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명시되지 않는다(지용승, 2021)⁶⁷⁾.

1) 맥크린치 초기 이시돌목장 사업

맥크린치가 한국에 도착한 때는 1953년 4월 한국 전쟁 중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른 날은 판문점 회담이 열린 2018년 4월이었다. 그가 제주로 오기 전 제주 상황은 제주 인구 1/4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수가 5만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다시 돌아온 사람이 6만 명, 피난민이 15만 명에 이른 때도 있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맥크린치의 고향은 한국의 제주도처럼 유럽의 외딴 섬 아일랜드로서 접경지 문화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후 면에서 제주와 비슷하다. 맥크린치가 선교지 제주에서만 64년을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부록 3 참조). 제주에서 그가 사회적경제를 시작한 일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마을 단위로 잘살아 보려는 운동을 추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의 문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⁶⁸⁾

□ 이시돌협회의 시작과 발전

주민의 니즈를 깊이 들여다보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으며 사회적경제를 키워나간 맥크린치의 사회공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맥크린치의 이시돌협회가 제주에서 사회적경제로 커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상호 간의 협동과 혁신(배성기 외,

67) 맥크린치와 마이클은 이시돌협회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한 자본주의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기업으로 목축업 수익이 사회복지시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설은 신자, 비신자, 부자, 가난한 자 사이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 실제로 지역주민의 자립을 돕고자 사회적경제 모델로 목적사업, 영리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복지사업을 운영해 왔다.

68) 맥크린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H 운동을 통해 가축은행을 실시했지만, 그 가족들은 먹거리와 급전 필요시에 팔아버렸다. 맥크린치가 가르친 사육방법대로 2마리를 가지고 가서 비육이 되면 다시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몬테 디 피에타식의 시도가 실패하였다. 그런데 맥크린치는 양돈목장을 더 크게 만들고 4H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육을 시켰고, 새끼를 낳으면 2마리를 받았다.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인분이 아닌 옥수수를 먹여 비육우를 시키라고 했지만, 옥수수를 팔아 생활에 보태고 돼지도 팔아버렸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성인들도 양돈산업에 초대하였다. 맥크린치는 아이든 성인이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마이클 인터뷰 2021년 11월 25일).

2020)을 심어준 협동조합과 4H 운동⁶⁹⁾이다. 이시돌협회는 일찍이 1957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함께 하였다. 이런 노력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일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한국 사회적경제 활동의 경론의존성과 맥을 같이 한다. 1960년에 한림수직을 시작하였고, 곧 이어 1962년에 이시돌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PVC 수도관이 이시돌목장으로 들어왔고 한림수직사가 시작되었다. 1965년 이시돌목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금악리 주민들이 함께 한 신천신협은 이후 저지와 청수로 넓혀져 서부신협으로, 현재에 와서는 한림신협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 한림에 성이시돌 의원이 설립되어 목포 골롬반 병원에서 엔다 수녀가 와서 제주의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았다. 1976년은 개척 농가 사업이 끝났으며, 이어서 서비스 러닝의 차원에서 아일랜드 수의대학 학생 마이클 죠셉 리어돈(1954~ , Michael Joseph Riordan, 한국명 이어돈 이⁷⁰⁾ 아일랜드 국립 더블린대학의 수의학과 학생으로서 학장의 요청을 받들어 1978년 1월부터 1980년 6월까지 한국의 이시돌목장에 파견되어 2년간 견습하였다. 마이클에게 있어 이시돌목장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맥크린치처럼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씨앗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그는 아일랜드로 돌아가 가톨릭 사제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데 2003년부터는 이시돌에서 금악성당 신부, 2대 이시돌협회 이사장, 이시돌목장의 수의사로 지내고 있다.

이시돌협회는 1983년에 이시돌 노인대학, 1985년에 이시돌 요양원, 1990년에 이시돌 피정의 집, 1994년 이시돌 청소년 젊음의 집이 차례로 완공이 되었으며 2005년 한림수직이 문을 닫았고, 2002년 성이시돌 합창단 설립, 2007년에는 성이시돌 호스피스 복지의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6년에 사회적기업 섬이다와 이시돌협회가 함께 만든 우유부단 카페가 있다. 이를 도표로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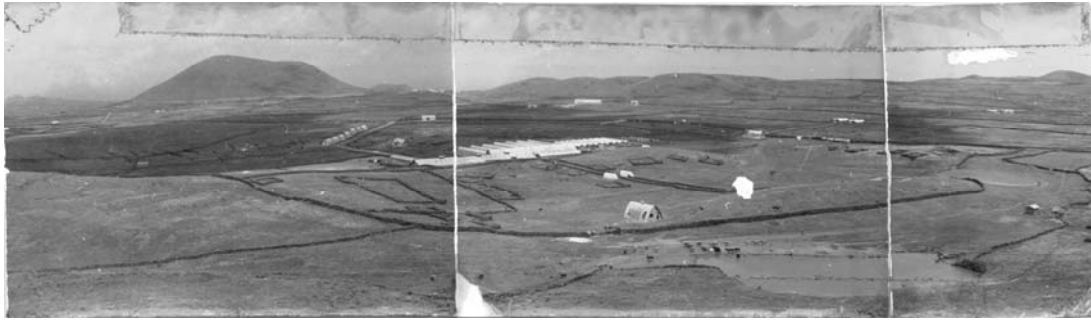
69) 4H 클럽의 상징은 잎마다 H자를 새긴 네 잎 클로버이고, 상징색은 녹색과 흰색이다. 4H Youth Development를 핵심으로 하는 4H 운동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인지적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신체적 발달에 근거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통합능력을 키운다. 4H 회원들은 주로 가축, 작물, 양계, 산림자원, 마케팅, 영농방법의 실습을 배우고 실제로 참여한다. 4H 클럽 운동의 역사는 20세기 초 미국의 농촌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여 1924년경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의 주역을 담당했던 농촌지도층은 대부분 4H 클럽 운동을 통해 육성된 사람들이었다(Oh, et al., 2002).

70) 이하 마이클로 통일함.

<표 IV-2> 이시돌 목장의 사업, 활동

시기	활동명	세부 활동내용	비고
1957년	4H 클럽 조직, 돼지 가축은행 운영	농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4H 단체를 한림성당에 나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 외국 품종 돼지를 4H 회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새끼를 낳으면 2마리 값은 계약	초~고등학생 25명으로 시작
1959년	직조강습소	여성들에게 수직물 교육후 각 가정에서 양모사로 장갑, 양말 등 제작	1990년 한림수직사로 발전, 2005년까지 운영
1961년	이시돌 중앙실습목장 개설	현재의 이시돌목장 부지를 매입, 목야지 조성 개간 작업, 목장내에서 가축관리, 농기구 사용 등 농업기술교육 실시	약 300만평, 직원수 180명으로 당시 제주도청보다 많은 수
1962년	이시돌협회	축산과 목야 개량, 생산물 가공 및 교육, 사회사업 목적으로 운영	비영리 재단법인
	한림신용협동조합 창립	제주에서 첫번째, 전국에서 7번째 신용협동조합 설립, 성당 신자회원에서 한림지역 주민으로 확대	신용조합이 제주도에 자리잡자 일반인에게 이관
1963년	개척농가 조성사업 착수	1963~67년 미국 옥수수 무상원조를 받아, 혈값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축산 토지 약 1천헥타르를 구입, 개간하여 30년 상환 조건으로 분양	가구당 약 3만평 약 98세대 입주, 1976년 완료
1964년	이시돌 배합사료 공장 가동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잉여 옥수수를 이용해 사료 생산 시작, 대규모 양돈업 발달	현재의 이시돌 사료공장
1970년	이시돌의원 개원	한림지역에 의원을 개원하여 극빈자에게 무료진료(당시 무료 60%), 2001년 무료 호스피스 병동 추가하며 이시돌복지의원으로 변경	2007년 이시돌목장으로 이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운영
1972년	농가 종축개량용 소 도입	독일로부터의 원조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650마리 수입	
1973년	양돈 협업농가 조성	양돈사업 참여자를 모집, 기술, 시설, 사료지원과 종돈 분양으로 자립터전 제공	약 200세대
1981년	비육우와 젖소 도입	캐나다에서 600마리 수입, 다음해 호주에서 비육우 870마리, 젖소 156마리, 양 70마리 수입	일부 일반농가에 분양
	이시돌 양로원 개원	농촌 노인복지사업으로 개설하여 무의탁자 무료 수용	요양원으로 변경
1982년	노인학교 개교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개설	
1983년	농가 가축 입식	제주도에서 추천한 무축농가에게 시세의 반가격으로 송아지 분양	200세대에 350마리 분양
1984년	어린이집, 유치원개원	농촌 3개 마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개설	
1985년	치즈가공, 우유가공 공장 운영	이시돌목장에서 생산한 우유 가공, 치즈 생산하여 판매	1991년 제주낙농협회에 이관
2002년	성이시돌합창단 창단	가톨릭 성음악을 중심으로 음악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음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제주교구의 혼성합창단	2004년 펠릭스합창단으로 재창단
2003년	말 사업 추진	경주마를 도입, 마필 육성과 종자마 사업	
2007년	유기 농축산물 인증	초지 유기농산물, 젖소 유기 축산물 국제, 국내 인증, 비육우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	
2016년	고용노동부 인증 우유부단 사업 시작	협회와 섬이다가 순 이익 55:45로 나누어 호스피스 복지 직원 복지에 수익금을 환원/ 임금배당금	

이시돌목장 홈페이지, 양영철(2013), 박재형(2004), 권상철(2015)를 수합하여 연구자 정리



[그림 IV-2] 이시돌목장 일대 (1960년대, 맥크린치 소장)

□ 맥크린치 초창기 인터뷰

나는 제주도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봉사이며 그리스도교 형제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이시돌협회 창립자 맥크린치, 가톨릭사회교리 편).



[그림 IV-3] 맥크린치 사진(1950년, 맥크린치 소장)

□ 2014년 맥크린치 인터뷰

마을 중심으로 정책과 계획을 세워서 큰 규모가 아니라도 자연마을을 아름답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살리고, 옛날 주택, 옛날부터 써 온 말(제주어), 옛날 풍속, 노래,

춤추는 거, 특성 있는 것을 모두 살렸으면 좋겠습니다(2014년 기념사업회).⁷¹⁾

맥크린치에게 제주 주민들은 낮과 밤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근성을 갖춘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온갖 노력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맥크린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고자 했다. 동시에 제주 주민들이 지켜 온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실망하지 않고 기쁘게 협동하는 자세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했다. 맥크린치와 주민들은 앞에서 찾은 20개 사회적경제 사례의 6개의 성공 요인을 이미 60년 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었다. 맥크린치 역시 가난과 질병, 4·3에 대한 기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로 종합되어 온 비영리법인 이시돌협회의 목적사업과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시돌협회의 지속가능성을 참여 관찰코자 다양한 관계자들과 시간 약속을 정해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21년 10월 20일 신축 마을회관, 11월 5일 금요일 백종원 식당 내, 11월 10일 수요일 이시돌협회 내). 금악리를 방문하기 전에 21개 마을을 집대성한 한림읍지 (2016년 발행)에서 한림지역의 역사, 인문, 사회에 관한 마을 특성 중에서 금악리를 선정해서 보았다.⁷²⁾ 최근의 자료와 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현황은 한림읍사무소 홈페이지 금악리사무소 현황을 참고하였다. 이시돌협회 사회적경제를 포착하기위해 연구자가 실시한 문헌연구와 참여 관찰 및 인터뷰 결과를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겠다.

첫 번째로 금악리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을 만났다. 금악은 지형적으로 제주 시에서 서남쪽으로 29킬로미터, 한림읍에서 동쪽으로 해발 230m에 위치하며 동쪽 끝이 뾰족하고 서쪽으로는 부채꼴 형태이다(김자경, 2017b). 면적은 한림읍의 1/3 면적, 농가와 축산농가에 젊은이들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지만, 예전과 같이 활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마을에 비해 부녀회도 딱 하나이다. 지형적으로 본동의 벵딧물 규모는 지금의 2배였지만 도로와 시설물들로 줄어들어 현재는 연못 구실만 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경면에서도 소에게 물을 먹이러 찾아오곤 했다(2021년 10월 20일, 금악리 노인회장 인터뷰).

71) 가톨릭 신부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 주민들의 존경도 뒤따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영역에 가톨릭 신부가 많다(몬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아레스멘디아리아에타 신부, 안티고니시의 지미 톱킨스 신부와 그의 조카 모제스 코디 신부 등). 특히, 가톨릭 신부의 정체성은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가지지 못함으로 가까운 주민들, 이웃들이 가장 큰 형제애, 관계재일 수밖에 없다.

72) 17개 마을로 된 한림읍 인근의 애월읍은 26개 마을, 한경면은 1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장과 2차 만남에서, 이장은 자신이 어렸을 때 본동은 무교와 불교가 강했고, 일부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1/3씩 분포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그중에는 본동 기혜슈퍼 앞으로 저녁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와 모여 있으면 위압감이 생긴다. 그래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림읍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고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운하우스 주민들 때문에 가장 속상하다고 하였다(2021년 11월 5일, 금악리 이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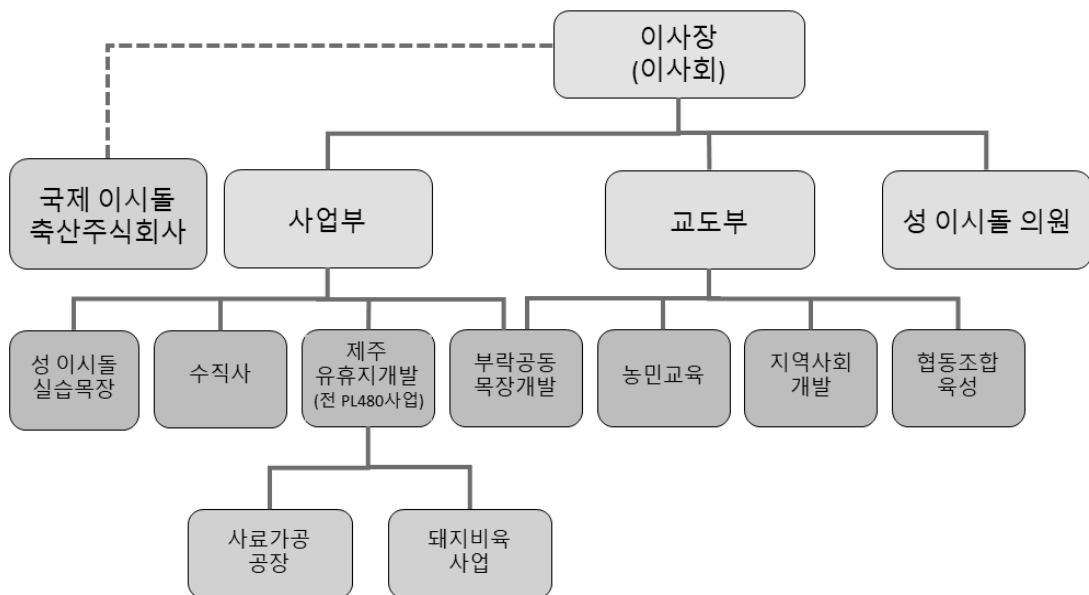
[그림 IV-4] 금악리의 마을 주민 구성(본동 주민, 개척농가 주민, 임시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⁷³⁾

두 번째로 한림읍발전협의회장 겸 초대 맥크린치기념사업회 회장 박승준은 맥크린치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의 역사, 제주 중산간의 황량함이 자신의 고향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맥크린치는 마을 발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에 후원을 많이 했다. 박승준은 맥크린치가 개인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을 때 현금 500만 원을 주며 보태쓰라고 건넨 말과 그동안 이시돌 어린이집이 비어있으니 노인정으로 쓰라는 말에 맥크린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물론 맥크린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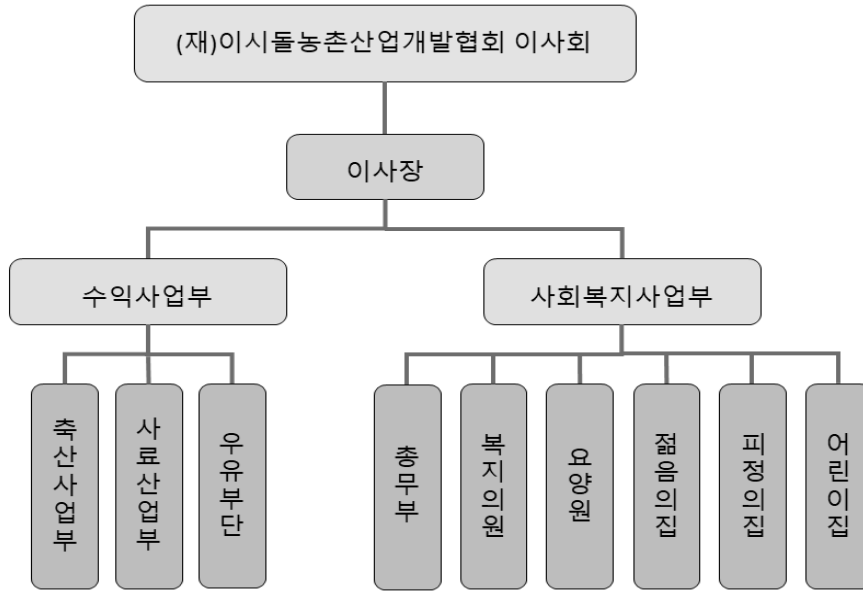
73) 마을주민 구성 구분은 연구자의 의견임. 금악리 구울레: 표시 1번 본동은 구울레이자 마을의 중심지로 금악리사무소, 복지회관, 청년회관, 부녀회관, 노인정, 체육시설, 금악초등학교가 모여 있음

마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새마을금고를 다 찾을 수는 없었지만 라이온스 활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봉사하려는 자세도 보기 좋았다고 하였다(부록 6. 참조). 박승준은 불교 신도지만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로부터 기념사업회장을 맡아도 좋다는 허락에서 기념사업회 일을 시작하였고 맥크린치 사례가 동아시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로 널리 전해지길 소망하고 있다. 이후, 맥크린치와 공적으로 만나면서는 아일랜드어인 게일어, 문화, 정신, 종교, 예술,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제주 사람들도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록 종교적 색채와 노동 분야가 달라 본동과 이시돌이 갈등을 겪어도 서로 협동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이는 마을이 가진 사회적 자본 곧 신뢰와 네트워크로 마을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관계성을 이루며 내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기흥, 2014; 양영철, 2016). 맥크린치의 이시돌협회가 지향한 것은 공동체 마을 비즈니스로 서로 나누고, 신뢰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교육을 우선하는 사회였다. 1977년 당시 이시돌협회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며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돌봄 영역 분야에 성이시돌 의원 하나만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2013년 조직도에는 사회복지사업부가 확연히 많아진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977년>



<2013년>



출처: 양영철(2016) 일부 수정

[그림 IV-5] 1977년, 2013년 이시돌협회 조직도

세 번째, 이시돌협회 마이클 이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맥크린치와 이시돌협회는 180명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주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⁷⁴⁾ 맥크린치가 돌봄이나 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수익을 다시 재창출하는 데 썼다면 이시돌은 정말 큰 기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다. 또, 대출을 받아서 남은 돈이나, 땅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꼭 토지를 샀다. 거기에서 풀을 뜯고 지낼 가축들을 위해서였다. 맥크린치는 무엇보다 말을 좋아했다. 마이클은 이시돌협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이시돌 복지위원의 후원금이 끊이지 않게 후원자들이 돕고 있는 것만 보아도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자본의 힘이 막강해서 대개의 사업체는 쉽게 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시돌협회는 망한 게 아니라, 아직 안 망했다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제주도내 성당들이 미사를 못하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새로 어려운 곳을 후원하지 못하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 호스피스 복지위원 수녀님이 제주도 전체 성당을 돌면서 후원금 요청을 한 게 고스란히 몇 년째 쪽 이어지고 있다. 또 우유부단에서 나오는 손익의 55%가 있어서 호스피스를

74) 이시돌협회가 번창할 당시는 협회 직원이 180명이었으나 현재는 130명 수준이다(2021년 11월 25일, 마이클 인터뷰).

살릴 수 있는게 신기하다. 사료공장도 힘들고, 마산업도 어렵지만 끊이지 않고 후
원금이 들어오는 게 기적이다.

네 번째, 이시돌협회와 우유부단 직원 인터뷰(고용진/가명⁷⁵, 이석범/가명⁷⁶)를
보자. 고용진(가명) 직원은 우유부단의 창립멤버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호기심이
있었고, 직원을 위한 주택이 있다는 것에 무작정 아는 지인과 함께 취직을 하였다.
우유부단의 수익구조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인경 과장, 손중률 부장이 동석하에 토
리비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기억이 난다. 아마 수익은 대부분 호스피스로 가는
것으로 안다. 직원들 6명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아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 계산/주문을 담당하는 사람, 커피를 내리는 사람, 뒷
정리하는 사람 등으로 나뉘었다). 우유부단이 생기기 전까지 카페는 실내 인테리어
만 생각했는데 우유부단을 시작으로 카페 주변의 말, 목초지 등 외부 경관까지 볼
수 있어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왕따나무 아래서 결혼식 사진을 찍는 신혼부부
도 많이 보았다. 금오름이나 본동 백종원 식당은 우유부단과 같은 경관을 열리어덱
터들(early adaptor)에게 선물할 수 없다. 그래서 금방 싫증이 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시돌협회 이석범 직원은 15년 동안 이시돌목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다. 대정읍 지역에서 이시돌목장으로 일자리를 구해 금악 본동에 집을 지었는데 마
을에 쉽게 동화되기 힘들다. 지역 일을 맡고 싶어도 시켜주거나 부르는 사람도 없
고, 제를 지낼 때도 돈을 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다. 게다가 본업이
양돈 쪽 직원이어서 본동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석범씨 자택이 금
오름 근처인데, 최근 부쩍 늘어난 금오름 관광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광산업
의 외주화나 이미지메이킹은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고 하
였다. 더 나아가 금악리 목장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도
이시돌협회는 소를 더 사들이는 게 맞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개척 농가 신부삼, 박용근, 김마태호 인터뷰

맥크린치는 1956년에 신부삼과 4H 운동으로 인연을 맺었고, 신부삼이 군에 다
녀온 뒤에는 해외원조 업무와 협회 일을 책임졌다. 1980년 무렵 양돈 값이 폭락하
여⁷⁷) 모두가 맥크린치를 떠날 때도 맨 먼저 개인 농가로 들어가 양돈업을 하며 이

75) 2016년 5월-11월 근무, 이후 이시돌협회로 이직하여 현재 사무업무를 봄.

76) 이시돌협회에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활동.

시돌협회와 맥크린치를 지켰다. 학생 시절에 받은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박용근은 1962년 아버지 박낙기(1972년 이시돌에서 작고)를 따라 형제들과 제주에 왔으나 적응이 안 돼서 다시 고향 강원도로 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해오던 농장일을 위해 1973년에 다시 들어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김마태호는 서울 모본당의 사무장으로 있던 삼촌이 이시돌 직원을 뽑는 후보 내용을 보고 본인이 오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조카 김마태호에게 양보한 계기로 제주에 오게되었다. 맥크린치는 개척농가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다.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살며 노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 신부삼은 옹포리 양돈가공공장 축협으로 양도, PL480 사업 시작과 끝, 저리담보 대출과 가축은행 등 사업 분야에서 맥크린치를 도왔고, 박용근은 새마을운동과 양돈 단지에서 일하며 개척농가와 주축단지 주민 화합을, 김마태호는 산업이나 농가 일보다는 맥크린치의 교회 내 일들과 가정방문 시 통역, 피정의 집과 이시돌 내 교회건축물 건립과 유지일을 맡았다⁷⁸⁾. 이 세 사람 또한 맥크린치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맥크린치가 약속했던 양돈산업 사이클 30개월~36개월을 믿고 이시돌협회를 떠나지 않았다(2022년 10월 30일 인터뷰).

여섯 번째, 제라딘(Geradine Ryan) 수녀⁷⁹⁾

제라딘은 아일랜드 남부에 있는 리메릭(Co. Rimerick) 출신이며 또래 친구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1966년에 골롬반 수녀원에 입회하였다. 1969년부터 런던에서 간호공부를 하였는데 레이튼(Leyton)이란 작은 읍의 힝스 병원(Whipps Hospital) 실습, 이후 1971년~1974년까지 9개의 병동(forest group)이 있는 성바오로 병원(St. Paul Hospital)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1975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1976년 6월부터 1977년 9월까지 한림 성이시돌 의원에서 근무했고, 한 번 더 1996년~1997년에 성이시돌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를 제외한 50년 세월은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지내왔다.

1976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제라딘의 기억에 의하면 제주 여성들은 여유가 없

77) 신부삼의 증언에 의하면, 삼성은 양돈 40,000두, 이시돌협회는 양돈 23,000두를 정리했다.

78) 이시돌협회는 비영리재단과 병합된 협회이자 유일하게 재단법인 정관 형태로 되어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농수산부에서도 서류를 보며 애로를 토로하는데 실제로 법인의 수익과 비수익의 교환 시 혼재된 정관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사회적경제 체제 안에서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이시돌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79) 2022년 5월 21일 제라딘 수녀 인터뷰, 제주 광양성당.

었다.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위해 일을 했다. 애기를 데리고 밭에도 가고, 가정일도 했다. 남자들은 일본으로 외화벌이를 하러 많이 갔다. 그래서 아일랜드 수녀들이 성당과 마을을 돌며 뜨개질을 가르쳐주면 스웨터, 장갑, 마우라를 짰다. 웨빙은 수직사 내근 직원들이 했다. 로사리아 책임수녀가 음악가여서 굉장히 섬세했고, 사업수완도 좋아 미8군, 모슬포 미군부대를 돌며 수직사의 두꺼운 옷들을 판매했다. 이후로는 한림 매장, 칼호텔 매장, 서울 조선포텔 매장, 그리고 중문 하얏트 호텔 매장까지 입점하였으며, 한림수직 계가 있을 만큼 일반인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다.

일곱 번째, 김종현대표는 연구자가 20회 이상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김대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현은 다른 자문위원들과 달리 한국 최초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격을 지닌 이시돌목장의 설립부터 함께 하였던 아버지 김기성 제주 중앙신협 초대이사장의 손에 이끌려 이시돌목장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우유부단 김종현 대표가 김기성 중앙신협 이사장의 관계에서 사회적경제를 시작했다면 맥크린치는 분명 수의사였던 아버지 패트릭 맥크린치의 영향 아래에 더니걸 협동조합을 구현하며 비영리재단을 운영하였다고 본다.⁸⁰⁾ 그 덕분에 김종현은 이시돌협회와 사회적기업의 협업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꺼냈다. 사회적경제의 양 축인 기업 운영 자체의 안전망 확보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중에 이시돌협회의 주력사업인 경주마 육성으로 사회복지를 잇는 쉬운 방법대신, 김종현은 6차 산업에 신경을 쓰면서 초지 관리를 되짚어 보았다. 그런 다음 이시돌우유를 안정성 있게 수익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우유 카페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 시작은 2011년 천주교 제주교구 K 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은 마이클이 이시돌협회 이사장이 부임하였는데 목장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마이클에게 김종현을 추천했다는 이야기였다. 제주 출신 김종현은 오현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호세마리아 신부가 창업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캐나다의 안티고니시를 시작한 신부들에 관한 책을 접할 때면 이시돌목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하였다. 그런 영향으로 김종현은 2008년

80) Martin과 Gibson-Graham이 함께 정리한 Making other worlds possible의 3장 Performing Economies of Care in a New England Time Bank and Buddhist Community(Karen Werner) 부분 참조.

부터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에 관심이 생겼고, 2011년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인 NXC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로컬푸드 레스토랑 ‘닐모리동동’을 오픈하는 등 로컬푸드 문제에도 관심이 커졌다. 이런 삶의 가치관, 경제관, 좋은 기억은 이시돌목장의 경영 자문으로 참여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 다른 자문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차별화해서 김종현은 혁신적이며, 위험 부담이 적고,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는데 ‘수제 아이스크림 카페’를 목장에 개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시돌목장(150만평) 경영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기농 낙농산업의 위기였다. 최대 면적에 최대 생산량의 유기농 우유목장의 비즈니스 구조는 원유를 생산하고, 이를 제주우유에 납품하면, 제주우유가 이를 살균, 가공하여 하얀우유로 전국 유기농 매장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제한적인 부가가치로 인해 수요가 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돼짓값 폭락, 솟값 폭락, 사룻값 폭락 등을 치즈 생산으로 해결하고, 양모를 수직 산업으로 돌파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시돌의 위기는 곧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시돌목장이 우유 생산 목장이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향상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런 다음 원유 공급 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세우는 순이 되어야 했다. 사람들이 이시돌을 찾아와 우유를 접하게 하는 신산업으로 우유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었지만 회사원인 김종현의 아이디어는 실행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김종현은 2014년도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인 NXC가 운영하던 닐모리동동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인수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섬이다’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닐모리동동의 로컬푸드 아이디어가 실험대에 오르고, 같은 해 2014년 이시돌목장과 본격적으로 ‘수제 아이스크림 카페’ 사업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2015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6월에 ‘우유부단’이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만들어졌다. 이시돌협회가 추구하는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사회복지 시설투자를 위해 우유부단 사업은 사회적기업 섬이다와 비영리법인 이시돌협회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둘을 합친 합작 법인 ‘농업회사법인 토리비아’를 설립했다. 이렇게 이시돌과 토리비아가 만났다.⁸¹⁾ 김종현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잇는 탁월한 혁신성과 창의성

81) 이시돌은 스페인 출신의 농부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토리비아이다. 이시돌과 토리비아는 같이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생활을 했기에 가톨릭교회에서 성인으로 존경

을 가진 기업가였다. 회사 네이밍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섬세함은 제품, 소비자, 회사의 지속성, 직원복지와 사회공헌으로 이어졌다. 김종현은 이에 대해 제주 사회적 기업을 추진함에 앞서 제주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도 5가지 반대급부로 고민하였다.

첫째는 제주다움이 아닌 짝퉁과 모방이 어설피게 제주를 대신하고 있다는 문제였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제주다움 곧 제주만의 고유함(uniqueness)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와 현재 양쪽 모두에게서 어설피게 제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는 과감하게 둘을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제주다움이 너무 고루하여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주는 재미와 놀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제주의 모습이 박제화되어 있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가 찾아야 하는 것은 생동감(vivid)이다. 다섯째는, 제주가 너무 상업적으로 되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따뜻함(warm)이다.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젝트 모델의 실현단계로 5개 요인이 확고하게 정해지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그중에서 로컬푸드는 지역 환원의 성격과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살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대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4가지의 우유부단 경관을 만들어나갔다.

첫째, 유기농 초지 환경이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목축업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전체 면적은 전국의 1.3%에 불과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전국초지의 48.2%가 제주에 있다. 특히 이시돌목장의 초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지 목장이다. 자연적인 수풀에 방목하는 목장이 아닌 근대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수확하여 목장을 운영한 최초의 사례이다. 또한, 가장 넓은 유기농 초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의 초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목장이 경영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매각하게 되고, 매각된 초지는 골프장, 리조트 개발을 통해서 사라진다. 따라서 목장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제주의 초지 역사, 문화, 자연을 지키는 일이다.

두 번째, 이시돌목장의 의미이다. 이시돌목장은 비영리재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경제 모델 중 하나로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해 왔다. 따라서 목장의 경

하고 있다. 특히 이시돌 성인은 농부들의 성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시돌목장의 초대 이사장 맥크린치는 가톨릭을 믿는 농부들의 성인 이시돌이란 이름에 착안하여 목장 이름을 지었다.

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를 지키고, 이시돌목장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로 발전한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이다. 이시돌목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자원에 섬이다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 노동력이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돌목장은 좋은 역사, 자연경관, 원유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섬이다는 브랜드 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제품 개발 능력,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네 번째, 제주 가치이다. 우유부단은 로컬푸드 운동과 제주라는 지역의 가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시돌협회와 섬이다가 가진 확고한 생각은 모든 지역과 마을이 자기들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키워나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시돌의 작은 우유 가게는 오랫동안 개척 농가와 마소가 머물던 테쉬폰 평수 16평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았다.

제주 사회적기업의 비율 0.75%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마을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제주의 생산물, 제주의 역사, 제주의 자연 등 '제주다움'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한국 최초의 사회적경제 모델인 이시돌에서 그 지속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2021년 12월 23일, 김종현 대표 인터뷰, 현해관).

이상 7개의 영역으로부터 이시돌협회 시작과 발전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정리하면, 이시돌목장은 금악리 주민들이 4·3을 겪고 마을로 돌아와 살림을 재건하던 무렵 시작하였다. 이때 외국인에 대한 불신, 양돈사업에 대한 무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마을의 당과 서양 종교 간의 차별성도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았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마을 사람들, 이시돌협회 사람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혼재된 채로 마을의 갈등, 개인 목장의 성패, 농민들의 애환, 시골을 떠나는 젊은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임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래도 주민들은 저마다 마을에 노인정, 노인대학, 양로원, 호스피스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초창기 이시돌 사업이 번창할 때 맥크린치가 계속해서 수익 재창출로 가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며 지역

의 발전이 담보된 데는 공동체경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쇠퇴와 갈등이 남아 있으면서도 공통의 니즈가 발견되고, 이를 해결해 온 전통의 이시돌목장의 경험을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이시돌목장, 협회의 경험

이시돌협회는 사회의 소수(minority)로 결속력이 강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이들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은 이시돌의 경험에 비추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수놓음, 후계자 발굴, 경론의존성으로 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창출

이시돌협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전부터 맥크린치는 화폐나 가축은행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도왔다. 그런 인연으로 미국 운송선 산마태오호가 1954년 용흥리 앞바다에 좌초되어 오도 가도 못 할 때 맥크린치에게서 일자리와 원조 혜택을 받은 이들(한경면 고산~애월읍 귀덕)이 목재 운반을 도와 한림성당 건축의 기초를 놓았다. 현재는 종탑만 경관으로 남아 있다. 맥크린치가 1962년 이시돌협회를 창립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역시 개척 농가는 물론이고 본동 주민들까지 마을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데서 감동을 하여 자신도 크랙서와 트랙터를 손수 운전하며 함께 노동하였다. 맥크린치는 초창기 한림성당 건축, 금악리 마을 조성, 이시돌협회 출범에 마을주민들이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협회 직원 180명)하여 주민들의 가난 문제 해결, 목축업 교육, 장기저금리 토지분양, 가축 및 사료의 외상지원을 해 주었다.

첫 번째로, 맥크린치는 이시돌협회의 시작과 함께 중앙농업실습 목장을 운영하였다. 이시돌 중앙연수원 과정을 마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습득한 선진농업 기술과 자격을 가지고 농업 분야에서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섰다.

두 번째로, 마을주민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득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시작하였고, 대출 시에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가축은행, 한림 신탁, 이후로 양돈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

세 번째로, 맥크린치는 한림에서 자란 한 청소년이 부산 방직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몇 달 만에 죽어서 돌아온 일로 충격을 받고 한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림수직사다. 1963년부터 2005년 폐업할 때까지 많은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었고, 그 수가 많을 때는 1300명에 이르렀다.

네 번째로, 이시돌목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돈을 시작으로, 면양, 젓소, 헤리포드, 비육소, 사료공장, 마산업 등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목장의 일자리 창출에서 나온 수익은 성이시돌 의원을 돕는 일로 지역순환을 시켰다(양영철, 2016).

(2) 수눔음

맥크린치의 수눔음과 계의 재현은 유아원과 유치원, 요양원과 호스피스 설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맥크린치는 제주 수눔음을 아일랜드의 마이힐과 동일시하였다. 아일랜드 사전에 나오는 마이힐(Meitheal,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대해 각자가 응답하는 공동체 정신을 전달하는데⁸²⁾ 현대의 경우에는 서로 도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음식과 음료를 서로 나누어가며 각자의 집이나 밭을 가꾸는 일을 도울 수 있다. 제주는 어려울 때 음식을 나누었고 바쁠 때 서로 도우며 수눔래 다니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다. 수눔음과 마이힐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호혜적인 마음으로 도우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수눔음은 복지 활동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유아원과 유치원이다. 맥크린치는 농촌 마을에서 유아원(이후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건립하고 유지하려고 목적 사업을 하였다. 그가 보기에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밭으로 가고, 아기가 아프면 일을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맥크린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부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며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에 개원한 유치원이며 이외에도 금악국민학교를 자주 찾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지원하였다(박영규, 2020).

82)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교의 손 폴리(Sean Foley) 교수가 이시돌목장의 치즈공장 설립을 도운 일이다. 폴리 교수는 이 당시 자신의 작업을 마이힐(Meitheal)로 표현했다(제라딘 인터뷰, 2022. 8. 24.).

두 번째는 요양원이다. 맥크린치는 생명 존중과 인간에 대한 배려심을 선의로 생각하며 살았다. 농촌에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고독사, 제주에 여행 와서 노인을 두고 떠나는 사건 등을 통해 국가와 시민조직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요양원을 지었다. 위에서 보았던 유치원의 예처럼 가족 중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고 혼자서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마을에 요양원이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노동력을 가진 자녀들 가족은 마음껏 노동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양원의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다. 가톨릭 신자들 몇몇 사람에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말벗이 되어주는 일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에는 개척 농가의 가족들이 할머니 한 사람씩 맡아서 가족처럼 서로 멘토-멘티의 관계를 만들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한계가 보이자 아주 작은 규모의 자체 사업으로 요양원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수가 100명 규모로 커질 무렵, 북제주군 고(故) 신철주 군수가 맥크린치를 찾아와 북제주군에 요양원으로 등록되도록 신청만 하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맥크린치는 행정업무(paper work)는 요양원 본연의 노동시간을 뒤로 미루게 할 것을 뻔히 알았다.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맥크린치는 북제주군의 요청을 수락했다.

세 번째는 호스피스 이시돌 복지의원이다. 맥크린치는 마을에 수도와 전기, 도로 포장과 전화 등의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다 말기 암에 걸린 환자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맥크린치는 행여 환자의 마음이 상할 수도, 부모를 요양원이나 호스피스에 맡기는 것을 꺼리는 자녀들의 걱정도, 병치레로 돈 걱정을 하는 일도 잘 알고 있었다. 호스피스는 이시돌 전체로 하는 목적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곳이다. 대형병원의 호스피스와 달리 이시돌 복지의원은 자신이 쓰던 물건들로 방을 채울 수 있는 가정용 호스피스이다. 집이라는 장소와 일상적인 삶이 느껴지는 공간이다(Yi-Fu Tuan, 2020). 종교도 빈부의 차도 상관없이 없는 곳이다. 전액 무료로 유지되는 곳이다. 맥크린치가 시작한 이 세 가지 사업 유아원/유치원, 요양원, 호스피스는 이시돌협회의 수익사업으로 유지가 된다. 이 와중에 주민 간의 갈등이 극복되고, 상호호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창출된다. 이렇게 맥크린치는 마을과, 주민과, 자연과 소통을 통해 암묵지를 교환하며 혁신을 창출해 나갔다(Linge and Knaap, 1989; Zamagni and Zamagni, 2012). 이렇게 맥크린치의 수놓음은 다음과 같은 정방향

으로 진행됐다.

의식주의 해결 ———> 소속감의 해결 ———>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⁸³⁾

(3) 후계자 발굴과 경로의존성

이시돌협회의 주산업은 이시돌목장과 마산업이다. 종마 육성은 아일랜드에서 온 수의사 리차드(Richard Throughton)가 담당하고 있다.⁸⁴⁾ 이시돌목장 마산업의 배경 뒤에 있는 아일랜드의 역사와 제주의 역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제주에서 65년을 살았던 맥크린치와 40년을 살고 있는 마이클이 이시돌협회를 일구고 후계자가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다음으로 이시돌협회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가들 가운데 목포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있는 제라딘 수녀, 김기성 중앙신협 초대이사장의 아들 김종현이 있다. 또한, 한림수직사에서 일을 하였던 1300명 여성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최영열씨의 어머니(K씨, 82세)도 있다. 최근에 이시돌목장 초지를 함께 연구하는 한살림노형의 강순원 상무도 맥크린치의 사업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마이클 이사장, 섬이다 김종현 대표,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 강순원 한살림상무를 통해 이시돌의 정신이 공동체 경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생물처럼 흥망성쇠를 하며 실패와 좌절의 어려움이 크고, 온갖 비리로부터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가격 경쟁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어쩌면 맥크린치와 마이클 두 가톨릭 신부는 이시돌협회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모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그중 한 사람이 이시돌협회 앞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김종현이다. 맥크린치는 제주에 와서 수눌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복지혜택을 마련했으나 밀려드는 자본주의의 힘 앞에서 개인적인 저항 대신 제주를 잘 알면서 사회적경제를

83) 이 과정을 통해 사회 저변 계층이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함께 동반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맥크린치는 고독사나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면서 임종을 맡기 전후, 장례까지 이루어지는 이시돌 가족 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주민들은 이시돌협회가 맡기 암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초대할 일에 대해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84) 이시돌의 마산업은 이시돌협회의 주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시돌목장 목장장은 북아일랜드 출신 리차드로 개인 마산업을 하면서 목장장을 대행하는 위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수의사인 이시돌협회 이사장 마이클이 보다 전문적으로 말들의 상태를 하루하루 확인한다.

하는 이들과 함께 이시돌협회를 지속시켜 왔다. 맥크린치가 보여준 모범은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다.

경로의존성은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제도가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나타나는 제도적 연속성(institutional continuity)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이나연, 2020). 이 개념 안에는 재생산, 자기 강화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서 맥크린치의 사업 배경을 기술할 때 긍정적인 나래이티브로 도움이 된다. 맥크린치가 운영한 사업 중에는 아일랜드 방식이 혼합된 의료사업, 협동조합, 생태관광, 한림수직 등이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아쉽게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맥크린치를 논의한 분야에는 종교적인 봉사(양창조, 2012), 사회복지(권은진, 2014), 교육(김경주, 2022), 테쉬폰 건축(이용규, 2022) 등 여러 시각이 있었다. 연구자는 좀 더 나아가 이시돌 사업에 숨어있는 아일랜드인 맥크린치의 정체성에서 경로의존성 부분을 덧붙이고 싶다(허찬란, 2022). 또한, 이 과정은 비영리재단으로서 이시돌협회가 성장해 온 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인 인증제도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의료는 공공성을 위한 자활사업, 다음으로 협동조합, 교육과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한림수직은 지역사회공헌 마을기업이 된다.

<표 IV-3> 지역에서 시작하는 테스트 베드의 효시

사업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로 검토	아일랜드 더니걸의 경로의존과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 비교
의료사업	자활기업 (취약계층대상)	더니걸 호스피스에서 생을 정리한 맥크린치의 누이 조(Jo ⁸⁵)의 사례; 한림에 병원이 많아지자 엔다는 방문 의료, 재가 의료, 호스피스로 전환.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립)	이스라엘 키부츠, 캐나다 안티코니시, 대만의 농업 정책 같은 다양한 조합에 관심. 하지만, 맥크린치의 협동조합 핵심은 더니걸 협동조합.
피정의집·여행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아일랜드인들은 젊은이가 떠난 농가의 방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며 생계유지. 맥크린치는 개인 농장주들에 권하고, 본인도 이를 실행함.
한림수직	마을기업 (지역사회공헌)	한림수직 책임자 로사리아 수녀는 고향 마요주(州)의 폭스포드 수직사에서 근무: 폭스포드의 아란 무늬 기술을 한림수직사에 접목시킴.

85) Jo는 Josephine의 약자. 한글 표기 Jo 뒤에 중괄호로 Jo를 붙여 Jo(Jo)라고 쓰는 이유는, 남성형 Joseph의 약자인 Joe와 헷갈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영문스펠링을 표기함.

지금까지 연구자가 전개한 이시돌협회의 경험으로 일자리, 수놓음, 후계자 발굴에 더해 맥크린치 개인의 성향, 제주의 문화 수용, 자신이 걸어온 길 모두를 종합해서 그의 사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을 도출해 보았다. 그가 1954년 제주로 오면서 자신은 버렸으나, 자신 안에 배태된 경험은 이시돌협회의 성장에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그는 제주의 니즈를 일회성이 아닌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했다. 사회적경제 지도자들이 놓치는 덕목이다. 제주의 특성으로 제주도는 바다를 경계로 하며 다른 지역과 여러 면에서 다른데 변방의 섬이라 더 강하다. 따라서 제주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니즈였다. 이에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서로 협동하며 살 때 가장 합리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맥크린치는 소자(Edward Soja)가 말하는 제2 공간과 제3 공간의 차이(Soja, 1996), 외부인의 의미 부여와 내부인의 삶을 역동적인 실체로 생산하는 공간(Lefebvre, 1991)을 경론의존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 위에 자신이 자라 온 경로와 제주의 삶을 접목하며, 수익 창출 못지않게 사회적 자본을 쌓아왔다.⁸⁶⁾

첫째, 더니걸(Donegal) 호스피스이다. 이곳은 맥크린치의 누이 쇼가 죽는 날까지 머물던 곳이다. 쇼는 평생 더니걸 주교좌성당의 파이프오르가니스트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말기 암으로 고생하다 2010년 6월 5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침대 등 사용하던 개인 물건들을 더니걸 호스피스로 가져와 생활하였다. 맥크린치는 누이의 호스피스 생활을 보면서 이시돌협회도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를 짓기로 하였다. 꽃을 사랑하였던 쇼는 일절 조의금을 받지 않았지만 들어온 소액의 조의금은 모두 더니걸 호스피스에 기부하였다.⁸⁷⁾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마을의 대성당 오르간 반주자를 기리며 더니걸 군 전체가 애도를 표했다. 맥크린치와 마이클 두 신부의 바람은 말기 암 환자도 최상의 인간다운 삶으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의료인들, 간호사와 간병인들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의식을 성숙하게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집과 같이 편안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되면서 암 말기 환자에 대한 예우

86)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각 요소의 특징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한다(강권오, 2021).

87) <https://rip.ie/death-notice/josephine-jo-mcglinchey-letterkenny-donegal/107768>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가 지켜지고 있다.

둘째, 더니걸 협동조합 사례이다. 맥크린치는 자신과 동향인이자 더니걸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있는 팻 더콕 갤로거(Pat 'the Cope' Gallagher)와 가깝게 지내며 협동조합을 실천하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⁸⁸⁾ 시작된 협동조합을 하는 가문임을 분명하게 하려고 미들 네임에 더콕(the cope)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인이자 정치인(아일랜드 의회인 Oireachtas 하원의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ember of Parliament)의 유명세에 더해 자신의 아내 앤 길레스피(Ann Gillespie)와 처제 아이블린(Eibhlin)은 IRA(아일랜드공화국 군인) 음모에 가담 및 폭발 혐의로 15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간 복역했다.⁸⁹⁾ 정치·경제적으로 유명한 팻 더콕 갤로거 가문이 번창시킨 협동조합 중에는 1906년 웨스트 로시언(West Lothian)이 더니걸로 돌아와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템프레크론 지역 협동조합 (the Templecrone Co-operative Society), 신용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웨스트 칼더 협동조합(the West Calder Co-op)이 있다. 팻 더콕 갤로거는 2010년까지 이시돌협회의 맥크린치를 방문하여 친분을 이었는데 이들은 더니걸 협동조합에 대해 깊이 대화하곤 하였다(2021년 12월 16일, 마이클 인터뷰 중). 맥크린치의 아버지 패트릭 맥크린치는 협동조합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맥크린치 또한 조합 운동을 번성시켰다.⁹⁰⁾ 조합의 성공은 개척 농가와 개인농장, 주축 단지 중심으로 수놓으며 주민들끼리 상호의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당시 개척 농가 특성은 표VI-4와 같다. 여기에는 가톨릭 종교가 아닌 8가구가 있고, 육지부에서 이적해 온 9가구도 있어 이시돌의 포용성을 보여준다. 조합 운동과 이시돌 주민의 결속은 금악 마을로 이주해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사업기반과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조합이 번성해지자 이들은 한림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곤란에 빠지기도 했다.⁹¹⁾

88) 팻 더콕 갤로거의 할아버지 패디 갤로거(Paddy Gallaher)는 오랜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아사와 전염병으로 죽고 일부는 유럽과 미국에 이민하였던 시대에 살았다. 패디 갤로거는 당시 몹시 가난했던 어려움을 타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갤로거 가문에 대한 자료들은 Joyce Bellamy가 집필한 Labour Biography 사전편을 참고하기 바람.

89) <https://www.irishtimes.com/news/politics/oireachtas/profile-pat-the-cope-gallagher-ff-1.2554130>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90) 면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치금 3500만 원을 보유하였다(1972년 6월 11일 가톨릭시보).

91) 한림 신협은 이주자들에 대한 텃세로 보증인은 개척 농가와 주축 단지 사람들끼리 설 수 없고, 반드시 한림 사람 한 명을 세워야 할 정도였다(박상만/가명 인터뷰 중).

<표 IV-4> 금악 개척농가 지역 세대주(가명) 및 가족사항

구분	농가호수	세대주명	종교	가족수	고향	비고
1	1호	김성찬	가톨릭	7	한림수원	
2	2호	양광식		4	한림 옹포	
3	3호	홍근형	가톨릭	7	애월 귀덕	
4	4호	박진형	가톨릭	8	전남 순천	
5	5호	신성근	가톨릭	5	광주직할시	
6	6호	김인식	가톨릭	5	광주직할시	
7	7호	양선주	가톨릭	8	한경 조수	
8	8호	김철성	가톨릭	8	강원도	
9	9호	박인환	가톨릭	7	강원도	
10	10호	라건민		2	모슬포	
11	11호	전영철	가톨릭	3	충청도	
12	12호	이용철	가톨릭	8	한림 옹포	
13	13호	김선옥		4	한림 옹포	
14	17호	라인경		5	모슬포	
15	20호	이동섭		6		임시거주
16	22호	홍춘화	가톨릭	8	한림 금악	
17	1-1호	김지환	가톨릭	4	애월 귀덕	
18	2-1호	김용수		2		임시거주
19	8-1호	구자경	가톨릭		경상도	임시거주
20	9-1호	김선출	가톨릭	4	강원도	임시거주
21	10-호	홍경식	가톨릭	5	한림	
22	12-1호	성영기		4	서울특별시	
23	13-1호	고태하		5	모슬포	
24	24호	고경순	가톨릭	3	한림	
25	25호	양하윤	가톨릭	3	한림 옹포	

출처: 대농민교도사업종합보고서, 1979

셋째, 게스트하우스와 피정의 집이다.⁹²⁾ 1980년대 초, 이시돌협회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개척 농가와 개인 농장주들 가운데 일부가 남아 양돈 개인농장을 운영하였다. 맥크린치는 1980년대 중반 농장주들에게 게스트하우스를 권했다.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해서 생활해 나갔으며, 누이가 이시돌을 찾을 때마다 땅은 넓고, 자

92) 피정(避靜)은 피세정념(避世靜念)의 줄임말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머무르며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지내는 일을 말하며, 피정을 할 수 있는 성당이나 수도원을 피정의 집이라고 부른다.

녀는 도시로 떠나고, 방은 비었으니 주민들로 하여금 며칠씩 와서 지내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도록 동생 맥크린치를 종용했다. 맥크린치 자신도 1990년 관광사업에 교육과 생태를 접목해서 이시돌 피정의 집과 생태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시돌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 목상과 다크히스토리가 결합된 생태관광으로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힐링을 맛보았는데, 오늘까지 이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다.

넷째, 아란 무니 폭스포드 수직사이다. 1954년 제주 한림 본당신부로 발을 디딘 맥크린치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H 운동, 가축은행을 운영하다 7년째 되던 해인 1960년,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어 고향 아일랜드로 떠났다. 맥크린치는 고향 더니걸의 가족과 이웃들, 골롬반여자수녀회 본부가 있던 수도 더블린 근교 위클로우(Wicklow)를 찾았다. 그 이유는 면양사업의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로사리아 수녀(?~2015. Mary Rosarii McTigue, 바이올리니스트)는 아일랜드 최고의 수직사(Handweaver)가 있는 마요 주(Mayo) 출신이며, 수녀원 입회 전에는 이 최고의 수직사 폭스포드(Foxfrod)의 기술자로 근무했다. 그녀가 수녀원에 입회했을 때 그녀의 음악성을 알아본 원장 수녀는 그녀를 음악대학에서 현악기 전공을 시켰고 졸업하여 수녀원 본원에서 전례를 맡기고 있었다.

맥크린치는 위클로우에 있는 본원의 원장 수녀에게 간곡히 부탁한 결과 로사리아 수녀는 제주 이시돌로 오게 되었고 한림수직사 책임 소임을 다할 때까지 제주 한림에 머물렀다.⁹³⁾ 그렇게 로사리아 수녀를 비롯해 1963년 초창기 그룹이 한림에 왔다.⁹⁴⁾

맥크린치는 곧바로 면양 및 소와 말들이 이시돌목장 내에서 쉽게 물을 마실 수 있게 수로를 만들었다. 현재의 엘리시안 골프장 뒤쪽 초지가 조성된 곳에서 남쪽으

93) 로사리아 수녀의 한림수직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면, 나와 엔다 수녀는 같은 마요 주 출신인데, 그녀는 의학을 전공하여 의사가 되었고, 나는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마요 주에 있는 폭스포드 수직사의 직원으로 공장에서 면양 직조를 하였다.

<https://www.columbansisters.org/the-story-of-my-hallim-mission-part-i,ii,iii>. 2021년 1월 11일.

94) 1961년 맥크린치의 요청에 의해 제주로 오기로 결심한 수녀들은 1962년, 안식년을 마친 맥크린치와 함께 8월 24일에 한림에 도착하였고 평생 병원과 수직사 일을 하다 2005년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그들 가운데 로사리아와 엔다(Mary Rosarii McTigue and Mary Enda Staunton, Co. Mayo)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고, 필루미나(Philomena O'Sullivan, Co. Cork), 브리드(Brid Kenny, Co. Clare), 레지스(Regis Smith)는 위클로우 요양원에 있으며, 이후 합류한 제라딘은 목포에서 소임을 계속하고 있다(2022년 10월 22일, 제라딘 인터뷰).

로 쪽 이어진 상개리 목장에 있는 흙 골에서 수도를 끌어왔다. 주민들에게 노동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었다. 주민들의 상환금을 깎아주고, 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노동을 함께 하였다. 봄부터 겨울까지 흙골에서 시작된 PVC수로 작업은 성공을 거두었고 면양도 최고의 면을 한림수직에 선물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시들 목장의 PVC 수로가 완성되었고 점차 개인농장 전체에 공급되었다.

이상 네 가지로 아일랜드 더니걸의 경로의존과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3) 이시들의 경험과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시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후계자 발굴은 성공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경험도 교훈이 될 수 있다.

깁슨-그레엄의 빙산 모델의 수면 아랫부분에서 활동하는 비가시권의 경제 동향을 추적해 온 루빅, 마리아와 베로니카, 깁슨-그레엄이 헤쳐나갔던 어려움에 비해 기대되는 성과가 큰 것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보람과 가치 때문이었다. 이시들목장의 사례에서 보인 실패 사례는 수많은 소송에서 이시들협회의 패소, 이시들협회를 퇴사한 직원들의 이시들협회 고소, 대기업에 토지 매매, 금약 본동 주민들과 끊임 없는 마찰, 성이시들 의원의 철수, 한림수직사 폐업, 양돈조합 폐업, 이시들 치즈공장 양도, 옹포리 양돈 가공공장 양도, 최근 은총의 동산 조각작품 사기사건까지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실패가 계속 이어졌다.⁹⁵⁾ 맥크린치는 그 많은 실패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 온 3개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와 돌봄 사업을 수행하였다. 자본주의는 이시들협회의 자원과 인력, 토지를 잠식하였고 이시들협회는 비자본주의 영역에서 이시들 유치원, 이시들 요양원, 이시들 복지의원을 지켜냈다.

95) 신문에 보도된 이시들협회의 시행착오와 관련된 주요사건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 1월 19일 제주신문, 이시들협회가 금약리 402-1번지 도로점유 보도; 1979년 11월 30일 교도부 보고서, 금약리 본동과 이시들 주민간 대립 보고; 1979년 겨울, 이시들 교도부와 인명피해, 이시들 우마가 동광리 일대에서 풀을 뜯어먹다 고소당해 이시들협회 패소(동광리주민 오철신/가명); 1981년 3월 5일 제주신문, 82개 제주 내 법인 중 제주은행의 손익이 +11억 6천 8백 만 원인데 반해 가장 손실이 큰 데는 양돈 파동에 타격을 입은 이시들협회로 -4억 7백 만 원이었다; 1982년 11월 25일 경향신문, 전직 이시들협회 직원들이 이시들 육우 불법분양 고발; 1988년 11월 15일, 이시들 우유 품목 허가와 이후 낙협으로 양도(치즈공장 양도는 개척 농가들 편에서는 아주 충격적이었음, 이성준/가명 인터뷰) 등을 들 수 있다.

이시돌협회 초창기부터 맥크린치가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주축 단지와 개인농장 역시 주산업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다.⁹⁶⁾ 맥크린치는 실패를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기술로 경청과 능숙한 제주어를 통한 소통으로 위기를 타개해 왔다. 맥크린치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지역 우선의 법칙이 있었다. 갈등 관리와 경영위기에서 마을자원을 돌려주어야 할 때와 장소를 식별했다. 이시돌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실제이기에 경쟁과 수익구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관을 통한 양도, 개인 농장주들에게 사업을 이관, 돌봄 영역의 확대로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었다. 한 때 금악리를 중심으로 상명, 저지, 청수, 광평, 솔도, 동광, 서광 8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시돌목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지만, 이시돌협회는 자신들이 시작한 양돈 분야에서 양돈 가공공장은 축협으로, 양돈산업은 이시돌 개인농장들에 양도하였고, 교도부 건물 화재가 이어져 장소마저 소실되었을지언정 공동체가 지켜온 관계성마저 소실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부 건물은 생태관광 이시돌 피정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번성하였다.

연구자는 금악리 노인회와 부녀회, 이장과 한림읍발전협의회회장 인터뷰에서 여전히 가지지 않은 이시돌협회와의 양금이 보일 만큼 금악 본동과 이시돌의 관계가 서먹하게 이어져 왔어도, 맥크린치는 지역 공간을 의료시설, 문화시설, 돌봄시설, 복지시설로 변형시켰음을 보았다. 맥크린치의 고질적인 걱정은 축산업을 하는 윗마을과 농업을 하는 아랫마을 사이의 경제적 차이였다. 주축 단지와 개척 농가와 개인농장의 축산업 가구들이 모여 금악2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데서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 간의 골을 이해할 수 있었다(개척농가 김태선씨/가명 인터뷰, 2022년 10월 30일). 이 두 그룹 가운데에서 맥크린치는 제주어를 사용하고, 장소애를 강조하며 지역 기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협동과 결속의 길을 걸었다.

96) 정부는 양돈을 먼저 지시하였고 나중에는 젓소로, 그러다가 또다시 양돈으로 교체 명령을 내렸다. 양돈 농가로 불하받은 주축단지도 웃단지와 아랫단지로 구분이 되어 돼지와 젓소를 번갈아가며 키웠다(김태선씨/가명 인터뷰).



[그림 IV-6] 이시돌협회 발전과정의 거주지역 분포

3.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 전통과 현대

1) 전통의 이시돌 사회적경제의 특징

이시돌 사례를 제주형 사회적경제로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시돌협회 생산 네트워크는 성이시돌실습목장과 교도부를 거버넌스로 활용하며 이시돌의 성장을 도왔다. 이 기간, 거버넌스를 통한 관계재의 형성은 기업과 농촌교육학습소, 전문가 그룹, 공무원, 각종 서비스와 복지혜택의 연계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사회적 자원은 시민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 가운데 필요도가 높고 대체성이 낮은 것을 공적 내지는 사회적 매커니즘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다(弘文, 2019).

둘째, 사회적경제에서 수익 창출은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데, 목축업을 위한 토양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이를 유지 개선해 나갔다. 사회적기업 지도자로서 맥크

린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이시돌에 초대하였다.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이시돌 토양의 혁신, 양돈사업의 번창, 면양사업의 성공, 외국산 젓소⁹⁷⁾ 산업의 정착, 협동조합의 저변 확대는 한림과 이시돌을 브랜드화하였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기술을 혁신시켰고, 개발된 기술은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환하였다. 맥크린치는 4H 운동을 하며 양돈사업을 생각했으며, 이시돌목장을 만들며 한림수직을 생각했고, 젓소사업을 하며 치즈 사업을 생각했으며, 이시돌 의원을 하며 호스피스를 계획하는 사업가로서 창의적인 장점을 가졌다. 맥크린치가 사업가로서의 창의성과 혁신을 키워온 데는 섬세하고 철저한 창업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화와 유한한 서비스, 난해한 생산과정과 분배 및 유통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그의 섬세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이끌었다. 먼저, 맥크린치의 조카이자 아일랜드 타임즈 스포츠 담당기자로 유명한 매리 해니건(Mary Hannigan)의 저널 덕분에 맥크린치의 섬세함을 볼 수 있다.⁹⁸⁾ 해니건은 삼촌인 맥크린치가 더블린에 살던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억한다. 고향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제주에서 사목하는 삼촌은 오로지 이시돌 직원들 생각밖에 없었다. 해니건은 삼촌 맥크린치가 직원들에게 줄 철제농기계를 사려고 독일까지 가는 이유가 궁금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해니건의 어머니는 “맥크린치 삼촌 신부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업가시란다.⁹⁹⁾ 어떤 일이든 시작만 하면 가능한 쪽으로 성사되도록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어려운 일을 풀어나갈 때는 정말 유쾌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 덕분에 지금도 독일산 철제농기계를 구하러 독일까지 가고 있잖니”라고 하였다.¹⁰⁰⁾ 그다음으로, 맥크린치가 1960년에 안식년을 맞아 고향 더니걸을 방문해서 동생 팀과 함께 지낼 당시 맥크린치와 팀은 직접 집 앞마당에 테쉬폰¹⁰¹⁾을 지

97) 이시돌 목장을 비롯한 젓소농장이 외국산 젓소를 처음 들여왔을 때 풀을 뜯어 먹다 고착증(tympanites)에 걸려 대부분의 소가 죽었다. 소 안의 백혈구가 적혈구보다 많은 소 백혈병이다.

98) <https://www.irishtimes.com/profile/mary-hannigan-7.1837428>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99) 맥크린치는 1954년 한림읍 용흥리 앞바다에 좌초된 산마태오호의 좋은 목재로 한림성당 신축을 시작으로, 골롬반 수녀원, 한림수직사, 양돈장, 낙농가옥, 착유장, 복지의원, 요양원 신축, 사택신축, 젊음의 집 건축, 피정의 집과 이시돌 여행사, 글라라 성당, 삼피소, 십자가의 길, 은총의 동산, 우유부단 등 해마다 신축을 이어왔다.

<https://blog.naver.com/kohj007/222106245052> 검색일 2021년 4월 8일.

100)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people/entrepreneurial-donegal-priest-who-achieved-national-celebrity-in-korea-1.3483137> 검색일 2021년 12월 10일.

101) 테쉬폰 Cieshphon: 이라크 바그다드 가까운 곳에 Cieshphon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건축물의 기원을 찾을 수 있기에 이러한 양식의 건물을 테쉬폰(Cieshphon)이라 한다. 그곳에는 지금도 약 2000년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사한 형태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거센 태풍과 지진에서 그 형태가 온전히 유지된 비결은 곡선형으로 연결된 쇠사슬형태의 구

어 거기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맥크린치의 섬세한 준비를 통해 더니걸 보다는 바람도 약하고, 덜 황량한 제주 서부의 초원에 테쉬폰이 여러모로 쓰일 거라는 확신을 하였고 이시돌로 돌아와 본격적인 테쉬폰 건축을 시작하였다. 테쉬폰의 본래 용도는 1970년대 초 가난한 노동자, 빈약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Jones, 1979).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이시돌목장 초지를 연구한 뉴질랜드인 조지 홈즈(George Homes), 더블린 내 명문 트리니티 대학의 치즈 전문가 손 폴리(Sean Foley), 아일랜드 출신 엔다 수녀와 로사리아 수녀, 이시돌협회 마이클, 사회적경제 지도자 김종현 등이 이시돌에 상주하며 이시돌 지역개발에 협력하였다. 특히 맥크린치는 토지 전문가 홈즈의 고견을 듣기 위해 이시돌 사제관에서 3개월간 함께 지내며 뉴질랜드산 목초를 선정하여 7만7천 톤을 가져와 개량 초지 작업을 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안정맞춤인 축산업으로 헤리퍼드를 들여와 성공을 거두었다¹⁰²⁾.

셋째, 네트워크와 혁신에 이어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이다. 맥크린치는 유기적인 협동조합으로 서로 자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었고, 수익 창출 시스템을 철저히 지역 복지로 환원하였다. 이시돌협회는 직원들이 이시돌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아파트, 대형식당, 오락 시설, 주거 단지와 병원이 들어서 있다. 다양한 기업과 복지기관이 집적된 공간(이혜은 외, 2005)으로서 이시돌협회는 직원들이 평생 머무는 장소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는 강제하지 않은 자유이다. 푸코는 시민사회가 최대한 제한없이 작동하게 하는 목적으로 자유는 재구성된다고 하였다(푸코, 2008). 이시돌협회는 경쟁이 아닌 협력, 지역과의 상생, 공익을 위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자본주의 시장의 언어가 아닌 연대, 호혜, 신뢰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서 사회적경제는 평등한 시민들의 자립을 이루며, 시장원리보다 더 호혜적인 공동체경제를 건설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보다 철저히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지

조에 있다. 이곳 이시돌에는 1961년도에 처음 목장의 숙소로 사용키 위해 건축되었고 이후 조금 작은 크기로 제작해 돈사로도 사용했으며 1963년에는 사료공장, 1965년에는 성당 건축물(협재성당)로도 활용되었다(우유부단 경관 내 표지판 참조). 현재 남아있는 테쉬폰 건축물은 금악리 5곳, 선흘리 4곳, 월평동 4곳, 동광리 1곳, 귀덕리 1곳 등 모두 15곳이다.

102) 조지 홈즈는 1969년 3월~5월 두 달 동안 맥크린치 사제관에 기거하며 한림 해안에서 시작해 해발 50미터 고지 단위로 현재의 이시돌목장이 있는 380미터 고지까지 씨를 파종하면서 실험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에는 고지마다 알맞은 씨앗 이름, 파종 방법, 파종 일시, 비료 종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 다음 맥크린치는 홈즈 보고서대로 뉴질랜드에 목초 씨를 주문하여 파종하는 달에 맞춰 씨를 뿌렸다(양영철, 2016).

고 비자본주의의 언어와 담론을 실행해 나갈 때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런 담론은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원,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의 사회적 가치, 유아와 어린이, 농업교육과 개척농가 양돈교육 등을 통한 공공성 실현, 근린지구 공동체 곧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며 소속감, 공통의 정체성, 상호부조, 공통의 역사로 주민들에게 배태된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한다.

(1) 공동체

이시돌협회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확대하고 지속시켜왔다. 여기에는 공동체의 결속,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마을자원의 활용이 속한다. 그 첫 번째로 공동체의 협력을 들여다보겠다. 이시돌은 도로 신설을 통해 금악 본동과 화전마을 솔도, 한라산아래첫마을이 있는 광평리까지 목장지대를 유지하였다.

<표 IV-5> 한림지역 마을 간 관계

	이시돌 주민들	이시돌과 본동주민	이시돌과 광평리 주민들
과거	협력 관계	불편한 관계	자매결연 관계
경제성	경제적 번영	경제적 차이가 큼	이시돌목장 공유
현재	관계 유지	관계 개선	관계 유지

□ 이시돌과 금악본동

금악본동 주민은 대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본동 구 올레를 마을의 중심으로 하여 서로 협동하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본동 주민의 30%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본동 남쪽으로 이주해 온 개척 농가, 개인농장 주민들을 향해서는 산퇴기놈들이 불렀다. 본동과 이시돌의 차이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크게 벌어졌다. 중산간에는 초지를 심어야 했고, 기후는 농사에 맞지 않아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당과 이시돌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런 이유로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런 이유 외에, 오버투어리즘, 백종원가게, 외국인노동자의 사고위험 등 다양한 문제로 연구자와 인터뷰를 이어가던 이경철 금악 이장은 금악리가 가장 필

요로 하는 것은 전기선로 문제라고 언급했다. 요즘은 에너지 마을로 전환을 하며 태양광 설치가 많아졌고, 큰 규모로는 마을에 풍력이나 해상 발전기 설치도 시도한다. 그러나 발생한 전력은 저장이 되지 않음으로 역수출을 기대하는데, 금악리의 경우는 에너지 마을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태양광 설치에 동의하나 한림발전소와 한국전력에서 선로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큰 니즈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클 이사장, 이시돌 개인농장의 니즈도 의외로 에너지를 구축하는 시스템의 변화였다.¹⁰³⁾ 그렇다면 본동과 이시돌협회는 공동의 니즈를 가진 로컬리티에 있음에도 소통의 부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 에너지 자원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 이시돌과 광평리

광평리와 이웃마을 솔도는 화전마을이다. 이웃한 무등이왓, 삼밭구석처럼 동광마을은 부지가 넓고 저지대지만 고지대 화전마을에서 할 수 있는 농작물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시돌협회가 대지를 매입해 줌으로써 이곳의 주민들은 금전적 수입을 얻었다. 광평리는 이시돌 자매마을로서 광평리 여성들은 한림수직사 직원으로, 광평리 남성들은 이시돌목장 돌담 정리를 도왔고, 이시돌협회는 광평리 마을 도로 건립과 회관 건축을 지원하였다. 이시돌협회와 좋은 관계로 살아온 광평리는 현재 메밀 생산을 통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발전하였다.

□ 이시돌과 주축단지

이시돌 내 양돈업은 개인농장과 주축 단지¹⁰⁴⁾로 구분이 된다. 주축 단지는 우유

103) 한림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LNG는 열량은 높고 이에 비해 공기는 열량이 없으니까 적당히 공기를 혼합해 열량을 맞추어 공급한다. 현재까지는 제주도만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도 LNG로 바꾸어 도심지역은 LNG가 들어가고 있다. 이시돌도 태양광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 각 사업체에서 조리 시 불이 필요한데 인덕션으로 조리기구 사용이 불충하다면 LNG를 같이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이시돌에도 한림발전소로부터 별도의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이시돌협회의 건축물들은 옆면적 대비 옥상 면적이 작은 편이라 설치가 어렵다. 도면에서도 징크시설, 하중 등 전반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 안 하는 펠렛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시돌협회 재정 또한 태양광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 본다(연구자 의견).

104) 대농민교도사업 종합보고서 교도부원 강용립이 쓴 자료에 의하면, 1963년 제주도는 중산간지역 금악, 월평, 선흥, 용흥, 송당, 상예, 선인동 등 7개 지역을 개척단지로 선정하고 1호당 토지 10헥타(정보)를 기준으로 주택1동(18평) 창고 및 축사(20평) 비육돈사(5평)를 건축하여 입주를 허락했다. 맥크린치는 덩어리 땅을 찾아 목장 사업을 계획했으며 초창기에 매입한 대지에 테쉬폰 건축도 함께 이루어졌다.

부단에서 북쪽으로 1킬로미터 거리에 위아랫 마을로 위치해 있다. 이시돌의 개척 농가로 입주한 개인농장과 양돈 단지로 입주한 주축 단지 주민들은 조부모 세대부터 시작한 축산업 분야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사한 생활방식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서로간에 협력과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

□ 마을 주민간 수놓음의 보존 노력과 한계

협력과 결속의 생활방식은 아일랜드 선교사 맥크린치와 마이클 두 신부에게 마ihil과 수놓음으로 돌봄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된다. 여기에 임노동의 특징이 가미된다(紀子, 2013). 제주 전통사회와 공동체경제는 수놓음과 관계가 깊고,¹⁰⁵⁾ 마을주민 간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하지만, 이시돌과 본동은 농업과 목축업 차이만큼 종교적 색채가 다르다.

이시돌협회 직원들 대부분은 미사를 드리고, 본동 주민들은 포제를 드린다. 그렇다고 양쪽이 모두 충실한 가톨릭 신자들이거나, 본동 주민들 모두가 포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제사를 지내는 방식의 차이는 수놓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금악리 마을 조건호(가명)의 증언에 의하면, 본동 마을의 존경받는 지도자 손성진(가명)이 포제를 지내는 제관으로 뽑혔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 그가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다. 금악 본동과 이시돌협회 모두 손성진 제관 철회에 동의하였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경제와 사회, 관혼상제의 계가 사회적경제로 탈바꿈하고, 수놓음이 재현되는 방식으로 문화가 발전하는 만큼, 문화와 종교도 앞으로는 더 좁혀질 것이라 본다.

타카라(2017)는 모든 곳의 경제 동향을 공동체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공유재기반 시스템인 마르카(Marka)에서는 개인들이 연중 서로를 위해 일한다. 한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면 다른 사람은 숙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는 상호적인 방식으로 마련된다. 원래 안데스의 농경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도시

105) 제주특별자치도는 31개 동과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는 지난 2009~2010년 2년 동안 제주시 9개 동과 7개 읍면, 서귀포시 5개 동과 5개 읍면 등 모두 14개 동과 12개 읍면의 접(接)과 계(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주로 계(접)는 경제활동, 관혼상제, 사회관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 활동 분야는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 등 농촌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계(접)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혼상제는 주로 장례와 결혼 등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사회관계는 생활상 필요한 상호 부조, 물자의 공동구매, 공동노동을 통한 수입창출, 교육 및 계몽활동, 마을공동체 현안해결 등을 목적으로 결성 운영되었다(강순원 인터뷰, 2021년 5월 15일).

에서 확인, 학교 우물, 도로를 만든다(김기홍, 2014). 콜롬버스 이전 시대부터 시작된 멕시코의 테키오(Tequio) 시스템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재료와 노동력을 함께 모아 학교, 우물, 도로를 만든다. 브라질에서는 무티랑(Mutirão)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동원 방식을 이용해서 무급으로 함께 공동체 주택을 짓고 여기에 기여한 사람 모두가 그 혜택을 얻는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동, 마이힐, 수놓음이 세상 곳곳에서 재현되는 만큼 상호의존의 공동체 방식은 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김자경, 2016 참고).

(2) 마을자원 공유제

공동체의 번영은 마을의 자원과 인력이 결합해서 공동자원을 찾아내 활용하고 다시 보전하는 방식이다. 공동체가 없이는 공유제가 없고, 공유제가 없이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Mies and Bennholdt-Thomsen, 2013; Gibson-Graham, 2006).

금악 본동의 주업은 농업이고 이시돌 주민들의 주업은 축산업으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했다. 그래서 마을을 금악 1리와 2리로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산되었다. 주민들 간 대립 외에도 소규모 농촌산업의 쇠퇴, 낙농업의 위기, 이시돌 산업의 역량, 후계자 양성 등은 전부 사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동안 한림, 저지, 청수에서 우마에게 물을 먹이러 금악 본동까지 찾아올 만큼 크기와 깊이가 풍성했던 뱅딧물이 지금은 도로와 주변 건축물로 인해 1/3로 줄었다. 맥크린치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일은 제주의 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본주의는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맥크린치는 거대한 땅이 거대 자본에 유입되면 전부 대기업의 사업체로 쓰일 것은 뻔한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농업과 목축업, 당과 천주교, 제주 원주민과 이주민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그 안의 자원이었다. 주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싸울 때 맥크린치는 혼자서 마을자원의 가치 유지 및 혁신을 통한 공간의 정치·경제적 해결을 시도했다(俊雄, 2016 참조). 1980년 당시, 금악 본동, 이시돌 중앙농장, 이시돌 농장 (광평리)을 담당한 3명의 교도사 (본동: 강용립, 이시돌 중앙농장/개척농가: 김마태호, 광평리: 백원근)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 가축현황, 농작 현황 간 비교를 보면 잘 알 수 있다.¹⁰⁶⁾ 당시 금악리 인구 (79.10.30 현재)와 동 별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¹⁰⁷⁾.

106) 이시돌협회 교도과에서 작성한 대농민 교도사업 종합보고서(1979년 작성)를 참조하였다.

<표 IV-6> 금악리 인구, 1979년

인 구			호 수			비 고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계	
613	567	1,180	277	31	308	

	호 수	인 구	외국인				비고
			중국		아일랜드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본동	208	915					
이시돌 중앙농장	49	201	1	5	1	2	
개척농가	23	83					개인농장
주축단지	20	43					
기타	8	38					
계	308	1,180	1	5	1	2	

<표 IV-7> 금악리 본동 토지 및 가축·농기구 현황, 1979년

토지이용

단위: ha

전	답	대 지	목 야	임 야	기 타	이시돌 소유부분	합 계
466.5	0.2	9.3	1,359	1,191	70.2	173	3,096.2

금악리 본동 가축현황

단위: 마리

소		돼지		말		산양		닭	개	꿀벌	토끼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393	95	395	102	14	6	10	2	600	50	15통	40

금악리 본동 농기구현황

단위: 대

경운기	마차	분무기	절간기	리야카	트랙터	기타
18	110	60	15	7	2	

107) 2021년 1월 21일 기준으로 금악리는 504세대, 1060명(여성 504명, 남성 556명)이다.
<https://www.jeu.go.kr/vill/geumak/intro/about.htm> 참조.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표 IV-8> 이시돌 토지 및 농작물·가축현황 1979년

이시돌 토지현황

총보유면적 대비 %

구분 면적	농경지(%)	개량초지(%)	재래초지(%)	기타(%)	계
헥타(정보)	29.71 (19.5%)	74.23 (49%)	38.15 (25%)	9.65 (6.3%)	151.74

이시돌 농작물 재배 현황

통계농가: 24호

구분 면적	고구마	유채	보리	콩, 팥	당근 무우, 배추	감자	계
헥타(정보)	2.3	2.7	0.3	0.9	0.6	0.27	7.07

이시돌 가축현황

통계농가: 24호

양 돈		양 계		젖 소		한우 및 비육우	
육성돈	876두	산란용	11,000수	착유	65두	한우	30두
포유자돈	373두						
종빈돈	198두	육계		미착유		비육우	20두
종모돈	16두						
계	1463두	계	11,000수	계	65두	계	50두

<표 IV-9> 안덕면 광평리¹⁰⁸⁾ 농·축산 현황, 1979년

광평리 농작물 재배 현황

개량목초지	감자	팥	모밀	유채	콩	채소
25정보	7정보	4정보	3정보	3정보	1500평	1500평

광평리 가축현황

한우	잡종	육성우	도입우	돼지	양봉	개	닭
33두	20두	19두	30두	20두	36통	7두	2수

이상의 보고서 기록대로 금악 본동 주민과 개척 농가, 주축 단지, 개인농장은 전

108) 대농민교도사업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시돌목장의 범위가 안덕면 광평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혀 다른 경제생활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을 하는 본동 주민 자체로 1/3의 영세민이 보고되었다. 또한, 한림읍 면적의 1/3인 금악리 한 마을에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한 그룹들이 있기에 주민이나 마을 간 협력이 어려웠다고 본다. 서로 간에 양극화가 존재해 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면 서로 간의 호혜성은 찾을 수는 있지만 상호적인 관계가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연구자는 금악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변하지 않은 인구 분포, 본동 자체로 주민 간 경제력 차이, 종교적 이해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자원을 활용하고 보존하였으며, 호혜성과 무상성을 제공하면서 65년 동안 주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

여기서는 공유재 현황과 가치를 언급하며 정리를 하였다. 이시돌협회가 자산을 매각하면 토지를 매입하며 규모를 유지하였다. 맥크린치가 토지 매매를 해도 반드시 대토를 했다. 10만 평을 매도하면 다른 데에서 10만 평을 다시 매입했다. 그 이유는 젓소와 말, 양과 다른 가축들이 그 수만큼 살아갈 수 있는 토지 규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을자원의 가치인 토지가 보존되고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다.

(3) 공공성

공공성은 교육과 돌봄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 분야는 초창기 농업교육학교, 금악초등학교 지원, 유치원과 요양원을 통한 노동인구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다.¹⁰⁹⁾ IMF 이후 가정과 부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젊은이들이 속출하였다. 맥크린치는 도교육청과 협의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젊음의 집을 지어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교육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숨비소리 교육 기관에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한 명의 청소년이 세계시민이 되도

109) 신문에 보도된 주요 교육관련 분야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 7월 16일, 농업기술연수원 낙성식; 1972년 6월 제주신문, 제주농업계 학생 1년에 한 번씩 이시돌목장에서 축산기술 교육 연수; 1982년 7월 15일 안락한 경로당 설립; 1983년 5월 16, 노인대학 소풍; 1983년 9월 13일 제1회 노인대학 수료식; 1984년 4월 23일 제주신문, 맥크린치 금악국민학교 학교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 전달; 1985년 8월 6일 이시돌유치원 설립인가; 친환경축산소식지(www.ecolivestock.org) 1994년에 청소년센터 젊음의집 설립, 2021년 9월 14일, 청소년회복지원센터 빌라수산나와 숨비소리 등.

록 세 명의 청소년 분야 전문가 신부 세 사람을 파견하는 도저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교육 방식을 실행하였다(이미영, 2011). 그런데 세 사람의 신부로부터 사랑을 배운 이 젊은이는 현재 서울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돕는 성인이 되었다.

돌봄분야는 이시돌 의원을 책임지고 있던 엔다 수녀(1922~2016, Mary Enda Staunton, 이시돌의원 의사)¹¹⁰⁾와 누이 죠(Joe McGlinchey)를 통한 제주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애정에서도 포착된다. 엔다 수녀는 197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였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좋은 약도 무료로 주었다. 2000년 무렵 엔다 수녀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병원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의료진의 질과 수준도 높아지고, 한림에 개인병원도 많이 개원되고 있었음을 인지하였다. 엔다 수녀는 환자들이 분산되서 개인병원을 찾더라도 직접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가의료서비스로 가가호호 방문하였다. 그러다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암이나 큰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맥크린치와 상의하였다. 맥크린치는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누이 죠의 가정 호스피스 삶과 엔다 수녀의 조언을 통해 이시돌협회 사업의 수익을 제주의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전액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심하였다. 국가와 시장이 들여다볼 수 없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동한 이시돌협회 맥크린치와 한림수직사 책임자 로사리아와 이시돌의원 엔다가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한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를 위해 전문 기술을 활용하자.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멘텀을 찾자. 세 번째는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더 큰 목표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마을이 되도록 하자. 이들이 보여준 3가지 특성이 곧 수놓음 정신이다.

3장에서 보았던 현대 사회적경제의 임팩트인 수놓음, 일자리 창출, 수익의 순환, 복지, 로컬푸드, 협업과 지속가능성인 결속, 사회공헌, 주민참여가 이시돌이라는 전통의 사회적경제에는 이미 뿌리내려져 있었다. 여기에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마을 자원의 보존까지 덧붙여진다면 이시돌의 전통과 경험에서 거의 같은 지속가능성을

110) <http://www.mayonews.ie>obituaries> (검색, 2022.11.8.) 70세가 넘은 한림수직사의 로사리아 수녀와 성이시돌 의원의 엔다 수녀는 한림 주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가 복지 분야의 소임을 하다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

찾을 수 있다. 맥크린치는 자신과 정체성이 같은 가톨릭 신부들이 수행한 스페인의 몬드라곤¹¹¹⁾과 캐나다의 안티고니시¹¹²⁾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제주은행과 맞먹는 손익에 도달하였던 사업을 더 키우고 수익 재창출을 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으로 전환하였다(Singer, 2015). 여기에 더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결속을 이루는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며 이시돌 공동체경제를 발전시켜 왔다(Ralph, 2005).

2)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제주의 사례는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주는 다행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제주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시돌목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전통의 이시돌목장 경험에 비추어 제주의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체, 지역기반, 공공성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1) 공동체

공동체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사례가 있다.

□ 주는 문화로 결속을 이루어가는 모두를 위한 경제 건강한약국

건강한약국은 모두를 위한 경제의 이상인 나눔의 문화, 상호성, 무상성을 실천하

111) 1915년 4월 스페인 몬드라곤 근처의 마로키나라에서 태어나 사제가 된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는 1941년 2월에 몬드라곤에 도착했다. 그는 노동청년조직과 교구의 어려운 가정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차츰 바스크 문화와 젊은이들의 사상을 이해하였다. 동시에 5명의 제자 그룹을 형성하여 자신과 함께 합리적인 사고로 시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동조합의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몬드라곤의 가치인 평등, 연대, 노동, 참여, 고용 창출과 보장, 자치와 자주 관리, 미래의 방향성과 정치적 지향의 다원성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보완을 통해 지금의 몬드라곤을 만들었다(William White and Kathleen White, 2012).

112) 1920년대 말,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에서 운영하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학(St. Francis Xavier Extension Department)의 지미 톰킨스(J.J. Tompkins) 교수 신부와 그의 조카인 모세스 코디(Moses Michael Coady) 교수 신부는 고질적인 경제난의 원인을 지역경제 시스템의 부실함과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들은 곧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행동에 나섰고 그 결과,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1939년 당시 2265개의 학습모임에서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익히며, 342개의 신용협동조합과 162개의 각종 협동조합 조직을 탄생시키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된다(이용훈, 2015).

고 있다. 성길흥 약국장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탐동 노숙인들을 찾아 10년 이상 무료 투약하였다. 또한, 17년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을 할애하여 외국인노동자 무료 투약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왔다. 또한, 성약국장에게 사회적 자본, 관계재의 첫 자리는 부부 일치이다. 그다음은 약국 내 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는 형제애이다. 이만큼 소중한 형제애는 탐동 노숙인과 외국인노동자와 차등하지 않는다. 그의 사회적 가치추구의 기저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종교심성(providenza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자리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나눔의 문화는 사회복지시설 의약품 후원(가정폭력쉼터, 단기여성쉼터, 중증장애시설, 요양원, 미혼모 시설), 재능 나눔(의약품 안전교육 강의, 청각지적 장애시설 방문, 중산간 마을 학교 사진 강의, 삼도1동주민센터 희망보따리풀기), 직원들의 복지혜택(주5일 근무와 평일 교대 휴일제, 정기휴가, 연차 확대, 급여 현실화, 장기근속 직원 5년 혜택 선물, 약국은행 3.5%)이다.

나눔의 문화가 생활의 한 방식인 성약국장 자신은 물론 가정과 아내, 직장 동료들간 형제애, 마을과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돌려받는 계약이 아닌 형제애에 바탕을 둔 성약국장의 무상성은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로 향하며, 이들도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를 가리켜 포콜라레에서는 사랑을 기술하는 삶(l'arte di amore) 곧 적극포용(compenetrazione)이라 한다.



[그림 IV-7] 건강한약국 영향의 지리적 분포

건강한약국은 노숙인과 외국인노동자, 여행학교 청소년, 모슬포 천사의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시들의 경험 또한 돌봄과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목적 사업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약국이 지향하는 바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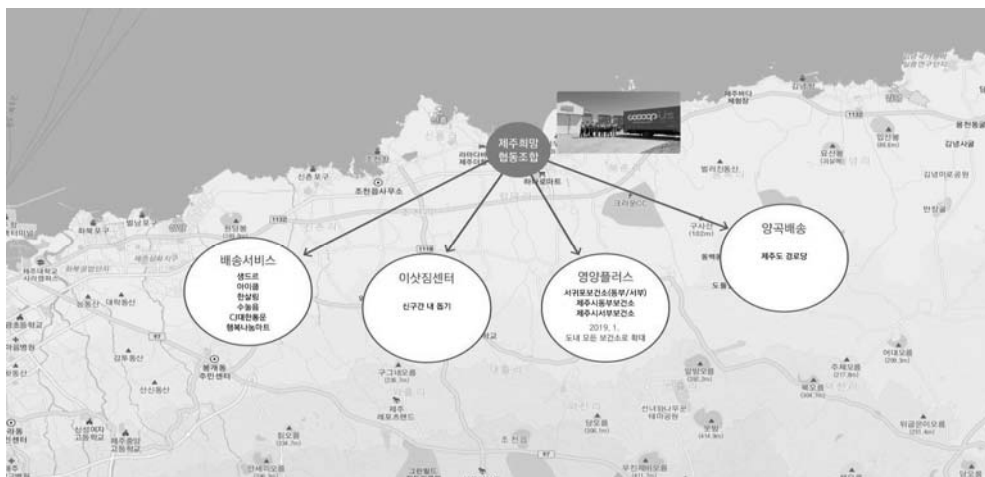
□ 수익 창출에 근로자들이 협력하는 자활기업 사례: 제주희망협동조합

제주희망협동조합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수급권자, 차상위자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참여가 결정되면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¹¹³⁾ 자활근로사업단이 종료가 되면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활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일반기업 형태로 유형이 바뀐다. 일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부 수급권자는 자활기업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정책의 혜택을 얻는다. 이와 더불어, 자립의 차원에서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여러 사회적경제 기관의 도움으로 협력사업을 시작하였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합원들의 출자금 1억 7천만 원을 모았다(손인철, 2012 참조). 연 단위 기준으로 위탁사업을 받거나, 위탁사업이 아니더라도 용역계약방식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핵심과제는 주민참여형 직원들의 안정된 일자리다.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반 시장과 비슷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 양곡, 배송, 이삿짐 등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과 함께 철저한 세금납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영아플러스 사업 외에 신구간 이삿짐 나르기 등 다른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는 기회로 신구간을 보지만 제주희망협동조합의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삼는다. 직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청년회, 연합청년회, 라이온스 등의 지역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맥크린치 역시 한림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

113) 2021 자활사업 안내 지침,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이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지침과 사업내용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소정의 사업비 (평균) 130만원과 총인건비의 20~30%의 사업비가 상정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면서 직원들 모두가 직장은 물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합원들의 힘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보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림 IV-8] 제주희망협동조합 영향의 지리적 분포

□ 사회적경제 생태계 우유부단

앞에서도 자세히 살펴 보았지만 사회적기업 섬이다가 운영주체인 우유부단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는 얼리어답터(early adaptor)를 통해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유럽식의 신뢰 기반을 둔 이시돌협회의 계약 방식과 한국식의 서류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신뢰만으로 사업참여를 허락한 이시돌협회측과 사업이 번창할수록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해서 진행하려는 섬이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시돌협회는 다른 모든 사업의 목적대로 지역 사회 환원과 복지 사업에 대해 섬이다 측에 더 많은 기부를 기대하였다. 반대로 섬이다 측은 직원의 권리 배당 이행 및 사업운영의 간접비 발생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분을 요청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우유부단이 선택한 것이 (유)섬이다와 이시돌협회의 합작법인 영농조합법인 토리비아를 만드는 것이었다. 토리비아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조정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야 불가역적으로 사회

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작법인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시돌목장의 이점은 먼저, 우유부단의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유부단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유부단의 경제적 성과를 배당으로 공유받게 된다. 우유부단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익은 이시돌목장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섬이다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도시재생사업, 로컬푸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직원 복리로 들어가서는 일반 노동시장보다 5~10% 더 높은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주어지고, (유)섬이다의 법인 이익의 10~15%를 배당으로도 받는다. 합작법인 토리비아 설립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움직여 수익 창출과 분배 목적을 충족시켜 주었다. 두 집단의 창조적 노동이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는 환경적 생태계 시스템도 지속 가능해졌다. 토리비아 법인은 오랜 시간 솔직하게 이익금의 배분 문제를 놓고 이시돌협회와 논의를 한 성과였다. 대개의 기업은 이익이 생기면 기업의 선의로 일부를 기부하는데 이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할 것인가는 오로지 기업가의 선의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쪽에서 마이클 이사장은 선의를 택했다. 반면에 김종현 대표는 수입을 배분할 기준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유부단 근로자들의 배당, 이시돌협회와의 배당, 결국 이시돌협회가 추구하고 사회적기업 섬이다의 목표 중 하나인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다. 수익금의 배분과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유)섬이다와 이시돌협회의 합작법인 '농업회사법인 토리비아'는 우유부단의 단순한 수익정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한 수익성에 대한 사례로 유지·운영되고 있다. 금악 본동에 들어왔던 백종원 식당들과 금오름 주변의 음식점들이 더는 수입을 내지 못하는 데 반해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생태계 '농업회사법인 토리비아'는 우유부단 수제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와 그 경관을 더욱 번성시키고 있다. 토리비아는 이익금 배분 문제로 생긴 갈등관리 차원에서 시작하여 수익 배분을 책임지는 중간지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조직별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접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유미현, 2017). 이런 점에서 우유부단은 지속가능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2) 지역기반¹¹⁴⁾

공유재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사례가 있다.

□ 생태마을 확장을 통한 지역에 측면: 평화여행자 예비사회적기업

어느 농촌 마을이든 지역의 특성상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중요한 곳이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며, 협동방식을 지향하지만, 농사를 하기 싫으면 떠나야 하는 곳이다.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비장소성으로까지 바뀐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세대별 농업 정책이 들어가면 산업의 다양화를 통해 젊은이가 돌아오고, 노인들이 노후까지 즐겁게 사는 장소애가 작동한다.

2003년에 (주)제주생태관광을 창립한 고제량 대표는 활동가들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에 목표를 둔 사업 시행, 2010년 이후는 환경에 사회적경제가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람사르습지보호와 함께 생태마을 지원 사업을 하여 선흘1리, 수망리, 하례리, 저지리, 평대리, 호근동, 조천리 7개 마을로 확대하였다. 행정에도 변화가 생겨 2015년에는 제주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 생태관광 담당 부서가 생겼다.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생태관광사업의 근본 목적은 환경보전, 사회적경제, 주민주도 역할을 육성하는 것이다¹¹⁵⁾. 그래서 생태관광마을 사업을 만들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공복지에 배당금이 분배되도록 돕는 일을 하였다. 생태관광마을 사업은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생태관광의 수익을 사용한다. 고제량 대표가 설명한 마을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골자왈로 방향을 잡은 선흘1리는 마을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원탁회의를 통해 노인 복지로 의견이 모였다. 마을 노인 22명이 주변 서로 다른 요양원¹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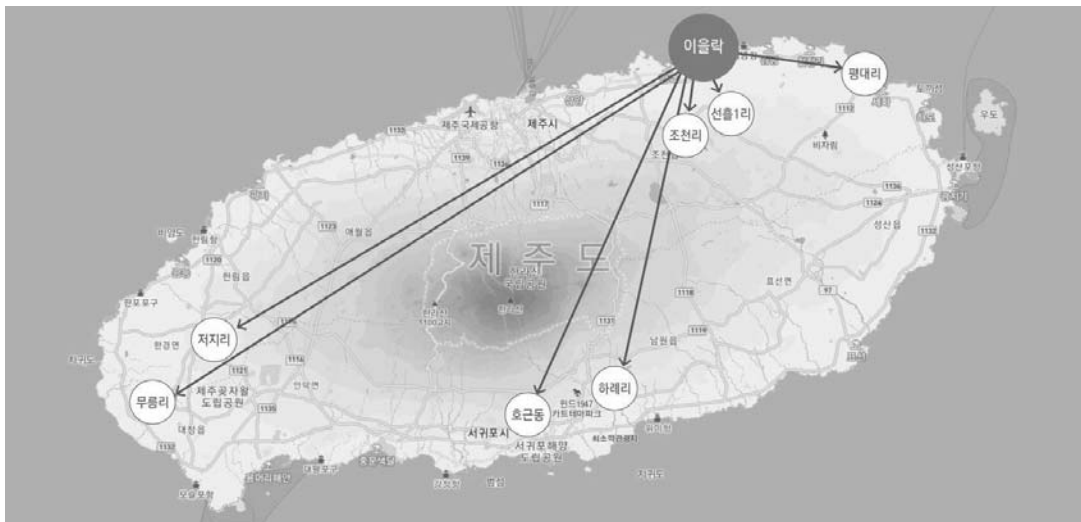
114) 최종결론에서 전통의 이시돌은 공유재, 현대는 지역기반으로 하고, 이를 합쳐서 지역 마을자원으로 일반화하고자 한다.

115) 공동체는 공통의 생활양식 혹은 공간 안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마을공동체란 일상의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생활 관계망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과 호혜성, 오스트롬의 공공재관리제도를 공유한다(이태동 외, 2017)

116) 연구자는 사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지역 노인회관, 노인정, 요양원 시설을 들렀다.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노인정이나 요양원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더울 때와 추울 때 건강 문제였고,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지내다 우울증으로 방치되는 노인들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흘1리 생태마을공동체가 한 일은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요양복지를 할 수 있는 마을요양원 설립이었다(Meretz, 2019). 둘째, 영농조합법인으로 방향을 잡은 하례리도 마을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노인들이 마을에서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다(Samje, 2020 참조). 실제로 생태관광마을사업은 양마 씨앗을 발아해서 역 단위 수익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포트에 씨앗을 놓는 것과 물을 주는 역할을 노인들에게 맡겼다.

생태관광마을사업의 역할은 주민들에게 생태에 대한 교육과 삶의 향유, 공동체경제를 아우르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스스로 찾고, 생태관광마을로 전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을 경제, 환경보전부터 마을 지도자 육성, 마을 주민간 의사결정, 마을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마을 안내와 숙박 제공까지 모든 기반이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림 IV-9] 평화여행자 지리적 범위

생태관광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고제량 대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제주가 치로서 돌, 음악, 춤, 언어가 있는 그대로 유지되기를 소망하였던 맥크린치의 이시돌 생태관광 정신과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두 사람의 공통점에서 생태관광, 공정여행은 지속가능성의 요인을 갖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장소애와 지역사회공헌에 기여: 모두를 위한 경제 신노형점 빵집

모두를 위한 경제를 지향한 파리바게뜨 신노형점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천하고, 장소애를 토대로 환경 이슈까지 수행적 담론을 실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신노형점 김문영 대표 역시 이탈리아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 창립자 루빅의 지도하에 사랑의 기술을 배웠다. 지역주민들은 빵집의 고객 이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마을주민임을 잊지 않으며 살고 있다(이탈리아어로, abbracciare Gesu Abbandonato nell'attimo presente). 김문영씨는 그들을 모두 포용하는 사람(abbaracciare positivo)이 되려고 한다. 제주에서 태어난 제주 사람이면서, 이탈리아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문영씨는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자연을 돌보는 환경적 가치, 마을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도자로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자신보다 마을을 위해 고용창출을 하고, 직원복지를 위해 주말과 평일 근무자를 구분하고, 노형초등학교 주변이 사랑으로 밝도록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남편과 아내와 딸 가족이 돌아가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대기업의 제안대로 노형로터리 큰 요지로 갈 수 있었지만 오랜 단골들을 위한 장소애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택배물, 배송물을 보관하는 관리실,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놀이터, 열쇠를 믿고 맡겨두는 전당포, 노형동 주민들은 신노형점을 편안한 사랑방이라 부르며 장소애를 느낀다. 매일 적당량의 빵을 만들지만, 남은 빵은 푸드뱅크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빵을 구입할 수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빵 선물을 하고, 이웃에 매달 커피 200잔을 선물한다. 이런 삶의 태도는 뛰어난 전략보다 훨씬 깊은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였지만, 신노형점의 사회공헌은 사람을 위한 사랑방뿐만 아니라 토양변화를 통해서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게 커피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나누는 운동이다. 연구자는 해당 빵집의 사장과 식구들, 직원 외에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인터뷰하였다. 신노형점을 찾는 고객 중 7명이 빵집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받으러 매주 들린다. 여기에는 3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먼저, 가정에서 화장실 냄새 제거 등의 탈취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도심지 생활권 사람들이다. 탈취제는 보통 3개월 동안 효력이 있다. 다음은, 텃밭의 퇴

비를 위해 사용하는 부류이다. 유수암 타운하우스에 사는 한 소비자는 커피 찌꺼기 퇴비 활용법을 익혀 주변 이웃들과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한다. 이렇게 사용한 퇴비는 흑토를 생기있게 하고, 진한 흑색이 생기며, 좋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건강하게 자란다. 퇴비는 바로 텃밭으로 가지 않고, 마당에 넓은 형꼴을 깔고 고르게 한 뒤 충분히 말린 뒤에 조금씩 텃밭 표토 위에 뿌려준다. 그러면 채소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더불어 사는 공간이 창출된다. 친환경적인 마을 공간이 조성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세 번째 부류는, 노형 해안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탈취제, 다육이와 채소 재배, 여기에서 아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커피 찌꺼기를 사용한다. 신노형점 경영자의 환경운동이 빵집에서 11킬로미터나 떨어진 한라산 마을 자락 유수암으로 뻗어 나간 것이다(2021년 4월 21일, 유수암주민 K씨 인터뷰). 빵집이 빵과 커피를 파는 가게 본연의 역할을 넘어 마을 사람과 제주 시내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다. 빵집 가게가 유기농 사료 전환농법으로 사람과 자연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¹¹⁷⁾



[그림 IV-10] 신노형점 지리적 범위

117) 케빈 콕스(Kevin Cox, 1972)가 저술한 Man location and behavior에 나오는 복원된 토지 보건 기술과 토지이용을 통한 지속성 그리고 그의 지역개발과 세계화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세계화가 광범위해질수록 로컬리티의 힘도 그에 대응할 것을 주장한다.

모두를 위한 경제 파riba게뜨 신노형점 사례도 이시돌협회 사례처럼 수익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결속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노형점과 이시돌협회는 결속과 지역사회 공헌요인 등이 유사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

□ 지역특화: 클러스터형 특화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혁신 인문예술공간 환이정

조선 시대 1목 2현 체제로 볼 때 2022년은 성읍도읍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1422~2022). 그 사이 1991년에 제주도 도의회가 발족이 되었고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 제도가 부활하였다. 노무현 정부를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외동포재단 등 관계부서가 서귀포시에 들어왔으며, 제주도정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한 감사위원회,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에 들어섰다. 또한,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시에 포함되었다. 이런 흐름에 더해 많은 예술, 인문, 문화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양영철 외, 2008; 문병기 외, 2008). 표선면 세화리에 들어선 인문예술공간 환이정¹¹⁸⁾ 차은실 대표는 표선을 브랜드화 하기위해 대지 10,000여 평의 야외 숲속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학과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기적으로 농부장(일반적으로 농민시장)과 농부학교를 열어 표선의 유기농산물 생산 농부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책사업으로 대한민국 법정문화 도시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2019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제15조에 따라 서귀포시를 포함 7개 도시가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¹¹⁹⁾ 서귀포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2018년 12월 27일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19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준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 12월 30일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¹²⁰⁾ 서귀포시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문화 도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조성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서귀포시 이장단 협의회와 함께 서귀포시 105개 마을 중 유무형 문화재를 발굴하여 서귀포시 지역 내 29개 마을을 노지 문화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118) 환이정이란 뜻은 근심, 걱정 사라지는 아름다운 정원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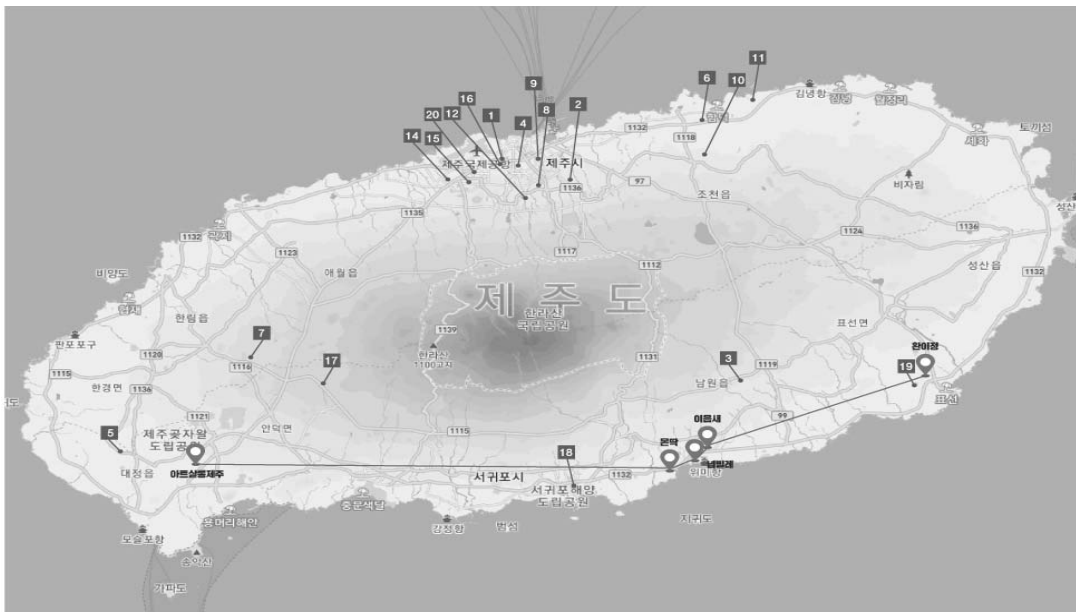
119) 7개 도시는 서귀포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부산시 영도구임.

120) <https://www.nojiculture.kr/culture-city/what.do> 2022년 11월 2일.



[그림 IV-11] 서귀포시 성산읍 ~ 서귀포시 대정읍 노지문화 클러스터

노지 문화 사업단에 선정된 환이정 차은실 대표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기관들을 눈여겨보고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4곳의 업체에 제안 해서 하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회 예산 분야에서 예산지원이 적은 문화예술 분야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재능을 가진 이들과의 협력을 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하멘 프로젝트의 시너지이다(Porter, 1990).



[그림 IV-12] 하멘 프로젝트 클러스터 (아래 쪽 5개의 스포크)

하멘 프로젝트 project_hamen: 서귀포시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서귀포를 잇다



H 인문예술공간 환이정 @seogwipo_hwanijung

A 트랜디쇼룸 아트살롱제주 @artsalon_jeju

M (사)문화예술공간몬딱 @monttak_net

E 예술교육농장 이음새 @ieumsae_jihey

N 치유예술공간 넙빌레 @nubbille_space

[그림 IV-13] 하멘 프로젝트 참가 업체

서귀포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고주의가 강하지 않고(손명철, 2004), 개방적인 마인드에 시민들의 성품이 온순하다. 하멘 프로젝트팀은 경제적 자원부족을 협업으로 메우고 서귀포 미래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본다. 뉴요커 아티스트로서 다져 온 예술 활동을 표선면 세화리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이들의 니즈인 농업분야를 인문예술과 결합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환이정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창의성과 협동의 마인드로 한림읍을 변화시킨 맥크린치의 노력이 오버랩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공공성

공공성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이 3개 사회적경제가 있다.

□ 일자리 창출로 사회공헌을 하는 근로장애인¹²¹⁾ 사례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 근로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고용 확대,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작업재활시설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자립에 기여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자는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와 일배움터사회적기업의 근로장애인(정신발달장애와 자폐성발달장애) 근로 현장을 지속해서

121) 근로장애인은 장애인 사원을 말함.

살펴보았다. 많은 행사가 코로나로 취소되었음에도 희망나래일터의 생산품이 인정을 받고 매출이 증가하여 임금 체계도 개선되었다. 이로써 3개의 결과가 함께 성장하였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의 임금이다.¹²²⁾ 두 번째는 급여만큼 중요한 근로자의 임금관리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정서적 지원과 법적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희망나래는 2025년 근로장애인 고용 80명, 연간 매출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나래는 조합원 104명의 시민자산화를 통해 희망나래 복합공간 프로젝트 건축을 하였다. 이 시설은 발달장애인의 일터, 공동체, 사회통합돌봄지원, 돌봄센터와 활동센터로 활용되어 발달장애인의 근로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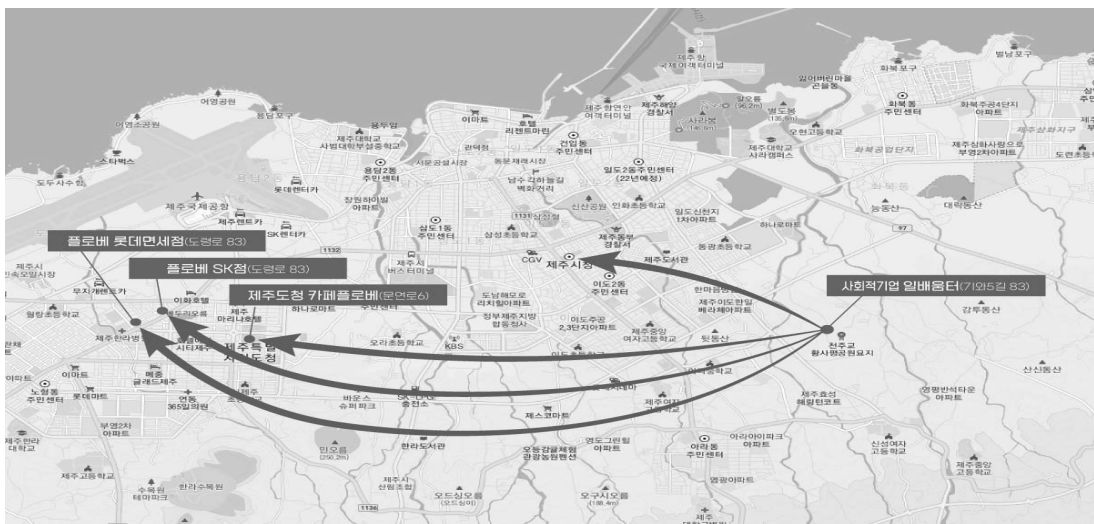


[그림 IV-14] 희망나래 지리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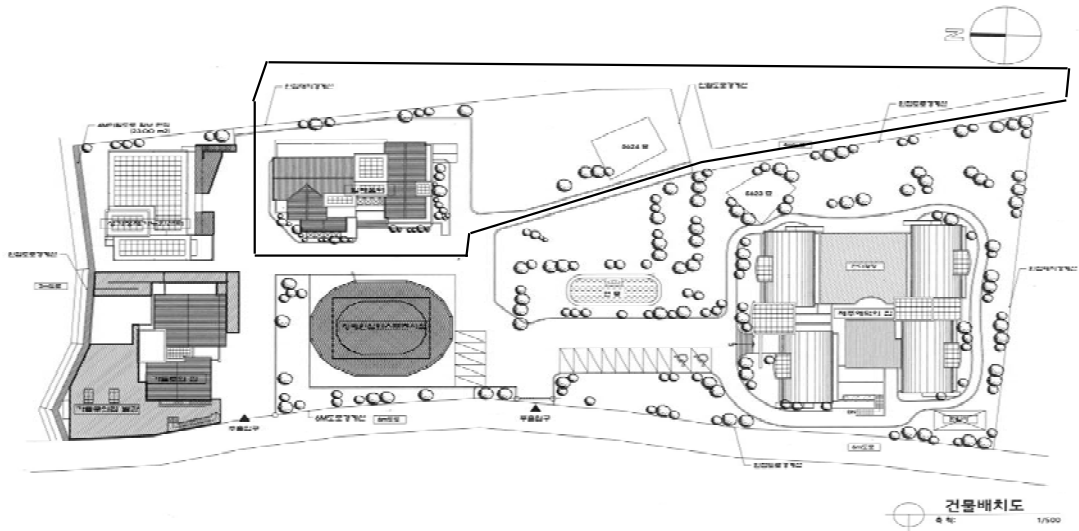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배움터이다. 일배움터는 제주 가톨릭 사회복지의 아버지 이대원 신부(1948~)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내며 이들의 성향과 니즈 곧, 토양과 친밀하다는 성향과, 잔디와 모종 심기, 도자기 굽기, 바리스타 직업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이에 따라 일배움터 공간은 실내와 실외, 하우스 동으로 나뉘어 도자

122) 제주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장애인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해 오고 있다. 4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019년 90만원, 2020년 95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제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106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와 머그잔을 만드는 일, 커피 로스팅을 하는 일, 모종 작업을 하는 일로 전문화되었다. 비장애인보다 물질적, 법적 노동 강도와 시간이 다르고, 임금 차이도 있지만, 근로시간에는 적절히 노동하고, 남들처럼 출퇴근 걱정을 하며, 주말에는 쉬고, 월급 때가 되면 임금을 기다리고, 세금을 내면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일배움터 작업장은 황새왓카리타스 복지타운 중 하나이며, 5개의 팀(일예사업, 카페사업, 운영사업, 초화사업팀, 자원지원팀)이 하는 팀장회의, 월례회의, 전체회의, 이사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로 기업이 운영된다. 근로장애인들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홀로 사는 노인들, 4·3 희생자 가족들에게 손수 제작한 꽃바구니 선물을 하며 사회적 보람을 추구한다. 제주 시민들이 사시사철 길거리 꽃과 화단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일배움터 근로장애인들의 역할이다. 카페 플로베는 3개의 사업장이 있다. 제주도청 야외 가든 내, SK 신제주 사옥 내, 롯데 면세점에 입주해 있다. 카페 플로베는 근로장애인 가운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원들이 노동하는 작업장이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로 작업장 폐쇄가 이루어졌을 때 일배움터는 근로장애인의 일상이 끊기지 않도록 꽃 작업, 로스팅 작업, 도자기 작업으로 근무 교대를 시켰다. 근로장애인들은 고용 해고 없이 도자기를 만들고, 자신들이 직접 길거리 꽃을 심고, 공공구매 우선 카페의 주체가 됨으로써 발달장애인들 자신이 삶의 질을 개선하며 살고 있다.



[그림 IV-15] 일배움터 지리적 범위



[그림 IV-16] 황새왓카리타스¹²³⁾ 내 일배움터

희망나래와 일배움터의 복지사업은 이시돌협회가 지향해 온 돌봄¹²⁴⁾ 및 복지 사업과 일치한다. 이곳의 근로장애인들이 협력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미시적 가치는 이시돌의 순환경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와 일치하기에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제도개선 차원: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혁신 한살림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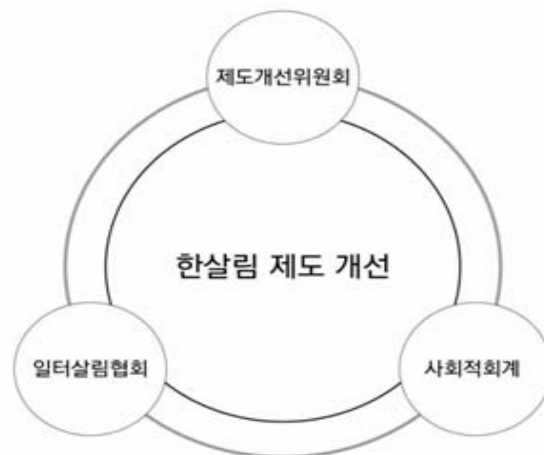
사회적 회계는 보이지 않는 손, 매장 외의 배송 등에 쓰이는 화폐, 가사 노동, 근로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표출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를 내는 것이다. 한살림노형은 직원들이 낸 지표들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개선의 노력을 해왔다. 갈등 관리와 제도개선은 모든 기업이 안고 가는 숙제이다¹²⁵⁾. 사업체나 기관이 실

123) 2013년 8월 26일 강우일 주교가 설립한 제주황새왓카리타스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발전을 기본목표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24) 돌봄에 대한 이해로서, 장애의 사회적 구성을 대륙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상담해야 하는 상실의 경험(미국식 해결방식), 두 번째, 도움과 장비 제공의 기술적 문제(영국식 해결), 세 번째, 가톨릭 교리를 통한 위로와 구원의 필요(이탈리아식 해결)로 나뉜다(박경환 외, 2012). 한편 한국은 인증 사회 제도 안에서 지원 사업의 형태로 시작된 복지사업이 장애인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킬 때 본질은 없어지고 장애 산업은 활동가들의 주 소득원으로 전락될 위험 소지가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125) 사회적경제가 번성하거나 쇠퇴할 때 그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의

행해 온 제도와 규범이 가끔은 사업자 대표와 근로자 사이를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든다(Peck, 1996; Smith, 1994; Doeringer and Piore, 1985). 협동조합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도 중요하고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근로직원도 그만큼 소중한 가족이다. 그런데 2012년~2014년, 3년간 50~70%로 사업체가 성장하면서 정신 없이 확장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갈등도 심해졌다. 사회적경제 지도자는 이사회와 논의 후 직장 내의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제도개선위원회와 일터살림협의회이다. 한살림노형이 자본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측정하는 도구, 곧 사회적 회계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일터살림협의회와 매월 제도 문제를 학습하고 이사회에 제안하여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의 성과는 갈등관리 해결 뿐만아니라 생산자들에게 돌아간 소득,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먹거리의 안전 정도, 직원들과 함께 창출한 사회적 가치도 공유하도록 발전시켰다.¹²⁶⁾



강순원 인터뷰

[그림 IV-17] 한살림 제도개선 방향

1989년 한살림선언에 기초하여 생명 운동을 펼쳐 온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제도는 정체성을, 살림은 네트워크를, 사회적 회계는 자산공유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회계는 전지구적 차원의 살림 시스템에 부합된다고 본다(Huh, 2019). 한살

일환으로 제도 개선 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126) 김선희(2020)는 한국 생협의 기존 논리와 이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실천이 상호 작용하고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제도 논리와 제도 실천 행동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림노형 강순원 상무와 맥크린치는 유기농초지를 통해 좋은 로컬푸드, 낙농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데서 생명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을 공동체, 지역기반, 공공성의 측면으로 검토하며 사회적 가치가 지역과 기관에 어떻게 생동하는지 보았다. 그 결과 제주 사례들은 올바른 트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인증 제도와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는 데 지난 20년(2000년 이후~현재)은 사업 기간이 짧아 지속가능한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는 사회적경제의 전통을 가진 이시돌 목장의 경험과 교훈이 있어 이와 비교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3) 제주 사회적경제의 뿌리내림

지금까지 전통의 이시돌 경험과 현대의 제주 사례를 통해 제주의 사회적 경제는 상존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지역의 공간 안에 담아낸 이시돌협회의 공동체경제가 배태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공동체경제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뿌리내림은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인격도 성장하는 것이다. 특수화된 공간과 담론 관계가 뿌리내림은 공간의 변증법처럼 보편적이 된다(심승희, 2000).

이시돌협회의 사회적경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62년 설립된 이시돌협회(Isidore Development Assocation)는 비영리재단으로 목적사업의 수익을 돌봄과 복지 분야에 쓰고 있으며 현재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정출처는 이시돌 목장, 사료공장, 우유부단 사업의 지분이다. 주요활동은 요양원, 호스피스, 어린이집, 청소년 젊음의 집, 피정의 집, 마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이다. 사업이 번창할 때는 손익이 양돈업만 연 100만 달러를 냈고, 목장부지가 300만 평, 협회 직원 수가 180명이 되었다¹²⁷⁾. 목표는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목장 사업,

127) 이시돌협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주는 원조 물자보다 일하면 살 수 있다는 정신을 길러 주기 위해 용자해준 돼지와 소 등은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기른 돼지가 1만 마리를 넘자 맥크린치는 1966년부터 자신이 직접 일본, 홍콩 등지에 나가 돼지 수출의 길을 터놓아 현재 매일 3천 마리의 돼지를 수출, 연간 1백

성이시들 의원 의료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었다. 7년간 PL 480¹²⁸⁾으로 들어온 원조 옥수수 45,000톤으로 일부는 판매하고, 지역주민들을 도왔으며, 사료공장 건축에 사용하였다. 이시들협회는 자생적으로 젓소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시작하였고, 개척 농가 개간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맥크린치는 트랙터 대여, 크랙셔 운전을 하였다. 양돈산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개인 목장을 하는 개척 농가에 양도하였다. 홍콩과 일본에 양돈수출을 위한 가공공장을 축협에 양도하였고, 성공중인 치즈공장을 낙협에 양도했다. 직원복지와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해 토지 매도 후 바로 대토를 통해 가축 단지를 지속시켰고 직원 월급을 제납하지 않았다.

농촌사업의 한계로 일반 기업처럼 번성할 수는 없었지만, 마을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며 공동체 결속을 이루었고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왔다. 다양한 사업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지역사회와 사회복지로 환원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과 유치원 교육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과 요양원을 만들었다. 이시들협회 초기, 농업교육학교를 시작으로 금악초등학교 시설 보조, 청소년 젊음의 집, 빌라수산나, 숨비소리까지 인성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공헌을 해 왔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요양원, 호스피스 간호사, 목장 직원, 우유부단 직원을 위해 협회 공간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거기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집과 직장 간의 접근 용이성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100회 이상 이시들협회를 방문하였다. 이시들협회가 재현해 온 유대의 가치를 지닌 수놓음은 공동체 경제의 좋은 도구이다. 해체와 재건과 생성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견고해졌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공동체경제 논의는 적어도 커먼즈와 로컬리티에서 생기는 니즈를 어떻게 창출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를 사회적 회계로 분석하고, 공동체경제로 일구어보는 일임에 틀림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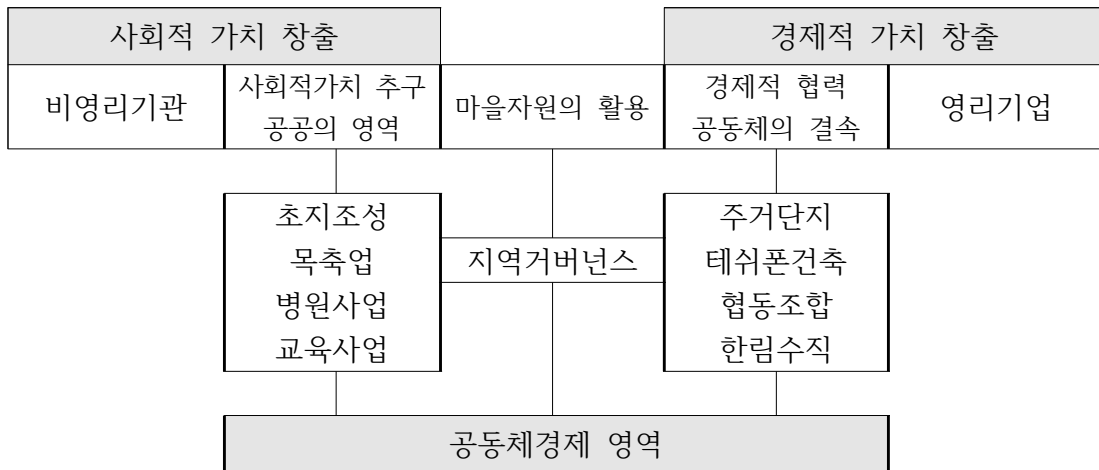
만 달러 상당을 벌어들인다(1972년 6월 5일 경향신문 기사).

128) 오늘의 이시들이 있게된 근본적인 힘은 맥크린치 신부가 세계가톨릭구제회와 미국정부와의 다양하고 끈질긴 교섭을 벌인 끝에 PL480(1954년 미국의 농업무역 및 개발 원조에 관한 법) 제2관 사료사업 계획이 이루어져 7년간에 옥수수(사료) 4만 5백톤을 원조한다는 미국무성 국제개발처의 승인을 얻은데 있다(63년 1월). 승인이 확실시된 61년 11월 한라산기술 해발 3백 60미터의 한림읍 금악리에 3백 20정보의 토지를 확보하고 일본으로부터 면양 5백두, 돼지 8백두를 구입함으로써 이시들 중앙실습농장이 개설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PL480 제2안 사료사업의 집행기관인 이시들농촌산업개발협회가 발족되고 맥크린치 신부가 전무이사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62년 11월). (출처: 1970년 10월 17일 제주신문 기사)

다. 맥크린치는 제주가 그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보물섬인지를 깨우쳐 주었기에 제주평화포럼이나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물때를 봐 가며 바다로 들어가고, 바람을 봐 가며 농사일을 하는 작금의 동향을 중요시하였다 (김오진, 2018). 맥크린치는 제주의 마을자원을 활용하면서 이를 더 혁신할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시돌협회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부흥 시켰다.

맥크린치는 유럽의 정신 속에 이어져 온 협동조합, 이탈리아 가톨릭교회의 시민 경제, 성인교육과 농업·목축업 교육을 위한 소도시 마을, 여기에 더해 마을이 가진 자본을 활용해서 한국형 사회적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맥크린치는 4H운동을 시작으로 가축은행, 신탁을 통한 자립심 마련, 젓소 사업과 초지육성을 통한 목장의 확대로 환경적 가치실현, 개척 농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주축 단지 와 개척 농가 사이의 결속, 교육과 돌봄, 복지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공헌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맥크린치의 사회공헌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의 성공 뒤에는 늘 실패도 따랐던바, 연구자는 이시돌협회의 성공과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현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타진해 보려고 한다. 특히, 맥크린치가 자본을 창출하는 사업의 성장 과정에서 돌봄의 영역으로 선회한 것은 자본 외의 영역도 충분히 지역 단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맥크린치가 집중한 공동체의 결속, 다양한 사업의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 환경과 대지와 땅에 대한 가치들은 현대사회가 실행해 나가고 있는 발전 모델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해주었다.

이시돌의 경험은 사회적 기업과 면모를 잘 보여준다.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사업을 개척해 나갔으며, 경제적 가치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모색해 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IV-18] 공동체경제 영역에 비춘 이시돌 경험 (출처: 연구자)

이시돌목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경우도 실패 사례가 많은데 여기서는 최근의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 제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기관이 제주시민을 외면한 사례

2012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8월에 준공 완료된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참석할 만큼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드림사업으로 여겨졌던 사업이다.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단체는 에너지공사 같은 공적기관을 먼저 설치하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는 에너지 공사 설립 조례는 뒤로하면서 대기업에 큰 사업권 허가를 내주었다. 절차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풍력 시장에서의 우선순위는 공공성보다 대기업으로 바뀌었고 에너지공사도 뒷순위로 내려갔다. 시민단체의 건의는 물론, 에너지공사 출연금, 운영비가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가동되는데도 에너지공사는 오히려 인허가 과정에서 출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대기업을 도와주었다(김동주, 2016).

□ 사업타당성 사례

2015년 1월 17일 창립한 제주하늘버스 협동조합은 단시간에 조합원을 모집하였고(1계좌에 1000만 원 이상) 1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월급 8천만

원의 모 저가 항공사 출신 사장이 참여하였다. 한국 협동조합창업 경영지원센터 이사장 김모씨가 실무를 책임졌고,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초대원장 출신인 이모씨,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고모씨가 초대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창립총회에서 법인설립 완료와 함께 제주하늘버스 협동조합의 항공이동권과 화물 운송권 보장을 목적 사업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규모가 큰 협동조합임에도 인허가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제주도정은 물론 문드라곤 협동조합 전문가를 포함해서 세계 최초 하늘버스 협동조합이라는 자부심과 화려한 창립 멤버가 무색하게 스스로 와해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넘어서는 방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찾아 구현하는 길밖에 없다. 공동체경제를 통해 특수화된 사회적경제 공간과 그 안의 주민들과 직원들의 담론 관계를 파악하며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대되는 과정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 종교기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 사례: 희망나래

희망나래 창립자들은 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가톨릭황새앗카리타스가 운영하는 일배움터에서 13년 동안 근무하였다. 가톨릭교회 안에 머물며 발달장애인들과 작업을 해오다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이유를 받아들일 틈도 없이 다시 사회적경제 영역에 집중했다.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협동조합 7대 원칙에 충실했고(박주희, 2016), 교회 밖에서 통용되는 독특한 재무구조도 밤낮없이 터득하였다. 제일 큰 차이는, 엔다 수녀가 재가복지를 하며 말기 암 환자의 수에 놀랐듯, 가톨릭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 규모만큼의 장애인만 보였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보니 주위에 너무도 많은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감에 시민자산화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조합원 수를 늘리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제주 주민들이 장애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도록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발달장애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공동체의 과제이다. 희망나래의 노력은 이를 선도하는 사회적 임팩트라고 할 수 있다. 희망나래 지도자들은

스페인 협동조합과 이탈리아 협동조합 등을 다니며 소액 저리 대출을 통해 발달장애인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자, 여성 수급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합 구상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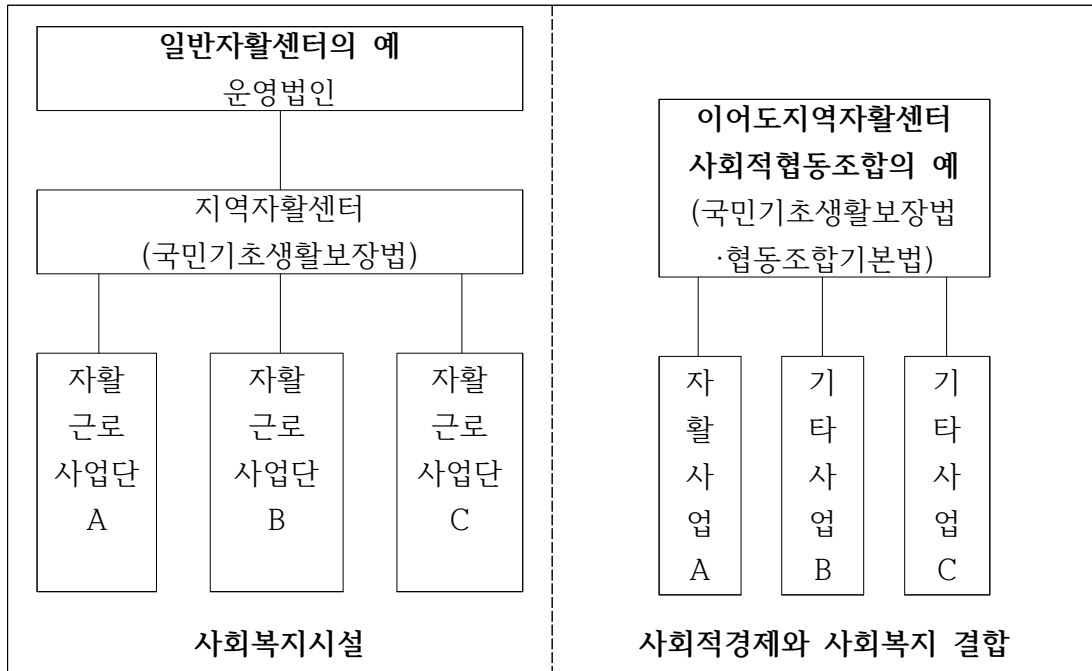
□ 자활센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된 사례: 이어도자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은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육성,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곳이다¹²⁹⁾. 이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립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자활센터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자활기업은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살아남아야 한다(진희선, 2019). 이런 과정을 거쳐 자활기업은 시장성을 가지고, 자립 능력을 갖춘 자활기업으로 독립해 성장하는 것이다.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도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다. 2015년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22개소가 참여해 사회복지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영역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의 한계도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자활센터는 전국 22개소 사회적협동조합지역자활센터 중 하나이다.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으로 본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사회복지시설이자 전달체계인 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복지로서 자활과 사회적경제로서 자립을 결합, 자율성과 효율성,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목표를 이루고 있다. 그럼으로써 제주 사회적경제 또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보편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2021년 4월 15

129)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그 개념 자체를 구별해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 의존하며 사회적경제 또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지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지원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책임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정부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운영원리인 자발성과 자립성에는 못 미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 사업 등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목적 사업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 김효철 대표 인터뷰).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와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이어도 사례



[그림 IV-19]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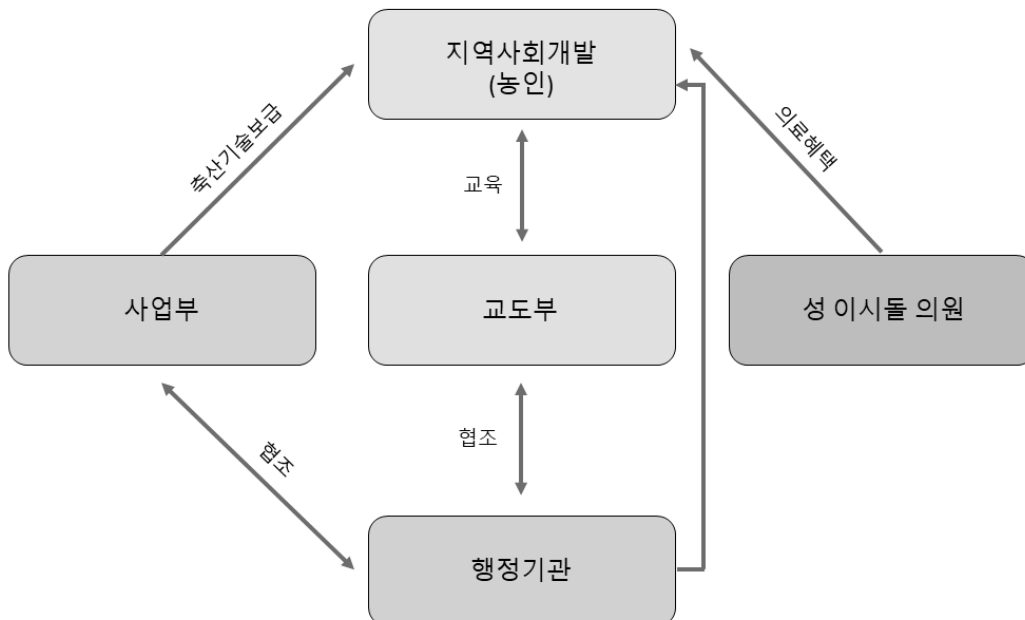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 사업에만 치중할 때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했고(정경수, 1999), 아이러니하게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도 만들었다(허정 외, 2009). 국가가 관여하는 비국지적 영역은 열려 있고 국지적인 지역 마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 못 하는 행태도 발생했다(최현·정영신 외, 201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지원 정책의 허점과 저항운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저항은 사회운동의 모델을 구축하며 장소와 공간을 진보시키는 모습이다(俊雄, 2010). 이러한 전환(transition)은 인증 제도의 약점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줄 임팩트로 작용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의 효과와 한계를 극복한 보편적인 예로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전환배경을 이어도자활에서 찾을 수 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환 사례: 이시들의 진화

세 번째 형태는 비영리재단 이시들 협회와 (주)섬이다가 합작하여 토리비아 영농조합법인 통해 지역 사회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토리비아가 생긴 과정은 두 개의 조직 간의 이익 배당에 대한 이견 조율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거버넌스로서 중간지원자 조직인 토리비아가 전통의 이시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두 개의 매칭되는 사례가 포착되었다. 광의의 범주로 볼 때는 성이시들목장은 이시들협회와 개척농가(자돈회원 농가, 육성돈회원 농가) 사이의 가격보장과 소득증대, 국제이시들축산주식회사의 비육돈판매망, 사료공급, 행정기관 담당업무를 위해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증대와 이시들협회의 수익 사업권은 지역사회 개발로 나타난다.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에서 사업부는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교도부는 교육 및 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성이시들 의원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경제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림 IV-20] 교도부를 통한 전통의 이시들 협회 경제 생태계

성이시돌 실습목장과 교도부는 사업과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게 우선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이시돌협회가 추구하는 목적 사업인 성이시돌 의원을 돕기 위한 전통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시돌협회와의 거리적 근접성, 원활한 소통,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였던 전통의 생태계가 있었다면, 현대도 이시돌협회와 마주한 거리적 근접성, 토리비아를 통한 원활한 소통, 수익 배당을 통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는 우유부단이 있다. 토리비아는 이시돌 복지위원에 수익 분배와 사회적 자본¹³⁰⁾을 투입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이시돌협회와 사회적기업 섬이다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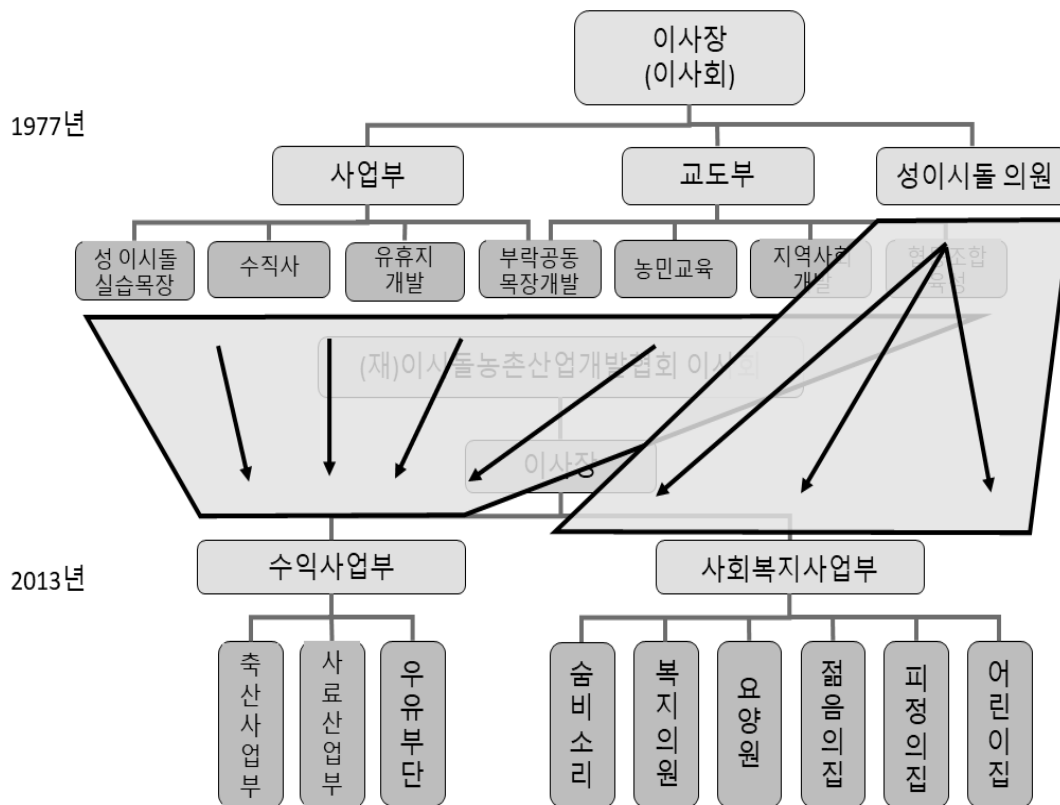
[그림 IV-21] 이시돌협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정리하면, 1977년과 2013년 이시돌협회 조직에서 보이듯이, 이시돌협회의 다양한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3개의 사업으로 정해졌고, 돌봄 영역에서 하나였던 성이

130) 사회적 자본은 물질 자본 및 인적 자본과는 구분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와 규범, 신뢰의 요소를 갖춘 사회적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Putnam, 1995). 많은 사회적경제 지도자가 퍼트남 교수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의 자원 활용을 필요한 항목으로 삼는다. 남궁근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위해 집합행동을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남궁근, 2007) 정부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성과를 냈는지를 판단할 때도 지표로 사용한다고 보았다(남궁근, 2019).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이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할 때도 사용된다(Fukuyama, 2004).

시돌 의원은 6개의 사회복지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아직은 비가시적이며 100% 확산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가 포착한 전통의 이시돌협회 조직 변화는 제주 사회적경제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축산, 사료, 우유 사업에 기반한 이시돌 복지의원, 어린이집, 요양원 운영은 비자본주의의 다양한 경제영역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자본주의 외의 세상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Gibson-Graha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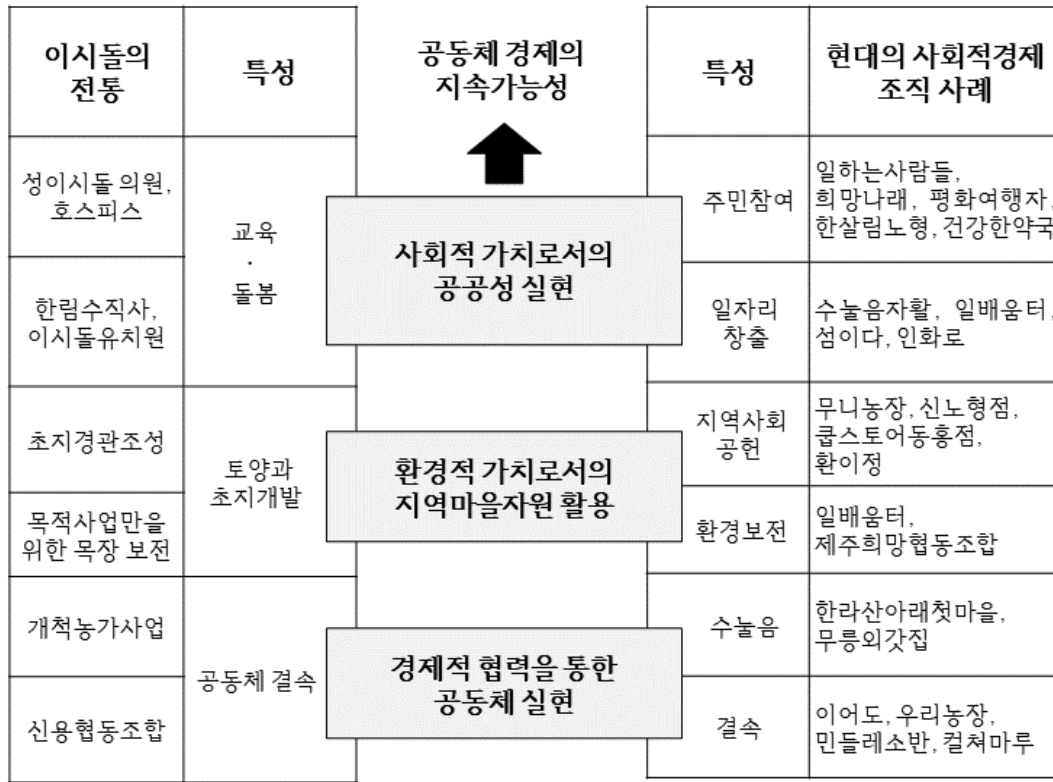


[그림 IV-22]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화와 지속가능성의 담보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제주의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로컬이지만 글로벌이었다. 타카라가 수집한 대로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경제의 마르카 시스템, 멕시코의 테키오 시스템, 브라질의 무티랑 시스템, 아일랜드의 마이힐과 제주도의 수놓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작동하는 협동의 정신이었다. 크로포토킨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는 우선적으로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장소이다. 20개의 대표 사례 연구에서도 몇 가지 로컬의 영역을 글로벌화 하려는 시도들을 포착할 수 있었

다. 그중에서 희망나래는 종교적 색채를 벗는 자구책을 통해 장애인 인식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한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공간을 이루어냈다. 이어 도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켜 온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활사업단의 영역을 확대하는 혁신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도, 다른 지역과 차이 없이, 보편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주에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뿌리내림은 수익사업 활동과 더불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의 두 특징적 면모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이시돌 목장이 초창기 지역 빈곤 감소를 위한 수익사업에서 점차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유사한 경로를 보이는 모습으로 전통의 사회적경제가 지켜 온 거버넌스를 현대에 맞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비자본주의의 영역이 확대되고 지속 가능해지게 만들었다.

전통의 이시돌 경험과 현대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를 결합해 보면 그림 VI-23(현대와 전통의 결합)과 같다. 사회공헌과 공동체의 결속은 유사한 특징으로 나타나지만 마을자산의 활용에서 이시돌의 다양한 경제요인을 보인다. 이시돌의 농업, 축산업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매일경제, 2010; Bowler, 1992; Ilbery, 1998). 그러나 이는 현대적으로는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공헌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에서 도출한 6개는 아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지만, 이시돌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적경제 개념에서 도출된 6가지 성공요소를 이시돌의 교훈과 합쳐보면 주민참여와 일자리창출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공헌과 환경보전은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자원의 영역에서, 수놓음과 결속은 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체 실현으로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다. 결과물로서 나온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23] 현대와 전통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결합과 지속가능성

위 도표를 통해 제주 사례와 이시돌 사례 간의 유사점에 더해 보완해야 할 것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제주는 이익과 분배의 차원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속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시돌협회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또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마을자원의 활용은 경제를 지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시돌 전통과 현대를 합쳐서 묶어 놓고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을공동체의 자원 활용이다.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논문의 지향점이다.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에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던 제주지역의 이시돌과 현대의 사회적경제 측면을 제주지역의 전통과 현대의 사례로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 기존의 사회적경제에서 논의해 온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적경제 가치들이 제주에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는 탄탄한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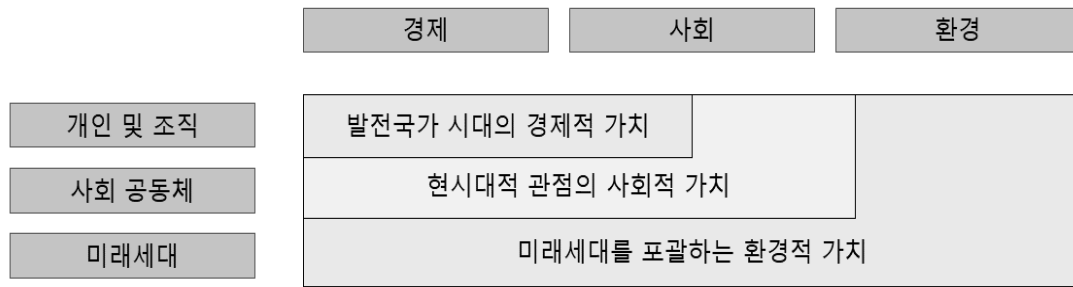
-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와 유사한데 제주자원의 가치는 아주 독특한 특수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시돌과 현대의 사례들은 제주만의 독특한 관계적 재화(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과의 교감, 사람과 자연)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뿌리내리게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敬喜, 2016).

제주지역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에 대한 광의의 논의에 연구자가 공헌하는 바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가치로 이야기하는 점이다. 전통의 이시돌과 현대의 사례를 포괄하는 공통된 가치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마을자원 활용으로 볼 때 사회적 가치는 일반 사회적경제에서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경제에서 언급했던 이론적 배경과 연계가 되고 있다. 경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체 결속은 다양한 경제, 대안경제 논의와 연계가 되고 있다(Danny and Andrew, 2021). 하지만, 마을자원의 활용은 지리적인 특성이다. 결국 사회적경제가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이라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마을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주 사회적경제 사례에서 연구자는 마을자원 활용이 중요한 특징임에도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에서 거의 부각이 되지 않았음을 포착하였다. 이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성공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어서 앞으로는 이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대별 삶의 질의 변화는 개인의 안녕을 도모하는 단계(1960~1970), 사회적 관계 구성요소를 통한 사회의 질(1980~1990년대) 단계,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 사회, 경제, 환경 전체를 포함한 전 지구적 차원의 의지가 담긴 지속가능성(1990년대 이후)으로 구분한다(고동현 외, 2018). 이는 제주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이라고만 보기보다는 보편적 사회적경제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시대별 삶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 하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천 추진전략에서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권은혜, 2017),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중장기적으로 자립적 지역발전에 기반을 구축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을 연구자 일부 수정

[그림 IV-24] 시대별 삶의 질 변화

제주의 전통과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징으로 포착한 공공성, 공동체, 지역 자원은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가치로 제시되는데,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가치는 유사한 모습이다.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일자리 창출,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 증대, 지역 내 구매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적 가치(지역 필요 서비스 제공,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 그리고 환경적 가치(마을자원의 관리, 향토자산 및 부존자원의 보전, 환경 관리, 환경정책 등)로 제시되는데, 이에 비추어 제주의 사회적경제 특징은 로컬이지만 글로벌이며 지속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 사회를 들여다보고 사회적경제 동향을 살펴면서 현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주라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점층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가 되는 영향력을 주시하였다. 제주 경제의 0.75%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미시적 경제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의 틀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을 통해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핵심 요인들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가 제주의 지리학적 특성과 만나면서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시돌협회의 공동체경제 경험을 통해 3가지 차원에서 구현해 내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가치로서 공동체의 실현,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의 실현 그리고 환경적 가치로서 마을자원의 활용이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대안경제에 해당하는 시민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 공동체경제를 살펴보았다. 이런 다양한경제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분류되어 그 목적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았다.

먼저 1절에서는 시민경제와 모두를 위한 경제를 고찰하였다. 수도권경제와 시민경제와 모두를 위한 경제는 스스로 노동하면서 그 잉여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경제에 기초하여 공간에서 참여 행동이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결속에 대해서 보았다. 둘째는,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공유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자들의 견해를 국제적인 지역들과 제주 사례로 나누어 해당 지역에서 자본주의에 맞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았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이다. 비자본주의 경제의 실행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이 드러나는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보았다.

3절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보며 다양한 경제들의 복합체로 주류 경제와 대안경제의 특성을 보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조직 간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았다. 사회적경제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표기에 대해서 보았다.

III장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관과 제주의 사회적경제 개관을 통해 제주 사회적경제 분포와 연구자가 선정한 사례 분포에 나타난 제주 동지역에 사회적경제가 많은 근거와 서귀포지역의 클러스터화 부분을 고찰해 보았다. 대표사례는 인증기관 분류형과 다양한 경제 사례 구분으로 나누어 EMES가 내는 핵심 요인과 사회적 임팩트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통해 성공 요인을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사회적경제는 주민참여, 사회공헌,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을 통한 공공성, 공유재, 공동체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요인이 안 보였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지역에 착근된 이시돌의 풍부한 경험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초창기 이시돌협회의 사업에 비추어 다양한 부류의 인터뷰 대상을 통해 금악리가 이시돌의 공동체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았다. 또한, 이시돌목장과 협회의 이시돌 경험은 일자리 창출, 수놓음, 후계자 발굴과 맥크린치의 리더십, 그리고 경로의존성으로 정리하였다. 다양한 사업이 정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일부 사업이 지역의 기관으로 양도되고, 일부는 폐쇄되고, 논쟁에 휘말린 운영 부분은 패소로 이어지는 등 실패를 통한 교훈도 많았다. 그럼에도 이시돌이 보여준 전통과 경험은 수놓음의 재현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시돌협회의 초창기,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발전해 온 공공분야의 사회적 가치, 자원활용의 환경적 가치, 결속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현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체적인 부분의 사례 소개, 공유재로 나타난 3개의 사례, 공공성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가치를 종합해서 제주 사회적경제의 뿌리내림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종교기관에서 사회적경제로 장애인 산업이 확대된 예,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가 결합하여 창의성이 발휘된 예,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환의 예는 모두 수익 활동과 지역복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현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도출된 6가지 성공 요인과 이시돌협회의 사회적 가치 요인을 합쳐보면 주민참여와 일자리창출은 공공성 실현, 사회공헌과 환경보전은 마을자원의 활용, 세 번째로 수놓음과 결속은 공동체 실현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그 전 사회적경제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점,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측면을 제주 지역과 현대의 사례로 보았더니 첫째, 제주의 경험은 기존의

사회적경제에서 논의해 온 전 지구적 차원의 것과 유사해 제주에서 그대로 재현, 마을자원의 가치는 아주 독특한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제주의 공공성 실현, 공동체 실현 그리고 환경보전의 가치를 사회적경제의 보편적 논의와 연계시키면 개인 및 조직의 경제 가치였고, 사회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환경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회적경제의 4가지 지리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적경제를 경제지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을자원이 수놓음과 같은 공동작업으로 재현되고 재구성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해 내었다.

둘째, 사회적경제가 지속해 온 전통과 현대 사례는 지역에 기반한 돌봄과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리적인 측면으로 연구를 시작한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소와 공동체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었다.

넷째, 전통과 현대 사례는 지역성을 통해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구현하며 지속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미래를 추구할 토대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 470개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연구자가 선정한 12개의 사례가 나머지를 전부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가 다루지 않았고, 무게 있게 포함시키지 않았던 마을자원의 활용, 곧 마을자원이 없으면 사회적경제를 실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에 마을자원의 소중함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적경제 논의에 일부 공헌하고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는 마을자원 논의 곧 뿌리 없이 시민 참여, 공동체 같은 추상적 개념만으로 접근하면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항상 사람의 토대인 현실에 마을자원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때 사회적경제가 실재적으로 논의되고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경민, 2011,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권오, 2021,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통한 정책 유형별 갈등과 순응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대기, 2004, “마을 공동체 전통의 현대적 의미”, 산위의 마을 12, 11-27.
- 강수영, 2013,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특성 및 실천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선, 2022, 이탈리아 시민경제 사상과 한국 친교경제 EoC 기업 사례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용립·김마태호·백원근, 1979, 대농민 교도사업종합보고서, 이시돌협회.
- 고동현·이재열·문명선·한솔, 2018,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사회적기업연구소 연구총서 2, 한울아카데미.
- 고수희, 2017,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석기·임현진,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 구승희 외, 2002, 아나키 환경 공동체, 모색.
- 권상철, 2013, “창조도시의 지역적 반응: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7-29.
- _____, 2015,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395-414.
- _____, 2016, 지역 정치생태학-환경 개발의 비판적 검토와 공동체 대안, 푸른길.
- 권오혁, 2000, 신산업지구, 한울.
- 권은진, 2014.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혜, 2017,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자주적 관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태준 외, 1999, 도시·지역과 산업,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주, 2022, P. J.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교육사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 김기섭, 2018,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들녘.
- _____, 2020, 무위당 장일순의 사상과 공생의 사회운동, 안동대학교 공동체문화와 민속연구 창간호 게재 논문.
- 김기현, 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조직유형 및 형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올림.
- 김길녀, 2020,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주, 2016, 제주도 바람의 자본화에 저항하는 풍력자원 공유화운동,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 444-482.
- 김선필·정영신, 2016, 학교와 지역 공공성: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둘러싸고,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진인진, 119-157.
- 김성윤, 2017, ‘사회적인 것’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논리의 역사적 과정과 담론적 질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돈, 1989, 제주 성읍 마을, 대원사.
- 김오진, 2018,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 김원동, 2016, “미국의 농민시장과 공동체지원농업: 배태성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사회학 50(1), 75-117.
- 김의영·임기홍, 2015,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OUGHTOPIA 130(1), 61-92.
- 김자경, 2016, 커먼즈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공공성 구축을 위한 서론,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진인진, 52-77.
- _____, 2017a, 제주 커먼즈의 경험: 수놓음의 역사와 사회적 경제, 최현 외 편저,

-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진인진, 76-103.
- _____, 2017b,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17호, 87-117.
- _____, 2019a, 제주의 전통적 커머닝 수놓음: 제주 목축문화의 재해석, 최현 외 편저, 제주사회의 변동과 공동자원, 진인진, 37-65.
- _____, 2019b,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 제주 행일리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35-74.
- 김자경·최현, 2020, “공동자원을 활용한 농촌 마을만들기 - 하례 1리의 효돈천 생태관광”, 지역사회연구 28(1), 58-80.
- 김정원, 2017,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 경제와사회 통권 제 114호, 79-121.
- 김정원, 김동철, 2016,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0(2), 143-162.
- 김창진, 2015, 퀘백모델, 가을의아침.
- 김창희, 2017, 공유경제의 성장과 금융위기로 인한 서비스 산업 양극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돈, 2019,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근, 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297-325.
- _____, 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3), 35-71.
- 남승균, 2016 지역경제의 내발적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대명, 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35-73.
- _____, 2010, “제3섹터의 정통성 위기와 사회적경제 - 유럽과 미국의 제3섹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87-96.

- 매일경제 아그리젠토 코리아 프로젝트팀, 2010, 첨단농업 부국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 문병기·오승은·정일섭·송광태·김영수·최근열·이종원·최진혁, 2008, 지방의회의 이해, 전영사.
- 문병기, 2021. www.eockorea.com 내 EoC기업 지식백과 소식지 11호.
- 미우라 히로키, 2013,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사회생태계적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47(5), 341-366.
- 박경환·류연택·정현주·이용균,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주)시그마프레스.
- 박교순, 2020, 신용협동조합의 책임성 결정요인: 사회적 기업 관점에서의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삼옥, 1999,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 박영봉, 2009,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교리적 대안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민, 2021, 한국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형, 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5-43.
- 박주희, 2016, 소비자협동조합의 성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순·육정희, 2017,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따라 돌아본 13개 나라 공정한 사람들과의 4년간의 기록, 시대의창.
- 박태현·이병천, 2017, 공동자원의 공동체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와 총유제, 최현 외 편저,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진인진, 221-248.
- 박혜영, 2016,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 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부산 ‘기장미역’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 연구 28, 47-93.
- 배성기·오수길·윤진호·임봉규, 2020, 사회적가치와 공기업혁신, 사회적 가치 연구소, 큰날개.
- 서영숙, 201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표, 2017, 도시와 공동자원: 몸의 리듬과 집단적 기억, 최현 외 편저,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121-152.

- 김동완 편저, 2017, 공공공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동녘.
- 손명철, 2004, “생활양식과 전통적 가치관, 사회의식에 대한 서귀포 시민의식의 실태
와 과제: 서귀포·제주·서울 시민의식 비교연구”, 社會發展研究 제19집, 189-207.
- 손석조, 2019, “한국 신용협동조합운동과 천주교회”, 가톨릭 평론 제19호, 136-149.
- 손인철, 2012,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집행과정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혁상·공석기, 2015,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 NGO의 역할과 한계: 방글라데시”, 국제지역연구 19(2), 23-46.
- 송미, 2016, 문화·관광분야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협력구조,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위진, 2014,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제14호, 1-22.
- 신혜원, 2017,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참여자 중심 평가의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강진·해남 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철, 1990, 內生的 地域開發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6, 오병이어의 기적: 제주한림이시돌 맥크린치 신부, 박영사.
- 양영철·민기·남진열·황경수·오승은·허향진·하승수·김효명,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 양준호, 2011, 사회적 기업: 개념 사례 정책과제(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두남.
- 양창조, 2012, 임 맥크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희, 2019,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동기의 선행요인과
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동운, 2002, 경제본능론, 북코리아.
- 유미현, 201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나연, 2020,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2011,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적 생태영성,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천, 2017, 공공성, 자치 사회화, 커먼즈: 공공협치의 투트랙 전략을 향해, 최현외 편저,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진인진, 235-248.
- 이용규, 2022, A Chronological Study on the Ctesiphon Residential Houses on Jeju,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2), 53-62.
- 이용훈, 2015, 궁핍한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가톨릭출판사.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 이종혁, 2014,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분석: 사회적 기업 대표, 종사자,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준희, 2016, 경영학과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동 외, 2017, 마을학개론: 대학과 지역을 잇는 시민정치교육, (주)푸른길.
- 이현재, 2009, “여성의 가사노동과 성 계급과정의 정치경제적 함의 -김순-그레이엄의 바-자본주의적 계급과정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3), 377-402.
- _____, 2011, “지구화 시대 도시 정의를 위한 시론”, *시대와 철학* 22(2), 349-377.
- 이혜은·김일림·안재섭·이승철, 2005,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 인문지리학의 탐색,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홍택, 2018,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석, 2016, “공유가치창출(CVS)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이시돌목장 사례”, *윤리경영연구* 16(1), 1-25.
- 이훈정, 2011, 학교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중심 환경수업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간도시컨센서스, 2012,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에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4가지 공동원칙의 역할.
- 임완신, 2019,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재해, 2000,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 임현지, 2019, 사회적기업 성과의 영향요인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수, 1995, 환경 지속발전과 환경구속적 미래기업, 이정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21-138.
- 전종한 외, 2008,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 정기환, 2003, 농촌지역 사회자본의 존재 양태 분석, 연구보고 R4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 2016,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전북 진안군과 완주군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신, 2017a,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을 넘어서, 최현 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진인진, 80-126.
- _____, 2017b,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로컬리티 인문학 제17호, 119-163.
- 정태인, 2013, 신뢰와 협동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네트워크 63, 8-17.
- 정태인·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레디앙.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 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 지용승, 2021, 지역이 묻고 사회적경제가 답하다, 좋은땅
- 진희선, 2019,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인사이트브리즈.
- 진희선·이한준, 2015, “우리는 왜 공유가치창출(CSV)에 열광하는가?”, 한국비영리연구 14(1), 25-44.
- 천주교 제주교구 한림성당, 2005, 천주교 한림본당 50년사.
- 최영진, 2010, “희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차이 드러내기: 자본주의 공간성에 대한

- Harvey와 Gibson-Graham 비교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1), 111-125.
- 최조순, 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김선필, 2016,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공간과사회 26(4), 267-295.
- 최현·정영신·윤여일 편저, 2017, 제주마을과 공동자원. 진인진.
-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 편저, 2019, 공동자원의 영역들, 진인진.
- 최협 외, 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선인.
- 탁석산, 2021, 한국적인 것은 없다. 열린책들.
- 하용삼·문재원, 2011, “공공성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공적영역으로서 주민도서관을 중심으로”, *哲學論叢*, 421-451.
-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현대 도시 및 지역 연구, 아카넷.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 한림읍, 1999, 한림읍지.
- 한주성, 1998, 경제지리학 2판, 교학연구사.
- 허봉선, 2015,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개념 구성에 관한 통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정 외, 2009, 지역이라는 아포리아: 지역에 대한 존재론적 사유와 실천적 담론, 산지니.
- 허찬란, 2022, "아일랜드에서 온 평화순례자 임피제 신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32(1), 67-101.
- Huh, C. R., 2019, One Livelihood Hansalim Movement of Jang Il-Soon and Its Implication for Sustainable Futur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8(3), 463-475.
- _____, 2021, Jeju Island: The Cry for Help,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11(1), 37-45.
- Huh, C. R. and Kwon, Sangcheol., 2021, Beyond Nuclear Power: Risks, Alternatives, and Laypersons' Role,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24(2), 163-180.

- 현해경·라해문, 2020, 제주지역 마을운영 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 홍성태, 2019,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진인진.
- _____, 2021, 공동자원/공동체/지역혁신, 진인진.
- 홍현우, 2019, 사회적 가치와 기업에 대한 경제학 연구-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B금융지주연구소, 201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교.
- Meretz, S., 2019, 공동관리주의자가 생산한 생계수단들, 공동자원의 영역들, 최현외 편저, 진인진, 329-376.

2. 외국 문헌

- Bellamy, Joyce, Gallagher Patrick (Paddy the Cope), *Dictionary of Labour Biography*, Vol I, 128.
- Bowler, Ian, 1992, *Geography of Agriculture in Developed Market Economies*, John Wiley & Sons.
- Borzaga, Carlo and Defourny, Jacques., 2004,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 EMES*, Routledge.
- Brouder, Patrick, 2019, The end of tourism? A Gibson-Graham inspired reflection on the tourism economy, *Tourism Geographies* 20(5), 916-918.
- Bruni, Luigino, 2002, Gold, L. (trans),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City Press, (1999, *Economia di Comunione*, Citta Nuova).
- _____, 2008, *Reciprocity, Altruism and the Civil Society*. Routledge.
- _____, 2012, *The Genesis and Ethos of the Market*, Palgrave Macmillan.
- _____, 2015, *Il mercato e il dono: Gli spiriti del capitalismo*, Universita Bocconi.
- _____, 2016, *La foresta e l'albero, Dieci parole per un'economia umana*, Vita e Pensiero d'Università Cattolica del S. Cuore, Vita e Pensiero.

- Bruni, Luigino and Smerilli, Alessandra., 2008, Benedetta Economia. Benedetto di Norcia e Francesco d'Assisi nella storia economica europea, Città Nuova.
- Butler, Judith, 2006,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Canainn, Tomas, 1993, Traditioanal Music in Ireland, Ossian Publication.
- Caporaso, James, 1987, Chang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Lynne Rienner Publishers
- Coda, Piero, 2020, From the Trinity: The Coming of God in Revelation and Theology,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Coe, Neil, Kelly, Philip, and Yeung, Henry., 2019,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3rd, Wiley-Blackwell.
- Collins. Suzanne, 2001, The Path to the Aras (The role of political communications in the election of Mary McAleese as the eighth President of Ireland), Dublin City University
- Coolahan, John, 1981, Irish Education: history an structure, Institue of Public Administration.
- Cox, Kevin, 1972, Man, location, and behavior, Introduction to Hum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 Creswell, Tim,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 Defourny, Jacques and Nyssens, Marthe.,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Routledge.
- Doeringer, Peter and Piore, Michael. J, 1985,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1st Ed, Sharp Publishers.
- Duffy, Seán, 2000, Atlas of Irish History, Gill & Macmillian.
- Fleming, Kathryn, 2015, Diverse Education for Diverse Economies: The relevance of Rural Training Centres in the Solomon Island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Foster, R.F., 1989, Modern Ireland 1600~1972, Penguin Histroy.

- _____, 1989, *The Oxford History of Ire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stone, Robert and Liu, Edgar, ed., 2016, *Place and Placelessness*, Routledge.
- Gibbons. Luke, 1996, *Transformation in Irish Culture*, Cork University Press.
- Gibson-Graham, J.K, 2003, Enabling Ethical Economies: Cooperativism and Class, *Critical Sociology* 29(2). 124-161
- _____, 2006, *Postcapitalist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ttdiener. M. D. et al., 1991, *Urban Life in Transition*, SAGE.
- Hall, Peter, 1992, *Urban and Regional Planning*, Routledge.
- Ilbery, Brian, 1998,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 Jones, Colin, 1979, *Urban Deprivation and the Inner City*, Croom Helm.
- Kahn, William,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of 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 692-724.
- Kaltenborn, Bjørn, 1997, Nature of place attachment: a study among recreation homeowners in southern Norway, *Leisure Science* 19, 175-189.
- Kee, Robert, 1995, *Ireland a history*, Abacus Book.
- Lash, Scott and Urry, John, 1996,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SAGE.
- Lefebv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 Linge, G. J. R. and van der Knaap, G. A., 1989, *Labour, Environment, and Industrial Change*, Routledge.
- Low, Setha and Altman, Irwin, 1992, Place attachmet in Conceptual Inquiry, in I. Alman, and S. Low eds, *Place Attachment*, Plenum.
- Jeff, Lowenfels and Wayne, Lewis, 2010, *Teaming with Microbes*, Timber Press.
- Muñoz, S. A., 2010, *Towards a geographical research agenda for social*

- enterprise, *Area* 42(3), 302-312.
- Jean-Luc, Nancy, 1991, *Inoperative Communit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 Universities Of Minnesota Press.
- Oh, Hae-Sub, Yoon, Jun-Sang, Choi, Chang-Wook (Korea 4-H Federation), 2002, Upbringing System for the Future Farmers and the Roles of 4-H Center in the U.S.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9(1), 1-10.
- Olson, Robert, 1995, Sustainability as a social vis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1(4), 15-36.
- Peck, Jamie, 1996, *Work-Place: Social Regulation of Labor Markets*, The Guilford Press
- Porter. Michael,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Macmillian.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5-78.
- Lloyd G. Reynolds et al., 1991,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 Roelvink, Gerda and Gibson-Graham, J.K., 2015, *Making Other Worlds Possibl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amje, Chris, 2020, *A Small Farm Future-Making the case for a society built around local economies, self-provisioning, agricultural diversity and a shared earth*, Chelsea Green Publishing.
- Samuelson, Paul, 1948, Consumption theory in terms of revealed preference, *New Series* 15(62), 243-253.
- _____, 1983, *Foundation of Economic Analysi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yer, Andres and Walker, Richard, 1992, *The New Social Economy: Reworking the Division of Labor*, Wiley-Blackwell.
- Schor, Juliet, 2020, *After the Gig-How the sharing economy got hijacked and how to win it bac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ith, David,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 Smith, Neil, 1996,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Routledge.
- Soja, Edward, 1996, *Thirdspace: Journeys to Los Angeles and Other real-and-imagined Places*, Blackwell.
- Sonnet, Jean-Pierre, 2010, Ehyeh Asher Ehyeh (Exodus 3:14): God's "Narrative Identity" Among Suspense, Curiosity, and Surprise, *Poetics Today* 31(2), 331-351.
- Valentein, Gill, 2014,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Routledge.
- Widolk, Thomas, 2017, *Anthropology and the Economy of Sharing*, Routledge.
- Wolf, Eric, 1966, *Peasants*, i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 Wood, David, 1991, *On Paul Ricoeur: narrative and interpretation*, Routledge.
- Zamagni, Stefano. 2007, L'economia del bene comune, *Città Nuova*.
- _____. 2013, *Impresa responsabile e mercato civile*, Il Mulino.
- _____. 2014, Public happiness in today's economic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volume 61*, 191-196.
- _____. 2015, EL RETO DE LA RESPONSABILIDAD CIVIL DE LA EMPRESA, Universidad de Bolonia, *Mediterraneo Economico 26*, in *La responsabilidad ética de la sociedad civil*, 209-225.

3. 번역서

- Anderson, Jon, 이영민·이종희 역, 2013, *문화·흔적·장소*, 한울아카데미 (2009,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Routledge)
- Banerjee, A. and Duflo, E., 김승진 역, 2020,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생각의 힘 (2019,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Better Answers to Our Biggest Problems*, Public Affairs).
- Barringer, B. R. and Ireland, R. D., 이정훈 외 역, 2014, *기업가 정신과 혁신*, E&B Plus (2012, *Entrepreneurship*, Pearson Education).

- Bruni, Luigino, 강영선 역, 2020b, 숲과 나무, 상상 (2016, La foresta e l'albero, Dieci parole per un'economia umana, Vita e Pensiero d'Università Cattolica del S. Cuore).
- _____, 강영선 외 역, 2020a, 콤포니타스 이코노미-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복돋움 (2016, The Economy of Communion: Toward a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Spirituality of Unity), New City Press).
- Cho. Seewha, 2014, 심정보·조시화 역, 비판적 페다고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살림터 (2012, Critical Pedagogy and Social Change Critical Analysis on the Language of Possibility, Routledge)
- Dicken, Piter, 2014, 구양미 외 역, 세계경제공간의 변동, 시그마프레스 (2007,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Sage).
- Florida. Richard, 이원호 외 역, 2008,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 Freyer, Johannes, 김일득 역, 2018, 프란치스칸 인간학, 프란치스코 출판사 (2017 프란치스칸 영성학술 발표회, 서울).
- Fukuyama, F. 함규진 역, 2012, 정치 질서의 기원, 웅진 지식하우스 (2012,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arrar Straus and Giroux).
- Gibson-Graham, J.K, Cameron, J, and Healy, S., 황성원 역, 2014,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동녘 (2005, Take back the Mone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ibson-Graham, J.K, 엄은희·이현재 역, 2013, 그 따위 자본주의는 끝났다, 알트 (2005,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iddens, Anthony, 김미숙 외 역, 1992,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An Analysis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 Vallentien, 박경환 역,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

- (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Routledge).
- Gold, Lona, 안명옥·하윤희 역, 2012, *공유경제, 조운커뮤니케이션* (2010, *New Financial Horizons: The Emergence of an Economy of Communion*, New City Press).
- Greifeld, Robert, 강성실 역, 2020, *시장을 움직이는 손*, 아이템하우스 (2019, *Lessons from a decade of change at NASDAQ*, Grand Central Publishing).
- Harvey, David, 임동근 외 역,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 발전론*, 문화과학사 (2005,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Franz Steiner Verlag).
- Jackson, Tim, 전광철 역, 2016, *성장없는 번영, 착한책가게* (2009, *Prosperity without Growth*, Routledge).
- Knox, P. and Pinch, S., 박경환 역, 2017,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6판*, 시그마프레스 (2010,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ition, Taylor and Francis)
- Kropotkin, Peter, 김영범 역, 2014, *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1989, *Mutual Aid: A Factor in Evolution*, Affordable Classics).
- Krugman, Paul and Wells, Robin, 김재영 외 역, 2021, *크루그먼의 경제학입문 5th Ed.*, 시그마프레스(2017, *Economics 5th Ed.*, Worth Publishers).
- Lubich, Chiara, 최석균 역, 2010, *모두를 위한 경제, 북돋움* (2007, *EOC-Economy of Comunion*, Città Nuova).
- MacKinnon, Danny and Cumbers, Andrew, 박경환·권상철·이재열 역, 2021, *경제지리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An Introduction to Economic Geography*, Routledge).
- MacLeod, Gred, 이인우 역, 2013,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한살림 (2010, *How to Start A Community Enterprise: A Personal Approach*, Cape Breton University).
- Michell, Donald, 2011, 류제현 외 역, *문화정치 문화전쟁*, 경기도: 살림(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Ltd).

- Mies, Maria and Bennholdt-Thomsen, V., 꿈지모 역,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zed Economy, Zed Books).
- Nardi, James, 2010, 노승영 역, 흙을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 상상의 숲 (2007, Life in the Soil, Chicago University Press).
- Neil, N. M., and Kelly, P. F., 안영진 외 역, 2011,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 푸른길 (2007,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lackwell Pub).
- Ostrom, Elinor,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RHK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scale, R., Sternin, J. and Sternin, M., 박홍경 역, 2012, 긍정적 이탈, RHK (2010, The Power of Positive Deviance,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 Polanyi, Karl, 흥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 길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2nd ed, Beacon Press).
- Putnam, Robert, 2006, 안청시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lph, Edward,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 Safina, Carl, 김병화 역, 2017, 소리와 몸짓, 돌베개 (2015, Beyond Words: What Animals Think and Feel, Henry Holt and Co).
- Singer, Peter, 이재경 역, 2015, 효율적 이타주의자, 21세기북스 (2015, The most good you can do, Yale University Press).
- Tétreau, Édouard, 2016, 전광철 역, 교황의 경제학, 착한책가게(2015, Au-delà du mur de l'argent, STOCK).
- Thackara, John, 황성원 역, 2017, 새로운 미래,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안그라픽스 (2017, How to Thrive in the Next Economy: Designing Tomorrow's World Today, Thames & Hudson).

- Tuan, Yi-Fu, 윤영호·김미선 역, 2020, 공간과 장소, 사이 (1976, Space and Place, University of Minnesota).
- Vico, Giambattista, 조한욱 역, 2020, 비코 자서전-지성사의 숨은 거인, 교육서가 (1963, Giambattista Vico, Cornell University Press).
- Whyte, William and Whyte, Kathleen, 김성오 역, 2012,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역사비평사 (1991, Making Mondragó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he Worker Cooperative Complex, Cornell University Press).
- Zamagni, Stefano and Bruni, Luigino, 제현주 역, 2016,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2016, Civil Economy: Another Idea of the Market, Agenda Publishing).
- Zamagni, Stefano and Zamagni, Vera, 송성호 역, 2012,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움 (2011,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Edward Elgar Pub).
- 松永 桂子, 이혁재 역, 2017, 로컬 지향의 시대, RHK (2015, ローカル志向の時代働き方、産業、経済を考えるヒント, 光文社新書, 日本).
- 水内俊雄 編, 심정보 역, 2010,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05, 空間の政治地理, 朝倉書店)
- 五十嵐敬喜, 최현 외 역, 2016, 현대총유론, 진인진.
- 宇澤 弘文, 최현 외 역, 2019,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진인진.
- 伊地知紀子, 안행순 역, 2013, 일본인 학자가 본 제주인의 삶, 경인문화사 (2002, 生活世界の創造と実践 - 韓国・濟州島の生活誌から, J-STAGE トップ/ソシオロジ/47 卷 (2002-2003) 1 号).

4. 연구보고서

- 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1963-1978).
 _____, 산업센서세스(1983-1988).
- 기획재정부, 201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 고용노동부, 2021,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2020,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민주연구원 외, 2019,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17.5.10-19.4.30).
 제주발전연구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추진 성과보고.
 제주상공회의소, 2000, 보고서.
 제주연구원, 2018,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_____, 2018-2019년 제주도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_____, 2019,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_____, 20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_____, 2020, 마을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_____, 2020, 제주사회적경제 실천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019, 사회적경제 현황.
 _____, 2019, 제주 사회적경제 New Deal 일자리 3000 추진로드맵.
 _____, 2019, 지역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_____, 202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통계청, 1993-2019, 전국 대비 제주 사업체수, 종업원수.
 _____, 2018,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규모.
 _____, 2020, 2015년-2019년 제주도 일반사업체 현황.
 희망나래·제주지역경제학회, 2020, 제주지역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5. 웹페이지 검색

<http://www.jejuaduk.org/company/greeting> 제주항새앗카리타스. 검색일 2020년 12월 27일.

<http://www.mppu.org/en/about-us/> 일치를 위한 정치모임. 검색일 2020년 12월 30일.

<https://www.columbansisters.org/the-story-of-my-hallim-mission-part-i,ii,iii>. 2021년 1월 11일.

<https://blog.naver.com/kohj007/222106245052> 검색일 2021년 4월 8일.

<https://www.youtube.com/watch?v=-azqj6PSSNQ> 검색일: 2021년 5월 13일.

<https://blog.naver.com/eh2411>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https://www.nojiculture.kr/cuulture-city/what.do>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https://www.monttak.net/>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https://blog.naver.com/veryverybonbon>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http://www.jemin.com>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https://www.jeju.go.kr/vill/geumak/intro/about.htm> 참조. 검색일 2021년 11월 5일.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people/entrepreneurial-donegal-priest-who-achieved-national-celebrity-in-korea-1.3483137> 검색일 2021년 12월 10일.

"Meitheal". Irish Dictionary Online. englishirishdictionary.com.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0 July 2011. 검색일 2021년 12월 15일.

<https://www.irishtimes.com/profile/mary-hannigan-7.1837428>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https://www.coop.go.kr/home/disclosure/DisclosureList.do?menu_no=2037 Performance socio-économique des entreprises sociales d'insertion par le travail, (<http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perse>). 협동조 합경영공시 자료. 검색일 2022년 5월 11일.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 자료. 검색일 2022년 5월 11일.

<https://www.msema.org/wp-content/uploads/2021/04/G0775-Student-Manual.pdf>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http://www.mayonews.ie>obituaries> 검색일 2022년 11월 8일.

<https://www.nojiculture.kr/cuulture-city/what.do> 검색일 2022년 11월 2일.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people/entrepreneurial-donegal->

priest-who-achieved-national-celebrity-in-korea-1.3483137 검색일 2021년 12월 10일.
<https://rip.ie/death-notice/josephine-jo-mcglinchey-letterkenny-donegal/107768>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https://www.irishtimes.com/news/politics/oireachtas/profile-pat-the-cope-gallagher-ff-1.2554130>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https://www.irishtimes.com/profile/mary-hannigan-7.1837428> 검색일 2021년 12월 23일.
<http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elexies-projectELEXIES>
 (L'entreprise sociale : lutte contre l'exclusion par l'insertion économique et sociale-.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https://.net/research-projects/work-integration/perse/> 검색일 2022년 10월 11일.

6. 국내 기사 스크랩 검색 (맥크린치 소장)

1970년 10월 17일 제주신문, 세계를 향한 축산 제주의 전위: 이시돌목장.
 1972년 6월 5일 경향신문, 이시돌목장 양돈생산 연간 1백만달러 손익.
 1972년 6월 제주신문, 제주농업계 학생 1년에 한 번씩 이시돌목장에서 축산기술 교육연수.
 1973년 1월 19일 제주신문, 이시돌협회가 금악리 402-1번지 도로점유 보도.
 1981년 3월 5일 제주신문, 82개 제주 내 법인 중 가장 큰 손실 입은 곳은 이시돌 협회로 -4억 7백 만원.
 1982년 7월 15일 제주신문, 안락한 경로당 설립.
 1982년 11월 25일 경향신문, 전직 이시돌협회 직원들이 이시돌 육우 불법분양 고발.
 1983년 5월 16일 제주신문, 노인대학 소풍.
 1983년 9월 13일 제주신문, 제1회 노인대학 수료식.
 1984년 4월 23일 제주신문, 맥크린치 금악국민학교 학교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 전달.

1985년 8월 6일 제주신문, 이시돌유치원 설립인가.

1988년 11월 15일 제주신문, 이시돌 우유 품목 허가.

1994년, 친환경축산소식지(www.ecolivestock.org), 1994년에 청소년센터 젊음의집
설립.

2021년 9월 14일 미래교육신문, 청소년회복지원센터 빌라수산나와 숨비소리.

<ABSTRACT>

The world is run on economic activities, which do not just mean market capitalism. There are a variety of economies in work including civil economy called social economy as alternative economy, economy for all, community economy, social economy, cooperatives, non-profit organization activities, donation culture, and certified social economy. Professors Gibson and Graham searched for community economy cases all around the world, looking at the economy through economic trends rather than fixed theories. Community economy features the generation of proper profit based on a small community and the return of a proper portion of the profit to the community. Still keeping the community spirit, economic activities on Jeju Island especially show as a community economy that there are diverse worlds other than capitalism. The community economy of Jeju is based on villages and communities and leads citizens toward a better world through trust, relational goods, and social capital in addition to capital amid trivial things in daily life. The investigator selected cases of making efforts in the area of economic activities and reviewed their expansion plans. The investigator identified success factors based on 20 modern cases and connected them to the experiences of the traditional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to explore their sustainability. Community economy features a profound and organic bottom-up process to pursue community development and an economic trend of implementing publicness, common resources, and community spirit in a small community. There have not been, however, enough empirical discussions and introductions of communities and villages.

This study reviewed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data of Jeju collected with literature study,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according to the E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EMES) indexes and analytical works to arrange core factors. This job helped analyze various forms of historical data and contributed to the specific arrangement of social economy that developed in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economy in Jeju. Unlike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research that covered the certification process, supports, startups, employment, networks, autogenic power, and achievements, the investigator examined discussions about locally-based communities, the solidarity of members in the community,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social economy to the commun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social economy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based on local needs and their solution factors. The 20 cases examined in the study were considered to maintain good management so far, and the study examined their sustainability by comparing their experiences with those of the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a traditional social economy complex so that their future could be guaranteed. The sustainable conditions of social economy are based on community economy both in the modern and traditional cases.

These cases displayed what was the most Jeju-like when their social economy fulfilled community economy through the community members from the conception of a target project through its implementation to its social accounting to realize social values. The solidarity between community-based relational goods and village resources developed into the continuity of geographical features from the traditional Isidore cases to the modern social economy. Unfortunately, the capitalist economy has penetrated all areas worldwide. In the modern world, local development has led to an imbalance between states and between regions in a nation and now to inequality among residents. As a consequence, invisible recipients, jobless people, the near poor, and the vulnerable degraded into the socially weak. The investigator finds huge significance in the

economy of Jeju where the non-capitalist subjects against capitalism account for only 0.75% but work hard to take care of the weak in the community, establish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 with them, and preserve the finite village resources.

A range of factor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impacts of the social economy on Jeju Island, and they included Sunureum, jobs, profit, welfare, local food, cooperation, solidarity among community members, social contribu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ey turned out to be success factors both in traditional and modern cases. They can be explained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in the area of values and with publicness, common resources, and communities that are sustainable in the community area of the community.

In short, the study put together the sustainable factors of the 20 modern cases and those of the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and reached conclusions for the community economy of Jeju. As Korea's first social economy organization, the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has kept its organic life force for many years. Its experiences and lessons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modern social economy.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economy combining modernity and tradition can be found in the realization of publicness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job creation, and education and care projects, in the utilization of village resources through soil research, grassland development, social contributions,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in the fulfillment of community economy through the solidarity of community members and economic cooperation in Sunureum.

Keywords : alternative economy, social economy, Isidore Development Association, village resourc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ustainability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제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성과 이시돌협회의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필요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 1-5회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면담은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 면담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면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면담자료의 전사는 연구자가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사 자료는 암호가 설정된 연구책임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직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위험으로는 면담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연구 참여자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 혹은 문제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와 참여 중단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 기간 동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셨다면 아래 서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의 성명)

(서명)

(날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연구자: 허 찬 란
지도교수: 권 상 철
연락처: 010-4624-0000

부록 2. 설문양식 1 (인터뷰 질문) - 20개 사례 사회적경제조직

1. 회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써 주세요.
2. 회사 설립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법인, 주식회사, 개인사업 혹은 인가 등등)
3.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써 주세요.
4.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갈등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써 주세요.
5. 회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 양돈+ 사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6. 회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써 주세요 (이주노동자 돕기, 네팔 학교 건립)
7. 지역과 연계된 봉사활동에 대해 써 주세요.
8. 직원 복리에 대해서 다 써주세요
9. 회사가 아닌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지 지역에서 연계된 사회적 봉사, 취미 등에 대해 써주세요
10.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써 주세요. (아들한테 등등)
11. 회사 운영의 가장 큰 힘, 직원들과 형제애 혹은 전문성 등이 있을텐데 생각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모든 문장은 "..다"체로 써 주셔야 선생님이 쓴 거라는 객관성이 보장됩니다.

설문 양식 2 (인터뷰 질문) - 모두를 위한 경제 사례(건강한약국, 파리바게트 신노
형점, 무니농장, 쌍마시멘트)

1. 는 제주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의 정신을 경영에 도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기와 그간의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2. 모두를 위한 경제의 정신이 기업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내·외부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예, () 때문에
② 아니오, () 때문에

3. 귀하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의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

4. 모두를 위한 경제 정신을 경영의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회계의 투명성
② 인사 관리
③ 거래처 관리
④ 동종 업계 관련자들과의 관계
⑤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

5. 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의 정신을 경영에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6. 한국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7. 2017년 3월, 모두를 위한 경제 정신의 확산 및 계승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설문양식 3 (인터뷰 질문) - 맥크린치 신부 관련 업체(섬이다, 이시돌협회, 희망나래,
한 살림노형점)**

1. 구술자 소개와 맥크린치 신부와의 인연

- 1) 맥크린치 신부와의 첫 만남은 어떤 계기였습니까?
- 2) 구술자께서 제주에 처음 왔을 당시, 맥크린치 신부의 첫인상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이시돌목장과 한림 성당의 첫인상은 어떠했습니까?
- 3) 구술자께서 사제 서품을 받은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사제 서품 이후 한국에서
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2. 맥크린치 신부의 사목 활동(1)

- 1) 맥크린치 신부가 제주도에 부임한 직후, 사목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긴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주의 상황, 사목의 어려움 등)
- 2) 이시돌목장의 설립 배경은 무엇입니까?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 3) 맥크린치 신부의 사목 활동은 이후 한림수직, 한림신협, 개척농가, 마을공동목
장 등으로 다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이 과정에
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육, 의료 활동 포함)

3. 맥크린치 신부의 사목 활동(2)

- 1) 호스피스 병동(성이시돌복지의원)을 설립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완화 치료와
영적 돌봄에 대한 맥크린치 신부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은퇴 이후 맥크린치 신부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선종 전까지 맥크린치 신
부의 주된 관심사 혹은 걱정 혹은 당부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3) 맥크린치 신부의 사목 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 원칙과 지향이 있다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성 골롬반회의, 성경 구절 인용 등 고려)

4. 맥크린치 신부에 대한 구술자의 기억

- 1) 신부님으로서 맥크린치 신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사 및 강론에 대한
기억, 신자/비신자에 대한 태도, 성당 운영 및 교구와의 관계 등)
- 2) 신앙인으로서 맥크린치 신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즐거 인용하는 성경 구
절, 타종교 혹은 비종교인에 대한 생각, 교리 해석에 대한 태도나 입장 등)
- 3) 일상에서 맥크린치 신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격, 기호, 가치관 등)
- 4) 가장 기억에 남는 구술자와 맥크린치 신부 사이의 일화를 말씀해주시요.

부록 3. 제주 공동체경제 앵커맨

맥크린치 생애와 그의 가족관계를 보면, 맥크린치는 1928년 6월 5일 아버지 패트릭 맥크린치 (Pat McGlinchey)와 어머니 썬라 니보일 (Sarah née O'Boyle) 의 다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성은 맥크린치이며, 이름은 패트릭 제임스(Patrick James, 우리말로 앞글자만 따면 PJ 피제)이다.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맥크린치 가족관계 표

Patrick McGlinchey 수의사				Sarah (née O'Boyle) 주부			
1 Danny	2 John	3 Eileen	4 Jo	5 맥크린치	6 Tim	7 Bernardo	8 Gerry
수의사, 예술가	UN군, 사업가	의류 도매업	오르간 반주자	신부 이시돌	출판업	상원 의원	미국 이민

연구자가 친척들을 통해 종합

남아일랜드 태생이면서 북아일랜드 지역에 속하는 더니걸 군의 레터케니에서 자랐으며 어머니는 섬 속의 섬 루틀랜드(Rutland Island) 출신의 강한 섬사람 기질을 가지고 있고, 더니걸은 제주 같은 강한 바람과 태풍과 황무지로 살기가 힘들었다. 그가 1954년 제주를 밟고 한림에 도착했을 때 마을 분위기는 달라도 자연환경은 아일랜드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사단법인 이시돌농촌개발산업협회를 만들고 이시돌목장을 개척하여 수익을 지역 사람들에게 환원하며 가난한 제주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 금악을 떠나지 않았다.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시돌협회 2대 이사장 마이클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태생인데, 제주 한림에 수습 학생으로 왔던 1978년 무렵 한림을 아주 촌구석으로 받아들였음에서 맥크린치가 금악 마을에 얼마나 최적화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맥크린친 고향 더니걸군 레터케니읍 라포리와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지도 비교



2021년 아일랜드 더니걸 모습 (구글 위성사진)



2021년 금악리(이시돌목장)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포털 항공영상사진)

부록 4. 공시 재무제표 분석

사회적경제 조직 (인증 제도)

순번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	업태	종목	자본금	사업개요
1	제주수놓음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차상위계층 일자리
2	사회복지법인 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616-82-18183	사회 복지법인	제조..소매	공예품. 화훼류	1,054,038,541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생산활동 에 참여하게 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
3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616-82-71631	사단법인	제조업	비료/기타	231,530,601	-민간위탁사업(클린하우스 등)
4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여도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다양한 자활사업단 운영
5	마을기업무릉외갓집		마을기업				-농산물 꾸러미 배송
6	제주희망 협동조합	616-86-12421	협동조합	운수업	용달차	128,000,000	-조합원 간 협업을 통한 생 활공동체 실현
7	(유)섬이다	616-86-25213	유한회사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	50,000,000	-제주 로컬푸드와 문화에 기 반하여 지역순환형 고부가 가치 경제시스템 창출 -제주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문화 활동 및 연계 협력서 비스 제공 -청년 진로, 창업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경제 창출 지원

8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695-82-00070	협동조합	정보 서비스업	기타출판	362,000,000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9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655-82-00145	협동조합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교육.상담. 상품중개 및 공예품	70,368,780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협동과 나눔으로 해결 -조합원의 복리 증진. 상부상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사회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 기여
10	농업회사법인 무니농장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농업	그린키위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주그린키위 -농업공동체브랜드
11	주식회사 평화여행자		주식회사	서비스업	여행업	350,000,000	-공정여행 -교육여행, 생태관광, 힐링워크숍
12	사회적협동조합 컬쳐마루		협동조합				-상담, 장소대관

부록 5. 무릉외갓집 주변 마을 공덕비



<금석문 내용>

송원국님은 향리 개발에 헌신 노력해 왔으며
리민의 숙원이던 새마을회관 신축에 조력코자
일금 5만원을 쾌척하여 주셨으며 그 후덕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석을 세웁니다.

부록 6. 맥크린치의 라이온스 활동



국제 라이온스 354-G지구 현황 (2021년 말)

번호	클럽명	회원수	창립	현장	번호	클럽명	회원수	창립	현장
1	제주	74	61.1.29	61.3.18	27	월계수	41	93.5.7	95.4.12
2	서귀포	101	63.12.21	64.2.22	28	우도	29	94.4.16	94.6.11
3	한림	89	76.4.12.	76.5.26	29	한울	42	95.1.22	95.3.25
4	성산포	880	76.10.23	76.11.11	30	제일	49	96.12.13	97.1.30
5	구좌	33	77.2.5	77.3.28	31	태평양	34	97.12.9	98.3.24
6	모슬포	106	77.2.21	77.3.29	32	만덕	50	98.3.27	98.4.21
7	천지	83	77.4.17	77.6.4	33	스완스	63	98.9.22	98.11.12
8	중문	89	78.3.29	78.6.2	34	송악	85	02.11.29	03.2.28
9	남원	82	78.10.15	78.12.13	35	월드	48	03.3.15	03.4.9
10	중앙	70	79.6.9	79.8.9	36	용두암	42	04.4.2	04.5.24
11	안덕	41	80.1.23	80.3.9	37	남원	21	04.9.21	05.1.11
12	표선	54	80.2.9	80.3.9	38	SJ	18	04.10.19	04.12.16
13	조천	41	80.8.2	80.10.12	39	평화	43	05.9.29	05.10.27
14	애월	61	82.3.27	82.5.27	40	칠십리	60	07.4.30	07.5.22
15	정방	63	82.12.10	83.2.21	41	문주란	33	07.11.14	07.12.16
16	탐라	41	83.2.5	83.3.26	42	샛별	45	08.10.19	08.11.28
17	뉴제주	55	88.6.10	88.6.23	43	삼무	34	09.9.28	09.11.5
18	한라	55	89.11.11	90.3.13	44	한빛	36	11.11.8	11.11.22
19	백록	83	90.4.16	90.5.19	45	올레	47	13.2.7	13.3.22
20	한경	46	92.11.7	93.2.16	46	나운	37	13.2.28	13.4.5
21	삼다	59	92.12.22	93.2.23	47	한라산	29	13.12.6	14.1.25
22	관덕	44	93.1.13	93.3.27	48	천제연	30	16.3.20	16.4.20
23	한란	63	93.1.14	93.3.16	49	오름	28	20.8.11	20.9.22
24	영주	45	93.1.15	93.3.24					
25	용연	44	93.2.5	93.4.27					
26	이어도	64	93.2.22	93.4.10					